

저출생·초고령 농촌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정책 추진실태 조사 및 분석 : 일자리 분야

강마야 · 박춘섭 · 이다겸

연구 담당

강마야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 총괄, 1장~5장 집필

박춘섭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문가 면담 및 현장 간담회 지원

이다겸 | 충남연구원 연구원 | 4장, 부록 집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저출생·초고령 농촌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정책 추진실태 조사 및 분석 : 일자리 분야

등 록 |

발 행 | 2024. 10.

발 행 인 | 유동훈

발 행 처 | 충남연구원

우.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대표전화 041-840-1114 <http://www.cni.re.kr>

인 쇄 처 | #####

I S B N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충남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저출생·초고령 농촌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정책 추진실태 조사 및 분석 : 일자리 분야』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0.



원 장 유 동 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2
4. 연구의 추진체계	4
5. 연구의 추진일정	5
6. 조사 개요	6
 제2장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11
1. OO농촌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온 경로와 계기	11
2.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OO농촌지역 장단점	13
3. OO농촌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14
4.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계 거리와 활동 거리	15
 제3장 농촌 청년과 마을주민의 정책수요 현황	 17
1.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17
2. OO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	19
3. 청년과 마을주민이 바라본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21
4. 청년과 마을주민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 수요 및 조건	35
5. 요약	49
 제4장 농촌 청년정책 공급현황 및 사례 검토	 54

1. 타 지역 경험과 사례	54
2. 청년 일자리 정책공급 현황	71
3. 요약	89
제5장 결론 : 농촌 청년정책의 전환 방향 제안	92
1. 종합 요약	92
2. 정책 전환 방향	95
3. 최종 사업구상 예시	110
4. 의의와 한계	112
부록	113
부록 1. 원내 연구심의회 및 전문가 면담 회의록	113
부록 2.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회의록	124
부록 3.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회의록	169
부록 4. 충청남도의 청년 관련 정책 목록(2024년 기준)	176
부록 5. 최종 사업구상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세부 내용	179
참고문헌	184

제1장

〈표 1-1〉 연구의 추진일정	5
〈표 1-2〉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개요	8
〈표 1-3〉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개요	10

제2장

〈표 2-1〉 기존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장단점 비교	13
〈표 2-2〉 농촌지역에서 기대했던 이상과 현실	14
〈표 2-3〉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계 거리	15
〈표 2-4〉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활동 거리	16

제3장

〈표 3-1〉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18
〈표 3-2〉 OO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	20

제4장

〈표 4-1〉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예시	55
〈표 4-2〉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지원내용	56
〈표 4-3〉 청양군의 로컬몬스터 주요 내용	59
〈표 4-4〉 괴산군의 머하농 주요 내용	61
〈표 4-5〉 무주군의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주요 활동(안성면 사례)	69
〈표 4-6〉 충청남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2024년 기준)	73
〈표 4-7〉 충청남도의 청년 관련 사업 현황(2024년 기준)	77
〈표 4-8〉 청년들이 경험했던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 사례	89

제5장

〈표 5-1〉 제2장, 제3장, 제4장 요약: 청년과 마을주민이 바라본 여건, 정책수요, 정책공급 현황	94
〈표 5-2〉 제안하는 최종 사업구상(예시)	111

부록

〈부록_표 1〉 최종 사업구상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세부내용(구자인, 2024)	179
---	-----

제1장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4
-------------------------	---

제4장

〈그림 4-1〉 서울특별시의 넥스트로컬 사업과정	58
〈그림 4-2〉 청양군의 로컬몬스터 주요 프로젝트	60
〈그림 4-3〉 괴산군의 머하농스 두달살이 프로그램 개요	63
〈그림 4-4〉 완주군의 다음타운	64
〈그림 4-5〉 완주군의 다음타운 대표 거점공간	65
〈그림 4-6〉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	67
〈그림 4-7〉 무주군의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추진체계도	68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지방소멸,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 증대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 ‘스마트팜 지원 정책’ 등을 시행 중이다. 이들 정책은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둘 뿐, 농촌에서 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맡으며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므로, 인구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전제”(김정섭·마상진 외, 2024: 5)하는 정책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 인구를 늘리는 것에만 매진하는 단순한 관점의 정책은 지역 간의 인구 유입 경쟁을 촉발할 뿐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 시행되는 청년 인구 증대 관련 정책은 새로운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저출생·초고령화는 당분간은 그 방향을 반전시킬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이를 수용하면서,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는, 즉 ‘사

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농촌 지역사회가 저출생·초고령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저출생·초고령화라는 심대한 변동 과정에서도 농촌 지역사회가 유지되도록 각종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자 출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출생·초고령화를 겪는 농촌 지역의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 영역과 관련하여 청년 정책의 요구를 새롭게 분석하고 '적응 관점'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저출생·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려한 일자리 관련 정책 요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그리고 농촌 청년과 마을 주민의 일자리 정책 수요를 파악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이들의 욕구에 맞는 농촌 청년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즉, '농촌 지역사회 유지'라는 관점에서 청년의 역할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 시간 범위: 2024년 기준
- 공간 범위: 충청남도
- 내용 범위: 농촌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사업 및 지역사회 활동
 -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 농촌 청년과 마을 주민의 정책 수요
- 농촌 청년 정책 공급현황 및 사례
- 농촌 청년 정책의 전환 방향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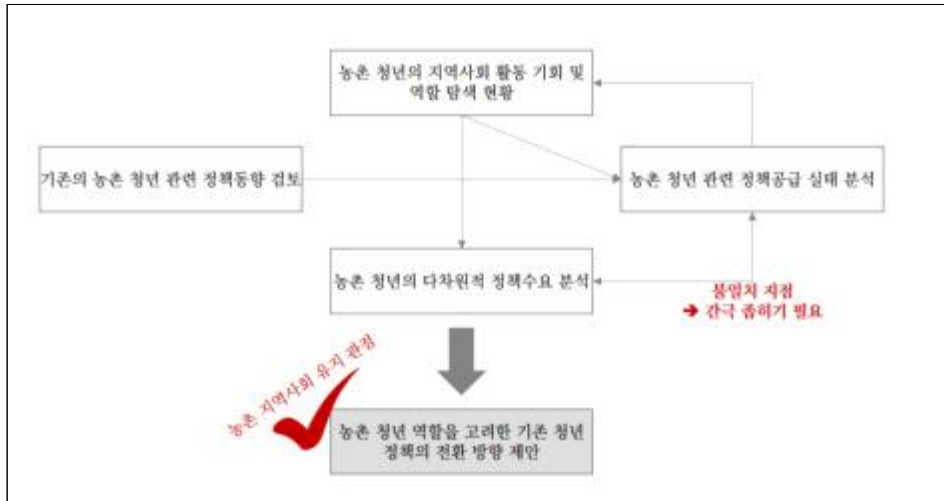
○ 연구 기간: 2024년 05월 28일 ~ 10월 24일(5개월)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행정 자료 수집, 선행 연구 고찰, 언론 검색, 국내외 사례 조사 등
- 현 장조사: 청년 및 마을 주민 현장 집담회, 인터뷰, 조사
- 전문가 면담 조사

4.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그룹별 현장 집담회 방식으로 조사 ◦ 질문: “농촌에 내려온 청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제3장 농촌 청년과 마을 주민의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그룹별 현장 집담회 방식으로 조사 ◦ 질문: “농촌에 내려온 청년은 지역에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왔는가? 마을 주민은 청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제4장 농촌 청년 정책 추진 현황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국내외 사례 조사, 언론 검색, 선행 연구 고찰, 행정 자료 수집, 그룹별 현장 집담회 방식으로 조사 ◦ 질문: “농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영역 정책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제5장 농촌 청년 정책의 전환 방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전문가 면담 조사 ◦ 질문: “향후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자료: 저자 작성.

5. 연구 추진 일정

〈표 1-1〉 연구의 추진일정

구분	일자	장소	주요 내용	참석자
연구 심의회	6. 3.(월)	충남연구원 회의실	착수연구심의회	기획경영실장, 내외부 연심위원, 용역발주기관 연구책임자(서면)
보고회	6. 5.(수)	KREI 회의실	착수보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 허○○)
전문가 면담	6.11.(화)	도그베리팜	천안시 청년 그룹 추천	박○○ 이사장(천안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문가 면담	6.17.(월)	공주시 베리베리팜	공주시 청년 그룹 추천	베리베리팜 임○○ 대표
전문가 면담	6.19.(수)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양군 청년 및 마을주민 추천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노○○, 이○○)
전문가 면담	6.19.(수)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예산군 청년 및 마을주민 추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이○○ 교수, 이△△ 팀장)
전문가 면담	6. 25.(화)	홍성군 장곡면 젊은협업농장	홍성군 청년 및 마을주민 추천	젊은 협업농장 정○○ 상임이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 사무국장
현장 집담회	7. 31.(수)	청양군 와유 2층 회의실	청양군 청년 그룹(1차)	청양군 청년 그룹 5명,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현장 집담회	8. 5.(월)	예산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	예산군 청년 그룹(1차)	예산군 청년 그룹 3명,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현장 집담회	8. 8.(목)	홍동면 마을활력소 1층 활력다방	홍성군 청년 그룹 (1차) : 홍동면	홍성군 홍동면 청년 그룹 4명
현장 집담회	8. 8.(목)	장곡면 함께하는 장곡협동조합	홍성군 청년 그룹 (1차) : 장곡면	홍성군 장곡면 청년 그룹 6명
현장 집담회	8. 20.(화)	청양군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2층 회의실	청양군 청년 그룹(2차)	청양군 청년 그룹 5명,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현장 집담회	8. 21.(수)	한국특산물유통 법인 사무실 예당다담길 카페	예산군 청년 그룹(2차)	예산군 청년 그룹 3명,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현장 집담회	8. 22.(목)	홍동면 마을활력소 1층 활력다방	홍성군 청년 그룹 (2차) : 홍동면	홍성군 홍동면 청년 그룹 4명
현장 집담회	8. 22.(목)	장곡면 함께하는 장곡협동조합	홍성군 청년 그룹 (2차) : 장곡면	홍성군 장곡면 청년 그룹 6명
현장 집담회	9.10.(화)	청양군 혁신플랫폼 와유 2층 회의실	청양군 마을주민 그룹(1차)	청양군 청년 그룹 5명,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현장 집담회	9. 11.(수)	예산군 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	청양군 마을주민 그룹(1차)	예산군 마을주민 그룹 3명,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보고회	10. 2.(수)	KREI 회의실	중간보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 허○○)
전문가 면담	10. 11.(금)	청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최종 사업구상 방안 자문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 센터장, 이○○ 주임, 젊은협업농장 정○○ 상임이사, 마을연구소 구○○ 소장
연구 심의회	10. 21.(월)	충남연구원 회의실	최종연구심의회	기획경영실장, 내외부 연심위원, 용역발주기관 연구책임자(서면)
보고회	10. 24.(목)	-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제출로 대체

자료: 저자 작성.

6. 조사 개요

6.1.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개요

■ 회의명: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목적: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활동 기회와 역할 탐색 과정, 정책 수요 파악
- 일시: 2024년 7월 31일 ~ 8월 8일
- 대상: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등 그룹별 5명 내외로 구성
- 조건: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청년, 농촌살이 경험이 처음인 청년, 성별 간 균형 있는 조합,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 이야기를 잘 풀어내 줄 수 있는 청년
- 방법: 그룹별 집중 인터뷰(2시간 이내)
- 내용:
 - 자기 소개, 집담회 개요 및 진행 순서 안내, 서로 인사 나누기, 나를 알리기
 - OO농촌지역으로 들어온 배경과 계기
 -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OO농촌지역 비교 시 장단점, 만족도
 - OO농촌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전반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할 거리(생계, 먹고사는 것)와 활동 거리
 - OO농촌지역에서 일할 거리(생계, 먹고사는 것)와 활동 거리 평가
 - 하고 싶은 일(개인 욕구, 개인 입장) vs 해야 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일(공적 요구, 공적 입장))

■ 회의명: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목적: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정책 수,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추진 실태
- 일시: 2024년 8월 20일~22일
- 대상: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등 그룹별 5명 내외 구성, 1차와 동일한 구성
- 조건: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 농촌살이 경험이 처음인 청년, 성별 간 균형 있는 조합,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 이야기를 잘 풀어내 줄 수 있는 청년
- 방법: 그룹별 집중 인터뷰(2시간 이내)
- 내용
 - (초입 단계) 기회 및 역할 탐색을 위하여 지역에 처음 와서 관계 맺은 사람, 기관, 조직
 - (관찰 단계) 청년이 바라본,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 (수요·욕구 단계)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에 내려온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
 - (정책 시행 단계)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의 추진 실태와 평가
 - (방향 설정 단계)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요와 공급 일치 여부 진단, 개선 방향
 - (마무리) 참여 소감 및 연구를 위한 제언

〈표 1-2〉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개요

연번	구분	이름	지역살이 연차	일정
1	청양군	김○○	청양살이 4년차	24.07.31.(수), 청양혁신플랫폼 와유 2층 회의실/1차 24.08.20.(화), 청양군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1층 사랑방/2차
2		정○○	청양살이 4년차	
3		강○○	청양살이 2년차	
4		박○○	청양살이 1년차	
5		서○○	청양살이 5년차	
	조력자	노○○ 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센터장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 주임
1	예산군	박○○	예산살이 2년차	24.08.05.(월), 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1차 24.08.21.(수), 한국특산물유통 법인 회의실/2차
3		박△△	예산살이 2년차	
4		박□□	예산살이 4년차	
	조력자	이○○ 이△△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교수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농촌재생지원팀 청년마을활동가팀 팀장
1	홍성군 홍동면	이○○	홍성살이 10년차	24.08.08.(목) 오전, 홍동 마을활력소 회의실/1차 24.08.22.(목) 오전, 홍동 마을활력소 회의실/2차
2		안○○	홍성살이 3년차	
3		나○○	홍성살이 5년차	
4		정○○	홍성살이 6년차	
	조력자	정○○ 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1	홍성군 장곡면	서○○	홍성살이 1년차	24.08.08.(목) 오후,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회의실/1차 24.08.22.(목) 오후,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회의실/2차
2		김○○	홍성살이 2년차	
3		박○○	홍성살이 2년차	
4		한○○	홍성살이 7년차	
5		신△△	홍성살이 2년차	
6		신○○	홍성살이 10년차	
	조력자	정○○ 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자료: 저자 작성.

6.2. 마을 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개요

■ 회의명: 마을 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목적: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과 정책 추진 실태 진단
- 일시: 2024년 9월 10일(청양군), 9월 11일(예산군)
- 대상: 청양군 및 예산군 마을 주민
- 조건: 청년 인구가 있는 마을 주민, 청년들과 경험의 공통분모가 있는 마을 주민, 종합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마을 주민, 이장
- 방법: 그룹별 집중 인터뷰(2시간 이내)
- 내용
 - 마을에 들어온 청년들과 주민들은 잘 지내나요? 서로 어떤가요? (융합되는 지점, 부딪혔던 점,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 등)
 -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온 청년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나요?
 -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일은 어떤 종류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저출생·고령화 농촌 마을에는 어떤 종류의 일거리가 필요한가요?
 - 이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만약 청년들이 마을에 있다면 의뢰하기 적합한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요? 어떤 주기로 필요한가요?
 - 일을 맡긴 청년에게 인건비라도 주면 좋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 마을 주민과 청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어떤 방식이면 좋을까요?

〈표 1-3〉 마을 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개요

연번	구분	이름	현재 하는 일	일정
1	청양군	한○○	청양군마을만들기협의회	24.09.10.(화), 청양군 혁신플랫폼 와유 2층 회의실/1차
2		노○○	(동일)	
3		김○○	(동일)	
4		방○○	(동일)	
5		노○○	(동일)	
	조력자	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센터장
		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 주임
1	예산군	장○○	귀촌인 기초거점 사무장	24.09.11.(수), 예산군 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1차
2		이○○	마을이장 농민	
3		임○○	목회자	
4			권역 사무장	
	조력자	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센터장
		이△△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농촌재생지원팀 청년마을활동가팀 팀장

자료: 저자 작성.

2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1. OO농촌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온 경로와 계기

청년들은 농촌으로 오게 된 주요 경로로서 친척, 친구, 활동가 등 지인으로부터의 권유, 스스로 경험하려는 의지(이러한 경우 주기적으로 특정지역과의 왕래 경험에 있는 자), 지역 내 중간 다리 역할 하는 곳과의 만남(예. 젊은협업농장, 행복농장,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협업단체 등), 대도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경험(예. 한 달 살아보기, 2-3주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체험) 등을 거론하였다.

청년들은 농촌으로 들어오는 계기와 관련해 뚜렷한 목표나 특별한 목적 없이 온 경우, 다소 충동적으로 온 경우, 도시에서 지친 삶·시스템·주거환경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농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내려온 경우(예. 여유로운 생활,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한번 경험해보자, 1년만 살아보자’하는 마음으로 내려온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라서 단기간 시골살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온 경우 등을 말하였다.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OO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를 주변 지인의 정보로 채우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직장 일을 하면서 농촌 마을에 사람들과의 정이 쌓이게 된 경우, 마을 주민과의 관계(이장)도 어렵지 않은 경우에 지역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지역 내 사람 관계가 지역 정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촉진하는 ‘연쇄적 경험의 구조’라 할 만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농촌에 와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이나 주민 조직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주민 및 주민 조직을 알아가는 경험이다. 둘째는, 최소 수준의 살림살이가 가능한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여타의 정주 여건이 청년 개인의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험이다. 셋째는, 앞의 두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단 정착해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경험이다. 넷째는, 정책사업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공·민간 부문 조직에 취업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공익재단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 조직에 취업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 경험을 통하여 농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경험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행의 정책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예로서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사업(충청남도),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행정안전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공공·민간 부문 조직에 취업하는 예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군 지역활성화 재단),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 지원 조직(사무국),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자치회 등이 있다. ③ 민간 부문의 공익재단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예로서 별의별 이주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허브), 지역 살아가기 체험(대산농촌재단, 희망제작소, 지역재단, 삼선재단 등) 같은 것이다. ④ 지역사회 조직에 취업하거나 활동에 참여 경험 예시로서 OO청년네트워크, OO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2. 원래 살던 지역과 OO농촌지역의 장단점 비교

청년들이 말하는 기존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장단점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참고). 도시 거주지는 편리함, 독립적 사생활 보호, 다양한 인프라 등이 장점이지만 반면 고용의 불안정성, 노동 및 주거 환경의 열악함 등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농촌 거주지는 자연환경, 낮은 밀도로 인해 덜 복잡함, 단순한 삶 등이 장점인 반면, 열악한 인프라와 일자리 기회 부족 등이 단점이라고 언급했다.

<표 2-1> 기존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장단점 비교

구분	기존 거주지(대전, 서울, 경기, 청주 등)	현재 거주지(청양, 예산, 홍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인프라 ◦편리한 대중교통 ◦다양한 편의 시설 ◦언제나 이용가능한 의료 시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 ◦개인 사생활 보호 가능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선택의 폭 다양 ◦임시적·일시적 노동 형태의 다양성 ◦안정적인 직장 구하기 쉬움 ◦일과 삶이 분리되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책임지는 삶 ◦주변에 가깝게 존재하는 인간관계 ◦단조로운 생활 ◦소비만 하는 생활, 원하는 것을 편하게 취득 가능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교통체증없는 도로 환경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이 삶에 대한 태도 변화로 연결(가족, 자신, 주변에 더 집중하는 시간 증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정, 주민들과 친한 관계 형성 (주민에게 의존하는 만큼 그 속에서 나의 기여 발견) ◦밀도가 낮아 쾌적한 주거 형태, 낮은 주거 비용 ◦만나는 인간관계의 다양성(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자리 존재 ◦낮은 업무 강도 ◦욕심을 내려 놓으면 할 것이 많이 보이는 일자리 ◦경력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존재, 선택의 기회 제공 ◦일과 생활의 균형 찾기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악한 노동조건(야근, 장시간 거리 출퇴근) ◦고용 불안정 ◦인구밀도가 높아 사람에게 치이는 삶 ◦높은 집값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선택지가 많아서 바쁜 삶 ◦소비 중심의 삶 ◦교통 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 대한 정보 부족, 빈집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 ◦각종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기초 서비스 시설 부족 ◦문화 및 여가 인프라 부족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발생 ◦일자리 선택 폭이 좁음 ◦다양한 노동조건 부족(임시, 일시 일자리 적음)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 습득 어려움 ◦일과 삶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직장과 주거 불일치 현상(직주분리)
만족도	평균 8점/10점 (17명 대답)	

자료: 저자 작성.

3. OO농촌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청년들이 말하는 농촌지역에서 기대했던 이상과 현실은 다음과 같다(〈표 2-2〉참고). 청년들이 기대했던 삶은 반농반X의 삶, 독립적이고 여유로운 삶, 자연을 즐기고 있는 삶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관심이 크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은 일과 삶의 구분 모호, 일자리가 부족하여 불안정한 삶, 보상이 제대로 없는 삶,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로 움직이는 삶이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처음부터 청년들이 마을에 있다는 상상 자체를 해보지 않아서 크게 기대하는 것은 없고 정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대답하였다.

〈표 2-2〉 농촌지역에서 기대했던 이상과 현실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실제 삶의 모습(현실)
(청년 그룹) ◦반농반X 삶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자연환경을 즐기는 삶 ◦생산적인 삶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삶 ◦일터와 삶터의 일치 ◦공동체적 삶, 관계성이 있는 삶 ◦크게 기대하지 않았음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 없음	(청년 그룹)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삶 ◦따라서 노동 시간과 범위는 도시보다 더 늘어난 삶 ◦계속해서 (주변의 부탁으로) 할 일들이 생겨나는 삶 ◦일에 비해 대우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삶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정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삶 ◦급여는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직업 안정성은 취약한 현실(정착하여 결혼까지 하여 산다는 상상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삶) ◦일자리 조건 때문 같이 일할 동료 찾기 힘든 현실 ◦내 욕구보다 주변의 요구나 부탁에 부응하는 삶 ◦지역 주민의 탓에, 관계성의 벽에 부딪히는 삶(지연, 혈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역사회)
(마을 주민 그룹) ◦애시당초 청년들이 없어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음 ◦기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정착하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갈등 없이, 분란 없이 지냈으면 하는 마음	(마을 주민 그룹) ◦먹고살기 바빠서 평일 낮 시간대에 같이할 여유가 없음에 대한 아쉬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은 부족한 편 ◦주말에 있는 마을 행사 참여 협조는 순조로운 편 ◦농사짓지 않는 청년이 대부분인 현실 ◦마을 주민과 스며들고자 노력하는 분위기 ◦주민과 교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이들 존재 ◦개인 일정, 개인 선호를 우선시하는 경향 ◦마을 주민과 청년들 간 활동 시간대가 같지 않아 만나기 어려움(주민은 낮 시간, 청년은 주말과 저녁 이후 시간에 활동)

자료: 저자 작성.

4.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계 거리와 활동 거리

청년들이 경험했거나 기대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생계 거리는 다음과 같다(〈표 2-3〉 참고). 과거에는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 직업에 종사했고, 현재는 거주하는 지역 특성과 자원에 ‘나’를 맞춰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래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과 ‘나’를 연결하는 일, 지역의 공적인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¹⁾.

〈표 2-3〉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계 거리

과거	현재	미래
◦ 다양한 분야의 직업(일반 회사, 중간 지원조직, 시민단체, NGO단체, 공무원 신분 등)	◦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연관된 창업(농축산업, 관광, 특산물 활용, 지역 콘텐츠 영상 제작, 디자인 등) ◦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 일(마을 돌봄, 마을 사무, 주민자치회 등) ◦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 동년배 활동가와 네트워크 관련 일(공방, 플리마켓 운영 등) ◦ 지역 내 공적 업무 수행하는 곳(중간 지원조직, 공모사업 사무국, 사회적협동조합)	◦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사람,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창업(관광, 특산물 활용한 제품 개발, 영상 제작, 청년마을 조성 등) ◦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 일(마을 돌봄, 마을 사무, 주민 건강,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일 등) ◦ 현재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 NGO 단체 일 ◦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일을 지속하거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 구상(미래가 불안하여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 미래를 생각하기에 현재 상태가 녹록지 않다는 점)
개인 역량, 개인 관심에 초점	‘지역’을 고려함	‘지역’과 ‘사람’을 고려함

주: 생계 거리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직업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청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활동 거리는 다음과 같다(〈표 2-4〉 참고). 과거에는 소비 위주의 활동, 취미 활동, 종교 활동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대답하였다. 현재는 농촌 여건상 쉽지 않은 취미 생활, 소규모 모임 등에 참여한다고 대답하였

1) 현장 집담회 중 회차를 거듭할수록 청년의 생각이 바뀌거나 정리되었을 수 있다.

다. 미래에는 지역 내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 활동에 참여하거나, 먼
저 자리를 잡은 만큼 도시청년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표 2-4〉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활동 거리

과거	현재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위주의 활동(문화, 오락, 스포츠, 여행, 여가 등) ◦취미 생활 ◦자기계발 ◦종교 생활 ◦공동체 생활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건상 취미 생활 쉽지 않음 ◦지역 내 소규모 모임,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독서, 걷기, 막거리 만들기, 비누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 공유 텃밭) ◦지역 내 공적 모임 참여(주민자치회, 공동체 활동, 장터 참여) ◦일할 거리와 활동 거리 경계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사람들과 무언가를 같이 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지역 내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모임, 단체나 조직 만드는 활동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을 알려 주는 활동(관광, 교육, 체험, 로컬그리에이터 등)
개인 역량, 개인 관심에 초점	'지역'을 고려함	'지역'과 '사람'을 고려함

주: 활동 거리는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 외에 자신의 능력이나 관심 사항과 관련한, 또 다른 활동 영역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3

농촌 청년과 마을 주민의 정책 수요 현황

1.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이 개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청년마다 각자 살아온 경험 이 달라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과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이 100%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이 ‘지역에서 필요한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과는 더욱 일치하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으로 표현해 보면, “능력≠욕구≠필요 (나의 능력과 욕구는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역에서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능력과 생계 영역을 맞춰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만의 능력·특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적 영역이나 지역사회 영역에서 필요한 활동과 일치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 전공과 직장 생활에서 했던 일(디자인, 경영, 회계, 홍보 영상, 예술) ◦기획 및 행정 ◦조직에서 단순 반복하는 일 ◦글쓰기, 특기 살리는 일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듣는 일 ◦공동체, 시민사회 등 가치 있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공공기관 취업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 ◦반농반X의 삶(농업 포함) ◦대안적인 방식의 소규모 농업 ◦지역을 알리는 일(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문화, 예술, 자연체험, 스테이, 홍보 등) ◦마을 주민이 행복해하고 필요로 하는 일(마을 공동체나 축제, 마을 평화화를 위한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및 행정 등 현장 지원 업무 ◦마을 사무장, 마을 공동체 일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자치회 일 ◦마을 주민을 돌보는 일, 인프라 관리 ◦사회적 농업 일 ◦마을 환경 관리 ◦농업 부가가치 창출 활동 ◦시민사회 일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돕는 일 ◦지역 내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개인 역량, 개인 관심에 초점	'지역'을 고려함	'지역'과 '사람'을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예시(개인적 입장을 고려하여,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 -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 실천 - 중간지원조직 역할(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등) - 지역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기(현장 업무 등) - 기획 및 행정 업무 - 마을의 젊은 인력이 해야 할 소소한 일거리 참여(마을 수로 정비, 제조작업 등) - 마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을 사무장(퍼머컬처, 코디네이터) - 어떤 일이든 조직이나 마을 대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역할 - 공동주거, 주택단지 확대 - 마을 주민이 원하는 의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일 - 시민사회단체 일 - 지역의 시간과 일을 늘리고 싶음(반장 역할, 연락처, 임원회의 참여) - 농산물 유통 및 가공(농민과 역할 분담, 1차, 2차, 3차 농업을 나누어 정책화) -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관련 내용으로 조직화, 사업화) -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돌봄 활동을 주고받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 - 농업환경지역의 용지 관리, 환경 관리를 하는 사람 확보 및 지원 - 노인 화관 리모델링 및 활용(공간의 제대로 된 활용 지원) - 돌봄 마을 안에 있는 집 관리 - 마을 주민 대상으로 겨울 어묵 장사 - 사회적 농업 -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농업,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일 		

자료: 저자 작성.

이 같은 불일치는 관련 정책이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중요한 공백을 드러낸다. 농촌에서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의 능력이나 특기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거리와 연관지어 일자리 확보의 가능성

을 탐색하도록 안내하는 정책이 없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물론, 농촌 지역사회에서 누군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활동, 즉 일거리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형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정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 밖에도 청년들의 내면에는, 안정적인 일자리(4대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농촌 현실에서 눈앞에 제시되는 일자리 또는 일거리는 불안정한 임시 혹은 일용 일자리 또는 자원활동이라는 ‘불일치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2. OO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

개인의 입장을 떠나 공적(公的)인 일, 즉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거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청년은 별로 없었다.²⁾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에 관해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야 대답할 수 있었다. 자신의 특기, 능력, 욕구를 지역의 필요와 연결하는 것은 평소에 자주 하지 않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청년들은 <표 3-2>와 같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것 같은, 할 수 밖에 없는 일’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다. 식으로 표현해 보면, “능력≠욕구<필요(나의 능력과 욕구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선 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능력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2) 이 같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 현장에서는 연구진이 청년들에게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거리’ 목록을 제시하였다. 집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의 생각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정섭·마상진 외(2024)에 제시된 초점집단토론 내용을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노인 돌봄, 일상생활 소비재 및 서비스(상점, 음식점, 이미용실 등) 접근 지원, 집안 잡화 수리(물건 수리, 기계 수리, 주택 수리 등), 교통, 환경·경관(빈집, 마을 경관, 쓰레기 등) 관리, 읍면 지역사회 조직 활동, 마을 활동, 행정(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공공행정서비스) 실행 지원, 학교 교육 관련 활동, 보육 관련 활동, 문화여가 관련 활동, 관광, 마을 일 기록, 농업, 농업 연관 산업, 주거 및 정주, 치안, 소방, 재난 안전 등과 같은 것이다.”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해서도 청년들은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에게 마을 혹은 농촌 지역사회에 관해 알아가는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우선 작은 단위에서 작은 경험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면, 마을 활동, 돌봄 활동, 농업 인력 지원 활동,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이 그것이다.

〈표 3-2〉 OO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

OO농촌지역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일(=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일)
<p>(주요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 일원으로서 교류 활동에 참여(인구 유입, 청년 유입, 마을 정착 일 도움) ◦마을 활동(마을 가꾸기, 마을 청소, 마을 행사 참여, 마을 행정 지원/이장 비서, 마을 어르신 돌봄/복지 관련 일 등) ◦농업 인력 지원 활동(계절노동, 제초 작업 등) ◦행정에서 하는 일 협조 및 코디네이터 ◦그 외 행사 참여, 프로그램 참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 <p>(역할 및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입되는 청년에게 마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역할 부여 ◦일을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 ◦정책의 홍수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정책 지원사업 실시 ◦당연하게 요구를 받는 경우 많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음. <hr/> <p>◦세부 예시(공직 입장을 고려하여,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교류(네트워킹) - 마을 행사 참석 - 관광 활성화 - 기획 및 행정 지원 - 행정적 코디네이터(객관적으로 필요한 일을 추려내고 조정, 중계(행정이나 주민들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과 지역에 필요한 일 구분하지 못함)) - 지역 농산물 판매 대행(유통업) - 제 초작업, 못자리할 인력(계절 노동) - 중간지원조직에서 업무 수행할 인력, 참여인력,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 - 지역 내 토종씨앗박물관(장애인과 텃밭 가꾸기), 지역돌봄센터(제초, 그림그리기) 운영 지원 - 이웃복지사처럼 마을 공동체를 돌보는 것(마을 속에서 이웃의 상태를 체크하고 돌보는 것) - 마을을 알고, 마을 주민들의 시설을 고치는 돌봄의 일자리 - 요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어르신을 공동으로 돌보는 것 - 마을별로 조사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마을 이장 혼자가 아닌 체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마을 단체 기구를 만드는 것 - 마을 실무조직 명칭과 구성 변경 지원,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지원 - 간단한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마을 일 돕기: 필요하지만 대가로 환산이 안 되는 일(예. 마을축제 포스터 만들기) - 고령화된 이장들의 권역별 사무국 업무 - 마을 이장의 행정 사무 보조. 마을 사무국장, 마을이장 비서 역할 - 마을 가꾸는 일(제초, 쓰레기 줍기, 가꾸기) <hr/>

자료:저자 작성.

3. 청년과 마을주민이 바라본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3.1.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결과

첫째, 농촌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계약직 일자리라도 있어야 청년 유입이 가능한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조공장에 취직할 수 있는 생산직 일자리가 많은데 본인 학력이나 부모의 인식 때문에 생산직 취직을 꺼리게 된다고도 하였다. 반면, 행정직이나 사무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보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역 인맥을 통해 채용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청년에게는 무엇인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는 만족하지만 보수 수준이 맞지 않아 농촌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부정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도 있었다. 예를 들면, 마을에 설립된 OO 사회적협동조합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고 있어서 급여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마저도 1:7 경쟁률을 보일만큼 일자리가 부족하여 많은 지원자가 몰리기도 한다.

반면, 본인 스스로 창업을 결심하여 일을 추진하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경우에는 반응의 결이 사뭇 달랐다. 예를 들면, ‘청양고추빵’은 엄청난 기술은 아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하고 상품을 개발한 이후에도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개발 노력 중이라고 하였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도 가지고 일한다고 하였다.

무엇을 하려는 의지나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임시방편으로라도 농촌지역에 유입과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하였다.

둘째, 농촌 지역사회의 ‘일할 거리’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기대수준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었다. 즉, 하는 일의 양 대비 보수 수준에 괴리가 있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회계사무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마을 관련한 일은 많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보수가 적거나 비자발적 봉사를 강요받게 되는데 그러한 일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금전 보상을 받고 하는 일과 금전 보상은 받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들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과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 점은 도시와 다른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청년들도 마을로부터 어떤 일을 했을 때 돈을 받지 않고 추가로 할 여력은 있지만 이들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청년들이 받아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의 ‘주거를 포함한 정주’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읍면 간 고른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개별 주거 환경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일자리 여건과 정주 여건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주거 여건 개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 안정적인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가임기(19세~42세) 여성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주할 만한 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주와 관련하여 읍내, OO신도시 중심의 개발에서 면 단위 중심의 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별 주거 환경 관련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인 집안 환기·주거환경·생활환경 청소 등 주택관리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 지원 서비스, 냉장고 등 가전제품 내부 정리서비스, 쓰레기를 마을 내 수거장까지

가져다 놓는 것을 포함하여 쓰레기 정리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년들을 주거여건 개선과 마을주민 돌봄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농촌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새로운 청년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부터 출신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농촌지역에 남아있는 유아동, 청소년이 학업 문제로 지역을 잠시 떠날 수 있어도 사회인으로 다시 지역으로 유입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형성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살아갈 청소년(지역 출신)을 배제한 정책 및 사회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농촌 지역사회 유지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된 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마을 교육과 마을 보육에 관심을 두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OO시군에 주소지를 둔 고등학생이지만 재학 중인 고등학교 소재지가 OO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의 진학결과는 입시자료에 계속해서 OO출신이라고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시군 고등학생 지원정책에서 배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 청소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등 시군 소재 학교 재학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세 이후 진로 설정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OO군 청년 혹은 청소년의 특징은 광역시보다 치열한 경쟁이 없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서 이들에게 정책 배려나 관심이 소홀하다고 느꼈다.

다섯째, 농촌 지역사회의 ‘농업’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여전히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였다.

농사지를 염두가 나지 않지만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농촌은 1차 산업인 농업이 건강해야 지역 내 다른

업종이 같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농산물 생산활동 자체가 없어지면 농촌 지역경제가 붕괴할 것이고 농촌마을 공동체를 지속하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 농사를 통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농업이 농민의 주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농사의 공동노동이 없어졌기에 농촌에서 개인들이 파편화되었다고 보았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지만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 상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차원의 의도적인 공동작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농사는 투입시간, 비용,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 수익은 낮지만 소규모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OO농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한해 농사를 운영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청년, 농축산물 가공하는 일(원유를 요구르트 형태로 가공)도 지역 주민 10여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서 뿌듯하다는 청년, 최대한 지역 농산물을 쓰고자 하지만 재료 단가 맞추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청년, 못자리 시기에 일손 부족한 것을 도와주면서 마을주민들과 인사하고 안면을 트게 된 계기가 된 만큼 농사가 주민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등이 있었다.

여섯째, 농촌 지역사회의 ‘관광’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관광자원을 관계인구나 고향출신 인구 등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활동들이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지속가능한 미래 즐길거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OO지역만의 관광 투어 콘텐츠 개발하여 관광인구,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 환경을 활용한 관광 아이템 발굴도 고민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관광자원이 지금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 타지역으로 출타한 고향출신의 청년이 고향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관광 일거리가 가장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모델인데 로컬투어를 통해서 1인 인건비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여 적극적으로 기획·홍보하게 된 사례, 처음에는 막연하게 로컬투어·지역살이 전문 여행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다보니 마을에 필요한 일들이 점차 보이게 되는 사례,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아보게 되는 사례도 생겼다고 하였다.

일곱째, 농촌 지역사회의 ‘홍보와 정보전달’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마을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중요하므로 각종 정보 알림 수단의 다양화, 그 외에도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정보 전달 체계는 마을이장을 통해 마을주민에게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구조인데 마을 고령자들에게 정보전달이 어렵고, 마을이장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방송국 설립 구상이 시작된 사례도 소개해 주었다.

예를 들면, OO군 △△리 마을에서는 64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비중이 가장 많은데 이들 특징이 농작업을 하면서 라디오 청취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선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이 마을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단체대화방에 공문을 올리고 풀어서 설명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조그만 스튜디오(가칭 마을방송국)를 만들어서 친구와 팟캐스트 “떠든사람”을 운영 중이다. 1~2주에 1회씩 방송하는데 이를 통해서 마을소식, 마을 농산물 홍보, OO군 소식 등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을방송국 사업은 초기 비용(최소한의 장비와 최소한의 공간)이 적기에 큰 부담없이 시작 가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사회적혁신센터 임팩트메이커로 선정되었고, ‘로컬은 콩밭’ 동아리 지원사업(150만 원)에도 선정되어서 지원금액으로 △△리 마을 구 노인회관(유희시설)을 저렴한 값에 임차비를 지원받고(15만 원/월), 방송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마이크 3대). 단, 마을방송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고 재능기부로 운영 중이다. 추후 광고를 받거나 성

장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이라 생각하였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지원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수익성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템 발굴하여 창작극, 대관업, 로컬투어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방송 같은 사업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덟째, 농촌 지역사회의 ‘교통’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불편한 교통으로 인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도 이동의 자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마을 어르신들은 교통수단 자체가 부족하고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므로 이들로부터 가장 많이 부탁받는 일은 특정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이다. 청년이나 어르신 모두에게 농촌지역에서는 차가 없으면 목적지를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는 문제, 공유차량 이용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 자동차 구입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문제, 지방 물가가 저렴하지 않아서 차량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게 많은데 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하고, 읍내에 식료품이나 생필품과 같은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대부분 존재하기에 이동 접근성이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홉째, 농촌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읍면별 불균형한 분포로 인하여 면 단위는 일상적인 소비생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편의시설이 대부분 읍내에만 있어서 동일 시군 내에서도 읍면별 발전 격차가 존재하였다. 일상적 생활 소비(음식점, 미용실 등), 정주환경 유지를 위한 수리 서비스 외에도 치안과 소방, 재난안전 부분은 마을이 돌아가는 데 필수적 이지만 면 단위에는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면 단위로 생필품 배달서비스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째, 농촌 지역사회의 ‘의료 및 돌봄’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병원 등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상호 돌봄관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을 자립에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활동, 어르신 케어(돌봄) 부분을 종합세트 방식의 사업이 아닌 마을의 역량과 준비 정도, 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의료 여건에서는 농촌지역은 가뜰이나 병원 및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편인데 병원에 가려면 최소한 30분~40분 이동이 필요할 만큼 멀리 있거나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부재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보청기 배치 및 대여 서비스와 같은 일도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OO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착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돌봄 여건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다면 공익사업과 연결이 가능한데 농촌 지역은 마을이장 혼자 어르신 돌봄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돌봄도 평등한 관계라고 여기고 친구 관계의 돌봄이나 서로를 돌보는 관계 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봤다. 질병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돌봄도 지속가능한 일이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그 일이 어르신들과 같이 취미활동만 하는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상대방과 나에게 모두 의미가 있을 때 여야만 지속가능한 일이라고 직시하였다.

청년 그룹과 현장 집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서 완전한 돌봄(케어)의 영역에 대한 생각은 빠져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놀랐다고 하였다. 그만큼 아직 농촌 지역사회 내 돌봄 영역에서 청년과 점점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마을 내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희망을 본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OO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운계란과 같은 건강 먹거리 꾸러미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지속적인 만남과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도 깊은 관찰이 가능함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열하나째, 농촌 지역사회의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풀베기, 쓰레기 치우기 등 마을환경과 경관관리 수준에 따라서 마을 내 봉사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정도로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경관관리는 모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도시에서는 행정이 하는 일을 농촌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마을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수록 농업의 지속성과도 연계되는 마을 환경관리나 마을 경관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농민과 농촌을 위한 환경보존활동은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농촌환경을 보존하는 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는 청년이든 원주민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둘째, 농촌 지역사회의 ‘유희공간관리’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모이는 공동의 공간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년의 경우, 노후 생활에 대비한 대안적 공간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구상, 먼 단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셋째, 농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나 조직’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도시에서만함 같이 할 사람과 조직이 부족하므로 그럴수록 지역 내에서 공동으로 기획해서 활동하는 그룹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의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얘기할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결이 맞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어떤 공간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현실, 서울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사를 담은 네트워크·커뮤니티·친구가 부족한 현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지만 청년 포대를 만날 기회가 없는 현실,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에게 지역의 활동편

의시설·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하는 업무도 이제는 읍면 사무소가 아닌 점차 주민 자치회로 연결하는 현실 속에서 농촌 지역사회 관계망이 촘촘한 곳에 새롭게 유입된 청년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수록 청년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점조직이 많아지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활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기획해서 같이 활동하는 S/W 사업(그림그리기 활동, 하모니카 같은 악기 배우기 활동 등), 협동조합이 하는 H/W 사업(집수리 지원사업, 공원짓기 등)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열넷째, 농촌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활동’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마을주민의 건강관리·영양관리·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방소멸 문제에 마주친 현재, 농촌에 청년 존재 자체만으로도 작은 마을이 유지되고 있음에 의의를 두고 공공성 측면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준비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마을주민 건강(영양)관리 차원에서 사람들이 어떤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사람의 유입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을이장의 참여의지는 물론 마을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예를 들면, 무료한 고령자를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그림그리기 활동 등), 마을프로그램도 강사의 질에 따라 마을주민 참여도가 달라지는데 사업참여(기초거점사업 완료지구,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전달 사업 등)가 쉽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에 대한 대가나 보상 필요한데 청년에게 수당만이 아닌 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큰 행사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식사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 많지만 부녀회 부재로 마을

식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마을 식사 관련 일거리도 공적으로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공익직불금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밥상은 독거노인 영양관리 차원, 마을주민 간 관계 형성 차원,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하나 행정에서는 원치 않는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이 있으나 행정에서 집행되는 방식이 마을의 방식과 맞지 않다.

열다섯째, 농촌 지역사회의 ‘그 외 기타’ 여건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지역주민 텃새에 대한 인식 등 농촌 지역사회 분위기 전환,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향한 마을주민의 수용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마을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청년이 지역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으로 예를 들면, 사업의 목표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개인별 사업을 지원받다 보면 마을주민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는 것, 청년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원주민의 문화, 세대 간 인식 차이, 문제를 이야기할 공론장 부재, 쉽게 어울리거나 목소리 내기 힘든 의사결정 구조, 나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권한이 없는 구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등으로 꼽았다. 실제 농촌에 내려와서 잘할 수 있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주민 텃새로 인하여 버티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몇몇 지인들 덕분에 지역에 남는 현실이라고 하였다.

새롭게 유입된 청년을 대하는 농촌주민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마을의 돈(급여)을 받는 순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확보된 중장년층·퇴직세대를 총무 등으로 활용하면서 마을주민은 돈을 주는 주체(갑)의 위치가 되고 돈을 받는 주체(을)를 향하여 무시하는 경향, 청년이 남게 되든 떠나게 되든 청년 정책이 농촌에 기여되는 바가 미미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농촌 지역사회 내에서 존중받는 태도 변화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할 때 보람은 있지만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 만큼 보상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나의 욕구와 주민의 욕구 간 결합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전히 외지인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서로 결합하여 무언가 일을 해도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는 현실이라고 하였다.

청년의 마을 유입이 마을주민과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마을 활력에 기여하는 활동과 같이 금전적 조건, 경제적 요소 외에 농촌에 남아있을 만한 이유가 필요한데 내가 사는 곳을 고향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농촌 지역사회도 그만큼 성장과 안정적인 터전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청년의 악기연주회, 마을 기름칠 같은 단순한 놀거리, 일거리를 해주는 것 자체로도 소소하지만 마을주민에게는 활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3.2.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결과³⁾

첫째, 마을주민들이 전하는 농촌 마을주민과 청년 간 전반적인 분위기와 여건, 잘 지냈던 사례와 잘 지내지 못했던 사례 등은 다음과 같았다.

일부는 주말을 이용하여 마을행사에 참여하고 순조롭게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마을주민과 청년 간 교류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마을주민은 주로 낮 시간대에 활동, 청년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는 직장을 다니므로 주말과 저녁 이후 시간대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청년과 마을주민 간 활발한 교류가 어렵고 관계 맺기가 부족해져서 함께 할 여유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3) 현장 집담회를 하면서 청년 연령에 대하여 연구진과 마을주민 간 인식 차이, 접근 연령대 기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권 청년 나이는 19세~45세인데 실제 농촌 청년의 나이를 50대~60대로 보고 있어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혼란을 겪었다.

유입된 청년들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서 마을주민과의 융합 정도도 달라지는데 잘 지낸다고 보는 사례로는 ‘마을 체육대회나 마을행사 등에 잘 참여하는 사람, 마을 일에 잘 협조하는 사람, 60세까지 청년으로 인식하고 적극 활동 중인 사람, 농사짓는 청년이 마을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서로 바쁘기에 마을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등’이라고 하였다. 특히 청년과 지내는 데 있어서 마을 문화가 중요한데 좋은 사례로서 ‘마을주민텃세나 불편한 점이 없이 지내는 마을, 000리는 마을 청년회를 운영 중인데 기금 1천만 원을 적립하고 설 명절과 추석 명절마다 청년회의를 개최하는 마을 등’이라고 하였다.

반면, 잘 지내지 못했던 사례로는 ‘한 사람의 변화가 다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중간교량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융합되기 어렵겠다고 보이는 사람, 돈에 치중되어 농사일 일하느라 바빠서 주민과의 소통을 최소화하는 사람, 50대~60대 청년회와 노인회가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오히려 19세~45세 청년에게 마을 청년회 가입과 활동을 말 붙이기에 선불리 다가가기 힘든 사람, 직장 생활로 인해 소통 기회가 적은 사람, 귀향했는데 과거처럼 이웃 간에 왕래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서 소통이 부재해진 사람,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기 등 살가운 부분이 없는 사람, 청년 또래가 없어 마을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거나 마을 공동체 활동에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하는 사람, 도시 정서와 농촌 정서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촌에 내려와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 마을주민들과 교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면서 개인일정이나 개인선호를 우선 하는 사람, 이웃에 양해 없이 집 둘레에 전체 펜스를 치면서 마을공동체 개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등’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마을 내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봤다.

둘째, 농촌 지역사회의 ‘일할 거리’ 여건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어떤 목적으로 농촌에 내려왔는가에 따라 마을주민과의 관계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일할 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어떻게든 마을에 스며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인정받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마을

주민은 그런 사람에게 일할 거리를 권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에 살러 온 청년(귀향, 귀촌)의 경우는 때로 주민과 세대 간 갈등이 있긴 하지만 마을주민과 소통을 잘하는 편이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하였다. 반면, 조기 은퇴 후 휴양하러 온 청년(귀향, 귀촌)의 경우는 마을주민과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고 그들만의 리그 생활을 한다. 일은 하고 싶지만 마을주민과 엮이고 싶지 않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의 ‘농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 여건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농사일부터 마을일까지 모두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 교류가 뜸해서 마을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장 집담회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만 봐도 연고없이 들어오는 청년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30대 이하 청년이 정착하는 모습을 경험하지 못해 할말이 없다고도 하였다.

예를 들면, 마을 내 논갈이나 밭갈이를 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 마을주민 공동행사 자체가 드물어져 가고 있다는 점,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마을주민과 청년들 간 교류 자체가 불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을주민 중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청년들은 거의 농사짓지 않고, 농사짓는 청년이 일부 있더라도 실제 거주는 시내(읍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주민들과의 교류가 잦지 않다고 하였다. 간혹 농사하러 들어온 청년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농지를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청년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기계를 통해 편하게 농사하러 한다는 아쉬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넷째, 농촌마을에 유입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스스

로 진단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마음들을 엿보았더니 ‘청년회(50-60세) 인원 20여명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계기가 되어 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청년들과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귀농인과 원주민 간 구분이 없어졌고 이들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점, 바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정착하고 안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등’이 있었다.

반면, 우려하는 마음들을 엿보았더니 ‘세대 갈등과 세대 차이로 인해 청년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점, 청년들의 수동적인 참여로 융화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로확장 사업 시 사유지에 대한 협조나 배려가 부재하여 또다른 마을주민 간 갈등 요소가 된다는 점, 청년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기계화를 통해 편하게 농사하려 해서 아쉽다는 점 등’이 있었다.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들을 엿보았더니 ‘마을주민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이 우선이다 보니 개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하는 부분에 서운함을 느끼는 마음, 삶의 패턴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있으므로 청년들이 최소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이많은 어른들이 받아주는 쪽이므로 이해와 시각 확장이 필요하다는 마음 등’이 있었다.

4. 청년과 마을주민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 수요 및 조건

4.1.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결과

첫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일자리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임금 수준이 일자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임금 조건은 최소 월 250만 원 내외, 근무일수 조건은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주말 근무 시 추가 휴일근무수당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 유동적 시간분배이나 시간조절도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어리니까, 건강하니까, 능력이 되니까”라는 이유로 낮은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활동시간 외 잔업을 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낮은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거리(영상, 잡지 디자인, 교육 등) 요구는 계속 들어 오지만 임금 수준이 맞질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둘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일할 거리’ 수요와 조건은 최소한의 생계수준만 된다면, 그리고 청년이 하고자 하는 일과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 사이에서 일치만 된다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귀농귀촌 청년 등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대상자에게 마을의 일거리나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창업하려는 청년에게 사업설명이나 멘토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해 보는 것을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하는 조건은 주 5일제가 아닌 부담없는 선에서 시간제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주 2~3일 정도 근무의 반상근 근무형태, 4시간 가량의 반일제 근무형태로 일한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겸업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선호하므로 일반적인 '9시 출근 - 6시 퇴근'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인 1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임금과 주 5일제, 4대 보험 조건인 경우라도 돈을 받는 일만이 전부가 아닌 마을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농촌 현실 상 고수입 직장을 원한다면 농촌을 떠나야 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새로운 일을 고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하나 지역에서도 돈을 받지 않아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 찾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일할 거리가 금전적 소득이 되지 않지만 농촌 지역사회에서 삶과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기획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마을주민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의 결과는 결국 나와 연결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지역에 기여할 때 지역사회의 자원과 권한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일과 지역의 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OO마을센터에 할 일이 생겨서 봉사할 때 그 마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나의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내어 마을센터 일에 참여하는 태도, 내가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면서 당장 수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돌고 돌아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내 주변에게 도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효능감이 있었다. 결국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 농촌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마을의 공동체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변화’되었다고 보았고 고령화로 변화하는 마을에 젊은 사람으로서 에너지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당한 조건에 일할 곳만 있으면 일하는 환경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너무 많은 지원은 필요 없다고 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합당한 일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마을 일을 하는 것 외의 수익이 발생해야 마을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외부 수익이 확보될 때 마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 당장 돈

이 되지 않더라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고, 먼저 경험을 했거나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조력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임금과 근로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두터운 선배 세대,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크고 작은 일을 맡기려 할 때 청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지역 내 평판으로 일감이 끊기게 될까 거절하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중간에서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중재해 주는 어른, 조직의 존재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주거를 포함한 정주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정착을 위해서 안전하고 적절한 거주 기반, 주거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하면서 적절한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거주 지원 및 임대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역 정착을 고민하는 20대 중후반 청년에게 한 가구 내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가 아니라 공용공간 외에 주거환경이 분리된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촌에 살면서 집을 구하는 방법, 빈집 정보, 생활비 관리 등 혼자 살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농업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로컬푸드 영역의 일, 가공과 유통 영역의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산물 판매 영역은 유통업체 MD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농촌지역은 소농 구조의 농업생산 중심이어서 규모·규격·품질을 중시하는 거래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이런 지점에서 창업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무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대형유통업체 납품을 연결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능력과 친화

력을 활용하여 로컬생산자회에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일, 로컬푸드 사업을 지역 꾸러미에 연결하는 일, 농업인 사무장 역할 수행을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대신 작성, 지원사업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관광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관광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외지인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먼저 지역에 자리잡은 청년들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 중 농촌의 삶에 관심있는 청년에게 마을 소개나 투어를 제공하는 일, 외지에서 온 또래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바로 정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차 지역을 알게가게 해서 언젠가 정착하도록 과정을 돕는 일,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원도심 로컬사업·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행홍보 콘텐츠를 구상하는 일, 사회적 창업여행 플랫폼이라는 곳에 여행상품 테스트하면서 알리는 일,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보고 로컬투어에서 리빙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지역인을 섭외하는 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살이와 유학 등 간접체험을 통해 청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등을 함으로써 지역자원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섯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홍보와 정보전달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과 지역홍보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일, 디자인하고 기록화하는 일, 마을방송하는 일, 정보를 전달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디자인 및 SNS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중장년층부터 노년층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나 마을들이 온라인 홍보나 SNS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온라인에 사업체나 마을을 홍보하는 일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마을조사단을 구성하여 마을 어르신들을 영상장치로 기록하는 일, 중간지원조직 등의 사업 과정을 찍어주는 아카이빙

영상 제작(영상물은 교구로 활용), 충주맨처럼 적은 돈으로 지자체를 홍보하는 영상 제작, 지자체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판매인 라이브 커머스를 기록하고 영상으로 제작, 사계절이 나오는 청정자원을 다큐멘터리로 영상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송 능력을 바탕으로 유희시설로 방치된 노인회관을 방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방송(팟캐스트) 실현하는 일, 집 앞을 지나다니는 마을 할머니와 마을이장을 통해 마을소식을 수집하는 일, 마을 인근의 생활권 범위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소식을 전하는 일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글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마을을 소개하는 콘텐츠 및 잡지 제작, 마을의 내용이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글쓰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일곱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관련 일 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주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런 것을 유도해 내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 원주민과의 관계가 어려워 다른 마을로 유입하거나 정착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청양군의 ‘어쩌다로컬’은 한달살이를 주최하여 농촌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데 마을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외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일거리를 외부 청년들을 활용해서 해결하기도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마을 일거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고령자에게 문화 및 여가는 이동의 자유 제약, 교통접근성 부족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되는 구조인데 청년 프리랜서 및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서 실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역 내 산업 유치보다 청년이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문화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하고 문화 형성이 곧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생각 전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덟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의료 및 돌봄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주민 케어, 복지전달 체계 관리, 사회적농업 농장 연결, 개별상담 일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복지분야 전달체계 중요성은 마을이장 의지와 판단이 각기 다르기에 사례 관리가 필요하지만 청년들 재능과 자격증을 활용하여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개별 욕구들이 있는데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 조직을 만들어 사람 관리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마을주민들을 개별 케어하는 일, 마을주민 대상의 강좌나 프로그램 강사,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어린이 돌보기 등 보육 관련 일,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유사한 일 도움 가능,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OO농장에 오면 연결된 다른 사회적 농장과 연계하고 중개하는 일, 부녀회를 제외하면 먹거리 문제를 담당할 중간인력(조직)이 없는 현실에서 요리능력으로 도움줄 수 있는 일, 이주여성 문제·자녀문제·배우자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일, 가정폭력이나 알콜중독 문제를 상담해 주는 일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홉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유희공간관리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청년일수록 또래들과 어울리는 공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공간,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업무용 사무실 공간, 숙박용 공간, 세미나 및 회의용 공간 등), 프리랜서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쉼어오피스 또는 당진 청년나래타운과 같은 공유공간,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농촌 지역사회에 맞게 독립을 터득하는 방법 알려주는 공간, 지역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공간 등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축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사무실과 협업하여 마을길 조성사업에

기여하는 일, 마을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채우는 일,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관리·유지·보수하는 일을 청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식도 좋다고 보았다.

열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의 각종 행정사무, 보조사업 신청업무 등 마을이장을 보조하는 일, 마을사무장과 같은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어르신들을 가르쳐서 마을사무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이미 컴퓨터 사용 능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에 마을사무장 역할을 맡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을이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 각종 기획안 작성 및 정산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외 마을의 코디네이터 일, 마을 행정일, 마을 돌봄서비스 배치업무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최근 보조사업 행정 절차가 많고 복잡해서 실질적인 마을사무장 업무를 못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행정 담당자의 니즈에 맞추다보니 업무 숙달보다는 담당자에게 맞추는 업무만을 하게 되는 한계도 있다고 하였다.

4.2.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결과

첫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지자체 주도로 청년과 마을주민들이 융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마을단위별(공동집단별) 청년육성,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수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원사업을 개별단위로 지원하면 사업종료 후 청년은 농촌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마을주민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월 1회 정도의 마을주민과 청년들 간 주기적 소통을 통해서 마을 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점빵, 가게, 식당 등 마을자체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청년들이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청년들은 계속 봉사가 어렵다는 점이 마을주민과 청년들 간 생각의 차이다.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안정적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거환경이 먼저 제공된 이후 일자리 연계, 간단한 편의시설 제공 등의 순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H/W)를 저리임대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면 귀농귀촌인의 집처럼 청년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주거를 포함한 정주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개인 생활 및 집안 관리와 같은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고령자 주민의 주택 내외부를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생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 청양군의 깔끄미사업(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고령자 집안을 청소해주는 일, 주택 내외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DB화하는 일, 이동 빨래방으로부터 이불 빨래를 돕는 일, 집안을 청소하는 일, 집안 내 전구갈이와 칼갈이 등 고령자 생활 분야에 도움이 되는 생활 서비스 일, 마을기사 혹은 마을기술자가 기술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일부 행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부르면 달려가요. 심부름꾼 사업’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참고할 만하다. 전화하면 달려가는 서비스로서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하여 마을주민은 재료비만 내고 출장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런 일자리 창출은 농촌 지자체에서 고려할 만하다.

셋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지역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 청소년과 학력의 차이 줄일 수 있도록 케어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문맹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노인들에게 한글 교육을 해 줄 사람, 노인회의 총무나 간사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의 지속성 측면에서 교육은 어린이나 어른에게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농업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농사지를 인력 부족으로 농사 자체가 안 되어서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에 다방면의 수요, 특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영역의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년~10년 후 농업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농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농촌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양군은 일본과 같은 집락영농, 공동경작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이 농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걱정이지만 이는 도시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사짓는 청년들이 고령 농업인이 하기 힘든 소규모 논지·밭 관리·운행을 일부 대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 그룹화 및 청년 조직화를 통해 농협 내 농작업단을 구성하고 고령 농업인의 소규모 논과 밭을 공동관리하고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예를 들면, 논갈이, 밭갈이, 소규모 농업인의 땅(작은규모의 땅) 로타리 치기, 두둑 만들기 작업, 혼자 대응하기 힘들므로 여러 개 마을의 농지를 묶어서 활용하기, 마을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농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 창업, 지역농협 농약방제단은 다른 지역의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해당지역농협의 농작업 지원단(농협의 계약직)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다.

특히 공동방제단, 공동수리단, 공동마을관리단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보았다. 매일 필요한 일은 아니기에 시기별·집단별·작물 품목별로 필요하

고 그 비용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농가의 자부담으로 지불한다. 이것을 직업 삼아 여러 곳을 한데 통합하여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홍보와 정보전달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글자 문맹 교육, 집사 역할과 같은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집으로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해결해 주는 집사 역할이 필요하다. 보통 어르신들의 문해력이 낮으므로 내용을 물어보면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이다. 마을 소식이나 각종 정보가 생길 때 알려주는 중개소 역할, 마을 소식지처럼 마을 소식을 알리는 유튜브, 마을 방송을 하는 방송인과 같은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여섯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교통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딱히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교통 이용 상황과 만족도가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교통 부분은 청년들이 느끼는 바와 달리 마을주민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 결과였다.

청년의 자동차 소유 비중이 마을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반면, 마을주민은 이미 불편한 농촌 대중교통 시스템에 적응해져서 생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OO마을은 마을주민들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다는 응답, OO마을은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으나 정거장에서 800m 이내는 행복택시(교통) 지원불가 지역이라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 OO마을은 읍내와 가까워 자가용을 모두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 80대~90대는 전동차가 있어서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 고령주민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로 이동해 주고 있어서 의외로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곱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관

런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보다 사회복지사나 마을단위 문화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촌지역은 문화·예술·취미·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많지 않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농촌 마을주민의 다양한 시민 감수성을 키우기 위하여 시급한 것이야말로 문화·예술·취미·여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재능과 끼를 재미있게 발산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관련한 일자리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덟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의료 및 돌봄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있다가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동돌봄, 공동생활, 마을주민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케어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사생활 문제를 마을이장에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추세이고 각자 개인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는 추세라서 마을이장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것에 대비하여 마을주민별로 당뇨나 혈압같은 지병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마을주민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마을주거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주기적인 점검 결과를 체크하여 이를 한데 모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행정업무, 전화로 체크하는 일), 마을 사회복지사 양성을 통해 공동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일,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마을 내 요양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긴급 상황 시 의료시설에 연락하거나 이송을 도와주는 일, 이미용 서비스와 같은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집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생애주기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하는 마을 내 건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는 매월 1회 정도 청년들의 부업으로도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마을기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청양군은 마을돌보미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행정리마다 마을 돌보미를 지정하여 수당(월 50만 원) 제공하고 이웃의 안부 케어를 물으며 공동식사와 빨래 수거 등 돌봄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공동생활홈 사업 공모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아홉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에서 클린하우스(공동 분리수거장)를 만들어 CCTV 설치·운영하는 일, 마을 내 경관작물 모종을 키우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통 마을이장이 방송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을 독려하고 지도하면서 마을환경과 마을경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마을공동 별초, 마을대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주변 제초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마을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경관작물 모종을 키우는데 고령화된 마을이장도 이제 그것을 모두 수행하기에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시인력, 상근인력은 필요없지만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유희공간관리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공유오피스를 마련하여 마을집사가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들끼리 소통할 만한 공간은 행정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보다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에 농촌형 지자체에서 마을 내 유희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모임공간, 학습 공간, 영화상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간이 주는 상징성, 관계성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분야 역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영역이라

서 관련한 일자리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열하나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나 조직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주민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중개하는 일, 마을주민과 외부사람 간 교류를 위해 중개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들이 외부사람과 마을주민들 간 교류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완충 역할, 이런 중개 역할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 내 그러한 소질이 있는 자나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인적자원 조사와 발굴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분야 역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관련한 일자리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열둘째,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전통적인 마을 일, 마을행정 일, 마을행사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마을 일에 참여하고 도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마을 연반제 운영 시 참여하는 일로서 마을공동 장례 치르기·상여매기·음식나르기·마을회관 대여하기,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 중 역할 분담 필요, 성황제 및 행단제 등 마을제사 주관 시 참여하고 도와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마을행정 일을 위하여 마을이장 업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들로부터 마을 행정처리, 노인회 행정처리, 사무일, 행정정보조업무, 컴퓨터 사용과 같은 도움을 받고 싶지만 부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마을이장과 마을사무장 역할을 구분하되 반상근 회사원처럼, 계약직 직원 개념으로서 각종 행정에 제출할 보조지원사업 작성 시 컴퓨터 서류 작업 등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기에 마을사무장은 N잡러로서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필요 시 마을주민도 가능하도록

한다. 최소한 마을사무장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일부 마을은 마을 내 청년회가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 자격요건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OO마을에서는 마을사무장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한다. 직업화된 사람과 부업화된 사람은 다르지만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 2~3회 마을업무를 보고 마을수익 창출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기본소득 수준을 제공한다. 마을주민보다는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외부사람을 유입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마을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제조작업 등을 도와주는 일, 마을행사와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일, 마을안 눈길 치우기 작업, 그 외 행사(어버이날, 추석 및 설명절, 7월7일)나 마을축제 준비 시 일손 도움, 마을회의 참여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을 발전기금이 없는 곳이 많은데 마을기금이 없어 사업 지원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므로 마을 기초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마을에 필요한 일을 했을 때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 방안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마을자치 영역으로서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움으로 마을자치시스템 교육을 1년 이수하고 마을규약을 만들었는데 마을 내 직급별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소득사업으로 사업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일, 농산물 가공하는 마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일,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위생관리를 하는 일, 조리해 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마을에 후계인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마을에 청년이 들어오면 정해진 마을 목표에 따라서 마을간사나 마을사무장 양성, 마을후계자 혹은 마을관리자 양성, 마을만들기 후계자(활동가), 마을기사 혹은 마을기술사를 양성하여 이들과 같이 마을의 각종 시설관리, 마을사업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5. 요약

첫째, 청년들이 개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조사한 결과, 사람마다 각자 살아온 경험이 다르므로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에는 무리였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과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육구)는 100% 부합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과는 더욱 잘 부합하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 내 청년들의 특기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소홀한 측면과 농촌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경험과 기회가 부족했던 측면이 결합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안정적인 일(4대 보험, 월급 구조)과 대안적인 일(불안정적인 일) 사이에 충돌하고 대립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 입장과 달리 공적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특기, 능력, 육구는 제대로 된 대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도출하였다. 유입되는 청년에게 마을에 대해서,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작은 단위에서부터 쪼개어 경험하기부터 시작하기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 일원으로서 교류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돌보는 활동, 농업인력지원활동, 행정에서 하는 일 협조와 지원, 지역주민과 교류활동 등이 그것이다.

셋째, 농촌 사회의 여건에 대해서 청년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청년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세분화하여 진단하였다.

-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 여건은 행정이나 사무직 등을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
- '일할 거리' 여건은 마을 내 하는 일 대비하여 보수 수준 괴리가 있어서 내적 갈등 표출, 결국 자연스럽게 기대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수순

- ‘주거를 포함한 정주’ 여건은 일자리와 정주를 공동의 기본 전제로 논의해야 함에 공감, 읍면 간 고른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독거 어르신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청소 등 주택관리 서비스 등도 필요하다는 인식
- ‘교육’ 여건은 출신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 ‘농업’ 여건은 여전히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농업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
- ‘관광’ 여건은 관광자원을 관계인구, 고향인구 등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 이를 통해 애향심 고취 효과 기대 가능
- ‘홍보와 정보전달’ 여건은 SNS로 지역 알리는 홍보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마을주민이 각종 정보를 전달받는 체계도 중요하다고 인식
- ‘교통’ 여건은 불편한 교통으로 인하여 이동의 자유에 많은 제약, 교통체계 개선 필요하다고 인식
-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여건은 읍면별로 불균형한 분포를 띄고 있고, 면 단위는 일상적인 소비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
- ‘의료 및 돌봄’ 여건은 병원 등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 취약하다고 인식,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상호 돌봄관계 지속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시도 중인데 사례 참고
-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여건은 환경과 경관 관리수준에 따라 마을 내 봉사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 가능, 살기좋은 농촌환경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경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 ‘유희공간관리’ 여건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모이는 공동의 공간에 대해서 수요 증대 예상
- ‘네트워크나 조직’ 여건은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일을 같이 도모할 사람과 조직 자체가 부족, 그럴수록 지역에 있는 청년끼리 공동 기획해서 활동하는 그룹 구성이 중요하다고 인식

- ‘마을공동체 활동’ 여건은 마을주민의 건강, 영양관리, 고독사 등 방지를 위해 서로 자주 모이고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이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인식
- ‘그 외 기타’ 여건은 농촌 지역사회 분위기와 풍토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공론의 장 부재, 나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권한이 없다는 문제에 공감

반면, 마을주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일할 거리 여건, 농업 여건, 마을공동체 여건 등의 영역에서 진단하였다.

- ‘전반적인 분위기와 여건 : 일부는 주말을 이용하여 마을행사에 참여하고 순조롭게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활동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부족한 편,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들이 공존
- ‘일할 거리’ 여건 : 어떤 목적으로 농촌에 내려왔는가에 따라 마을주민과의 관계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일할 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달라짐. 어떻게든 마을에 스며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인정받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마을주민은 그런 사람에게 일할 거리를 권유하게 되는 수순
- ‘농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 여건 :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농사일부터 마을일까지 모두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 교류가 뜸해서 마을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넷째, 청년과 마을주민들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 수요 및 조건 중 청년이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일자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
- ‘일할 거리’는 최소한의 생계수준만 된다면 청년이 하고자 하는 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서로 일치되면 수행 가능

- ‘주거를 포함한 정주 관련 일자리’는 정착을 위해서 안전하고 적절한 거주지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거정보 제공 필요
- ‘농업 관련 일자리’는 농민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로컬푸드 영역의 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가공 및 유통 영역의 일 필요
- ‘관광 관련 일자리’는 관광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외지인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일 필요
- ‘홍보와 정보전달 관련 일자리’는 마을과 지역홍보 관련 영상 제작, 디자인과 기록화 작업, 마을방송 일, 정보를 전달하는 일 등 필요
-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관련 일자리’는 마을주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일 필요
- ‘의료 및 돌봄 관련 일자리’는 마을주민 케어, 복지전달 체계 관리, 사회적농업 농장 연결, 개별상담하는 일 필요
- ‘유희공간관리 관련 일자리’는 청년일수록 또래들과 어울리는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유지 및 보수 등 관리 일 필요
-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일자리’는 마을의 각종 행정사무, 보조사업 신청업무 등 마을이장 업무를 보조하는 일 필요

반면, 마을주민이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는 농촌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지자체 주도로 청년과 마을주민들이 융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마을단위별(공동집단별) 청년육성,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수요
- ‘주거를 포함한 정주 관련 일자리’는 개인 생활 및 집안 관리와 같은 일 필요
- ‘교육 관련 일자리’는 지역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 청소년과 학력의 차이 줄일 수 있도록 케어하는 일, 노년층 글자 문맹

교육 일 필요

- ‘농업 관련 일자리’는 농사지를 인력 부족으로 농사 자체가 안 되어서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에 다방면의 수요, 특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영역의 일 필요
- ‘홍보와 정보전달 일자리’는 노년층에 대한 글자 문맹 교육 일, 집사 역할과 같은 일 필요
- ‘교통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딱히 필요한 것이 없었음. 지역에 따라서 교통 이용 상황과 만족도가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교통 부분은 청년들이 느끼는 바와 달리 마을주민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 결과
- ‘각종 문화 및 여가 관련 일자리’는 마을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보다 사회복지사나 마을단위 문화센터가 필요
- ‘의료 및 돌봄 관련 일자리’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있다가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동돌봄, 공동생활, 마을주민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케어하는 일 필요
-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마을에서 클린하우스(공동 분리수거장)를 만들어 CCTV 설치·운영하는 일, 마을 내 경관작물 모종을 키우는 일 필요
- ‘유휴공간관리 일자리’는 공유오피스를 마련하여 마을집사가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 필요
- ‘네트워크나 조직 관련 일자리’는 마을주민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중개하는 일, 마을주민과 외부사람 간 교류를 위해 중개하는 일 필요
-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일자리’ 수요와 조건은 전통적인 마을 일, 마을행정 일, 마을행사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 필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일도 중요

4

농촌 청년정책 공급현황 및 사례 검토

1. 타 지역 경험과 사례

1.1.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⁴⁾

일본 총무성은 농촌지역이 아닌 외부(특히 도시부)로부터 청년층 인력을 유입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2009년부터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함에 따라 침체된 농촌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총무성(중앙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실제 대원을 모집, 선발, 관리하는 등의 모든 절차와 사업 추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4) 자료: 유학열(2022),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정책사례 번역본.

〈참고〉 지역부흥협력대 추진 체계(주체별 역할)

■ 중앙정부(총무성)

- 예산 지원, 지역부흥협력대 지침 마련
- 지역부흥협력대 우수 사례 조사 및 홍보

■ 지방정부(시정촌)

-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선발, 위촉
-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지역 활성화 활동 지원, 자문

■ 지역부흥협력대원(개인)

- 지원한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이전)
- 지역 활성화 지원 활동 : 1년~3년

지역부흥협력대의 임용 형태는 크게 ① 일반직 비상근 직원(지방공무원법 제 17조), ② 특별직 비상근 직원(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 ③ 상기의 ①, ②의 형태처럼 임용하지 않고 위탁 계약 형태⁵⁾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부흥협력대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주로 ‘지역협력 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협력 활동’ 범위는 농촌지역(마을) 공동체 유지, 농업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하고,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1〉 참고). 직무범위나 영역은 대원이 활동하는 지역 또는 마을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면서 지자체와 지역부흥협력대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표 4-1〉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사(축제), 이벤트 지원 활동, 지역 전통예능, 문화의 부활 활동 ◦ 지역 특산물 개발, 판매 등 지역브랜드 강화 활동 ◦ 도시농촌교류 활동(농촌관광 등), 지역 매스컴을 활용한 지역 홍보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지원 활동 ◦ 휴경기 재생 활동
수자원 보전, 감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지(하천, 저수지 등) 정비 활동 ◦ 수원지(하천, 저수지 등) 청소 활동
환경보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쓰레기 등 불법 투기 감시 활동 ◦ 마을 도로 청소 활동
주민 생활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 돌봄 활동 ◦ 고령자를 위한 통원 지원, 생활용품 구입 지원 활동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피해 방지 활동 ◦ 지역 유형민속자료 보전, 정리 활동

자료: 유학열(2022),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정책사례 번역본.

5)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단체)이 대신하여 위탁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직무 조건은 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 왔던 도시지역을 떠나 생소한 농촌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하고 낮은 사람들과의 접촉도 적지 않게 발생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직무 능력을 요구받는다.

직업적성 측면에서는 언어능력·사무지각능력·수리능력이, 지식 측면에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초적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대부분이 농업·농촌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역부흥협력대 지원내용은 ① 활동경비로서 지역부흥협력대원에게 연간 400만 엔(상한)을 지원한다. 세부내역은 생활비 200만 엔과 활동비 200만 엔이다. ② 모집 및 설명회 경비로서 지역부흥협력대 홍보,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 200만 엔(상한)을 지원한다.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은 100만 엔(상한)을 해당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한다. 경비 예시로서 주거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회의비, 연수비, 생활비 등이 있다. ③ 창업 또는 사업계승 경비로서 지역부흥협력대원이 활동 임기를 마친 후 1년 이내 동일한 농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당 농촌마을의 지역사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지원한다. 100만 엔(상한)을 지원한다 (<표 4-2> 참고).

<표 4-2>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지원내용

구분	대상	금액(연간)
활동 경비	협력대원	400만 엔
모집 및 설명회 경비	해당 지자체	200만 엔
		100만 엔
창업 또는 사업계속 경비	협력대원	100만 엔

자료: 유학열(2022),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정책사례 번역본.

2009년 시행 첫해는 31개 지역에서 총 89명의 대원이 선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현재 총 1,061개 지역에

서 누계 5,359명 대원들이 활동을 완료하였거나 활동 중이라고 한다. 성별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20~30대 청년층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2. 서울특별시의 넥스트로컬(지역상생청년창업지원사업)

서울특별시의 지역상생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넥스트로컬에서는 지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서울청년 창업가에게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맞춤형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한다.

1단계 서울청년, 지역 안의 가능성 발견을 통해 데스크 리서치를 벗어나 지역에서 필드 리서치를 경험하도록 지원,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한다. 자원조사과정(2개월)을 통해 50팀 내외(약 100명 규모) 인원에게 1인당 1백만 원, 지역 관계자 연계, 지역자원조사 실비, 지역캠프를 지원한다.

2단계 청년의 아이디어, 비즈니스가 될수 있도록 로컬 비즈니스를 위한 이론교육부터 1:1 전담코치,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실행을 지원한다. 사업화과정(5개월)을 통해 20팀 내외에 최대 2천만 원을 팀별로 지급,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및 1:1 맞춤 코칭을 제공한다.

3단계 청년의 비즈니스, 서울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고도화와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년은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업가로 성장한다. 후속과정(10개월)을 통해 10팀 내외에 팀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 사업추진 및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하고 최종사업비를 지원한다.

이후 4단계부터는 지속지원을 통해 기한없이 창업팀 간 네트워킹 지원 및 유사사업 및 투자연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내 파트너의 도움으로 원활한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한다.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지역 토착기업, 지역농가 등 네트워크를 지원, 지역연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온·오프

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제공 및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전 워크숍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제공한다. 창업 전문가 멘토링 제공을 통해 개별 맞춤형 1:1 전담 코치 배정, 주기적인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체류공간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2단계 사업화 과정 수료 시 분야별 투자유치 진단, 컨설팅, 지역 및 창업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서울특별시의 넥스트로컬 사업과정



자료: 넥스트로컬 누리집(<http://seoulnextlocal.co.kr/>, 검색일자: 2024.10.02.)

1.3. 충남 청양군의 로컬몬스터(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충남 청양군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양군 청년마을 프로젝트이자 청년마을 활성화사업으로 로컬몬스터는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지역산업 위축에 따른 청년층의 유출방지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활력을 높이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로컬몬스터 이재영 대표는 청양이 고향이지만 청년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청양에 정착하게

되었다. 로컬몬스터는 로컬의 사람, 기업, 자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기업이다(〈표 4-3〉 참고).

〈표 4-3〉 청양군의 로컬몬스터 주요 내용

사업 구분	주요 내용
브랜드 기획 & 마케팅	① 지역특화 제품 · 서비스 기획 ② 온라인 마케팅 전략 온라인 광고, 기자단 등 ③ 창업 교육 · 프로그램 ④ 스마트플레이스 등 소상공인 서비스 ⑤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디자인 & IT 개발	① 브랜드 CI · BI · 캐릭터 개발 ② 패키지 디자인 ③ 인쇄 디자인 책자, 리플렛, 카탈로그 등 ④ 제품 촬영 & 상세 페이지 개발 ⑤ 누리집 · 쇼핑몰 구축 ⑥ 기관 굿즈 · 관광 기념품 개발
공공 · 문화 프로젝트	① 청양군 청년마을 운영 ② 지역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지역특화 축제 기획 및 운영 ④ 각종 지역 관광 활성화사업 운영

자료: 1. 청양군 공식블로그 청양e야기(<https://blog.naver.com/cheongyange/222961047643>, 검색일자 : 2024.10.02.)
2. 로컬몬스터 누리집(<https://www.localmonster.kr/>, 검색일자 : 2024.10.02.)

로컬몬스터는 지역의 크고 작은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축제· 문화 행사 운영, 여행상품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협업하고 있다. 관광두레, 사회적 농장 등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협력하여 주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그림 4-2〉 참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터무니 있는 시간(지역탐색 2주 살이 프로그램, 1~2기, 기수별 16명)’, ‘레벨업 몬스터(청년의 꿈 실현 프로그램, 22명)’가 있다. 터무니 있는 시간은 입소자들이 2주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탐색 프로그램, 관계 형성 프로그램, 로컬 투어,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청양을 알아가고 또래 청년들과 교류할 기회를 접하게 된다. 레벨업 몬스터는 터무니 있는 시간 수료자와 지역 청년 22명을 우선선발하고 꿈 실현 프로젝트에 300만 원을 지원, 지역자원 기반 창업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청맛동 프로젝트 이후 청양에 남아 계속 활동하는 팀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어쩌다로컬’팀이 있는데 청양에 ‘찰리와 고추빵공장 카페’ 매장을 창업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지로부터 온 청년이 청양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자 창업경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청양의 맛있는 동네(청맛동) 프로젝트’가 시작이었다. 청년협동조합 ‘어쩌다로컬’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청년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청양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을에서 한달동안 창업 체험을 한 이후 실제 창업을 한 사례이다.

〈그림 4-2〉 청양군의 로컬몬스터 주요 프로젝트



자료: 로컬몬스터 누리집(<https://www.localmonster.kr/>), 검색일자 : 2024.10.02.)

로컬몬스터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2023년, 2024년 두 해동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 지원 사업의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생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그 결과,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고 회사 성과도 향상되어 자립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로컬몬스터의 향후 계획은 충남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 고용 인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현재 고용인원 1명).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 범위를 더 넓혀 우리나라 도서 지역, 농촌지역의 성장 가능성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들까지 모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청년 컨설팅 기업이 되고자 한다.

1.4. 충북 괴산군의 (주)뭐하농(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충북 괴산군 농업회사법인 (주)뭐하농은 도시에 살다 충북 괴산군 감물면으로 귀농한 6명의 청년들이 모여 2020년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다(대표 이지현). ‘뭐하는 농부들’이란 뜻을 담은 뭐하농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삶과 문화를 새롭고 즐겁게 그려나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사와 유통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카테고리를 벗어나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농업법인으로써 ESG 경영을 지향하는 뭐하농은 청년문화 커뮤니티 아지트 ‘뭐하농하우스’를 통해 마을회관이나 강의실 같은 일률적인 공간 제약에서 탈출해 자율적이고 트렌디한 청년 문화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다. 그 외 뭐하농은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 등을 활용한 음료, 디저트를 판매하는 팍 카페(농장 카페), 자원 순환 디자인 모듈 농장 팍가든·팍키친, 농촌 굿즈 샵 스토어 등을 통해 지역 농부들이 생산한 농작물에 농부의 가치를 더한 다양한 농업 콘텐츠도 만들어가고 있다(〈표 4-4〉 참고).

〈표 4-4〉 괴산군의 머하농 주요 내용

공간	주요 내용
<p>SELECTED STORE 모하농이 엄선한 농산물 농산물 직거래 시장(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시장(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시장(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시장(농산물 직거래)</p> <p>MOHANONG HOUSE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p> <p>FARM GARDEN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p>	<p>mohanong map CREATING DIFFERENT CULTURE 6055-8077 010-94911375-100</p> <p>BOOK SPACE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p> <p>SPACE TO CREATE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p> <p>FARM KITCHEN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농촌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p>

공간	주요 내용
뭐하농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의 시간을 온전히 맛으로 느끼는 제철 음식문화 공간이자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 플랫폼 ◦그 시기에 가장 맛있는 자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카페, 펍, 팝업레스토랑 등의 다양한 컨셉에서 디저트, 메인 디쉬, 한 잔의 술로 자연이 주는 그 때의 가장 즐거운 맛을 함께 즐기
뭐하농 미니채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년 간 자연농법으로 정성들여 가꾼 '모두의 밭'에서 당일 아침 수확해 아주 파릇파릇 신선한 채소를 판매 중, 오롯이 자연의 힘으로만 길러내었다는 채소 홍보 ◦자연농법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간단한 포장으로 원하는 만큼, 먹을만 큼만 조금씩 뭐하농의 실천에 동참하라는 캠페인 추진 ◦당일 수확으로 밭에 나는 채소의 성장에 따라 매주 채소 구성 변화
로컬디자인 편집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뭐하농의 다양한 굿즈와 농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맛들의 채소큐레이션 패키지 만나는 공간
농부취향책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학, 생태, 로컬 디자인 등 농부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는 책방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고요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책방 옆 [사유의 방]은 조용한 시간 필요, 그룹 활동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 예약 통해 이용 가능
농부공유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바로 요리해 볼 수 있는 공유 주방 ◦다양한 푸드 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식문화공간
공유창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미나·포럼·클래스 등의 행사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공간과 농촌의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5G와 개인 책상·사물함이 구비되어 있는 공유오피스 공간

자료: 뭐하농 누리집(<https://www.mohanong.co.kr/>, 검색일자 : 2024.10.02.)

또한 뭐하농스는 청년들이 넓고 자유로운 농촌에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괴산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두달살이 프로젝트와 공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에 대해 이해하는 '파밍', 괴산에 대한 지식을 쌓는 '투어링',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는 '네트워킹' 등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인만의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스쿨 운영, 팀별 1:1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여 실제로 창농 및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림 4-3〉 참고).

뭐하농스는 두달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한 6명 청년들(뭐하농 농부들)이 겪은 실제 농촌의 삶과 농촌에서 생활 방법들을 공유하고,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삶의 방식이 아닌 함께 살아가면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농촌에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림 4-3〉 괴산군의 머하농스 두달살이 프로그램 개요

공동 프로그램	주단위 정기 프로그램	
창농&창직 교육	창농팀/창직팀 팀별 특화 교육	
실전 교육	이론/심화 교육 진행에 따라 파일럿/인턴쉽 연결	
〈 순환형 프로그램 계획〉		
공동 프로그램	창농 & 창직 프로그램	
	창농 교육	창직 교육
	창농·업이 아닌, 괴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 + 농업을 통한 괴산군 이해하기 + 괴산군 주요 자원 이해하기 + 괴산 탐방 + 괴산 청년 커뮤니티 데이 + 충북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네트워킹	내 몸에 맞는 농작물 찾기 + 국내외 괴산군 창농 생태계 이해 + 정부 지원 사업 현황 및 활용 전략 + 다양한 농법 및 농작물 탐색을 위한 교육 및 실습 + 사업 계획서 작성 + 농작물별 심화 교육 및 실습
	파밍 프로그램 투어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확 프로그램	아이템 탐색/도출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 국내외 괴산군 창직 생태계 이해 + 창직 기본/심화교육에서 도출한 아이템 가설 검증 + 1:1, 1 : 그룹 밀착 코칭 중심 운영 + 사업계획서 고도화 + 최종데모데이 (지역주민 참여)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 실전 실습		
	농작물 재배교육	파일럿
	농경 생활 제반교육	인턴쉽

자료: 뽕하농 누리집(<https://www.mohanong.co.kr/>, 검색일자 : 2024.10.02.)

1.5. 전북 완주군의 다음타운(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⁶⁾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으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 다음타운이 선정되었다. 다음타운이 위치한 전북 완주군 고산면은 완주 북부 6개 면의 중심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교육공동체 등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고산면에서는 미디어, 문화예술, 마을교육, 청년 목수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 단체가 서로 느슨하지만 촘촘하게 연결되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타운의 김주영 대표는 지방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10년 전 서울살이를 접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주로 향했다. 완주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

6) 자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https://www.jbpresscenter.com>, 검색일자 : 2024.10.02.)

오를 겪었던 그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했다. 부족한 일자리, 불편한 교통, 빈약한 인프라 등 약점이 있음에도 청년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이유에 대해서 김주영 대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 다운 삶이 가능한 지역’이 청년을 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에 관심이 높은 고산면을 청년마을 사업지역으로 택하게 됐다. ‘다음타운’이라는 청년마을 이름에도 그러한 뜻을 담았다.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고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는 ‘다음’, 자기다움을 회복하고 지역다움을 발견하는 ‘다움’, 도시와는 다른 대안적 삶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다름’이 이곳 청년마을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환대와 사람들 간의 연결을 중시하고자 했다(〈그림 4-4〉 참고).

〈그림 4-4〉 완주군의 다음타운



자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https://www.jbpresscenter.com>, 검색일자 : 2024.10.02.)

다음타운은 기존 고산미소시장 고객센터로 이용되고 있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여 지역과 청년의 매개공간 겸 창업 실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완주 고산미소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신규아이템 실험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창업플랫폼 ‘고래당’은 청년자립베이스캠프로 커뮤니티 부엌, 로스팅 공방 등과 연계한 창업·창직이 이루어진다.

다음타운의 대표 거점공간은 ‘로컬베이스캠프’와 ‘비빌언덕 중개사무소’다 (<그림 4-5> 참고). 청년마을목수협동조합 청년 5인과 다음타운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공간 기획부터 제작, 페인트칠까지 직접 다음타운의 거점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1층에는 사무공간에 ‘커넥터스랩’과 커뮤니티 공간이 ‘메이커스랩’, 커뮤니티 식당 ‘모여라 땡땡땡’이 있고, 2층에는 완주에 놀러오는 이들을 위한 ‘다음스테이’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다. ‘(마을과 청년을 연결하는) 비빌언덕 중개사무소’는 지역과 청년들을 연결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허브 공간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4-5> 완주군의 다음타운 대표 거점공간



- 자료: 1.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https://www.jbpresscenter.com>, 검색일자 : 2024.10.02.)
 2. 완주군 공식 블로그(검색일자 : 2024.10.02.)
 (https://blog.naver.com/wanjugun/22347949562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3. 로컬베이스 씨앗(<https://blog.naver.com/cart3355>, 검색일자 : 2024.10.02.)

청년마을 사업은 끝났지만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음타운은 방문한 대다수 참가자가 완주의 관계인구가 되어 지역소멸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전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뒀으나 전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제로썸’ 관계가 아닌 농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증가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6. 전북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

전북 진안군 마을간사제도는 '마을만들기 선진지'와 '귀농1번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진안군이 200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외부 인재를 영입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 마을단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도시민 인재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마을살리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 출발점은 2001년으로 11개 지구 읍·면 지역 개발계획 추진 사업이 도입되면서 마을만들기 기초가 형성되었다. '진안군종합발전계획'(2002)과 '읍·면개발계획사업'이 '으뜸마을가꾸기사업'(2003)으로 명칭 변경, '으뜸마을가꾸기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2005), '마을간사제도' 도입(2006), '귀농귀촌1번지 프로젝트'(2007),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2007), 2012년 '사단법인 마을엔 사람' 설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식을 하였다.

'마을간사'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구에 선정해 배치된다. 으뜸마을가꾸기 대상지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마을단위 사업(예.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지구가 대상이 된다.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며 마을의 다양한 일들을 도맡기도 한다.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활동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농촌에서의 뿌리내리기 훈련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채용된 마을간사 역할은 마을위원장 활동 보좌, 마을활성화를 위한 역할로써 마을 사무 및 기록 관리, 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마을 내 정보 공유와 소통 위한 매월 1회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 농특산물 상품 개발 및 직거래 상설매장 공급과 홍보, 마을 위원장의 공적 활동 지원, 기존 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기타 마을사업 활성화 관련 활동을 추진한다. 토박이 마을지도자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 빠른 시대적 변화와 도시적 감수성을 적극 수용하여 정보 수집과 판로 개척, 소득 증대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그림 4-6〉 참고).

〈그림 4-6〉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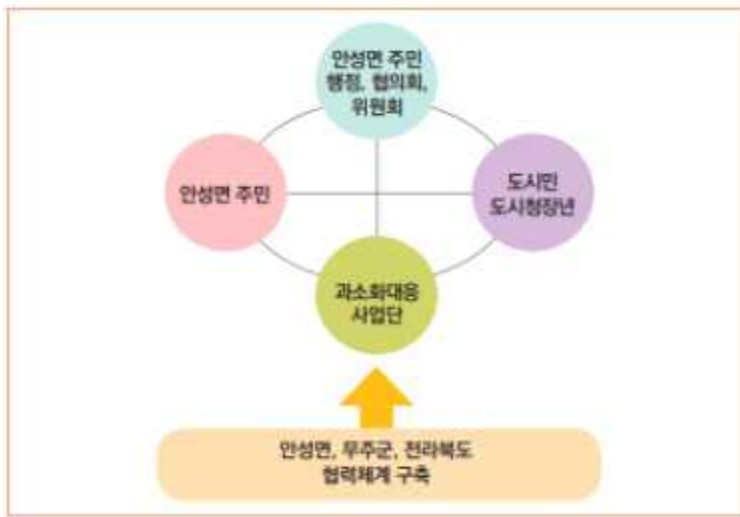


자료: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jinantourism>)

1.7. 전북 무주군의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은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읍면 단위 시행)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 4월 김진호 단장을 중심으로 무주군 및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명의 청년들이 안성시장 2층 상가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군 전체를 담당하는 별도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과소화 대응을 담당하는 면 단위 지원단이 팀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예산(약 5억 원)으로 직접 운영하였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무주군의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추진체계도



-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농촌 과소화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_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지원단은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의 농촌 공동체 실태를 파악하고,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있다. 지원단은 결성 초기 과거 전라북도에서 진행했던 마을조사 사업과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기획하였다. 특히 과소화 지역에서 중요한 주체인 여성,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과소화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3년 간 진행한 주요 활동은 여성 커뮤니티 맘카페, 소모임·동아리 활동 지원, 다문화 캠프, 마을학교, 촌락마켓, 보이는 라디오, 미디어 마을여행, 청년공동체 산골낭만 강화,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 공동체 역량강화,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마을기초조사 및 마을지도 제작, 면소식지 발간, 무주군 공동체활성백서 제작, 산촌 앞마당 캠핑,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을 했다. 사업들을 통해 안성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 스스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장기계획도 수립하였다(〈표 4-5〉 참고).

〈표 4-5〉 무주군의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주요 활동(안성면 사례)

대상 사업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청년 역할	주민 역할
여성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맘카페	◦온라인 소통 공간을 통해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다양한 정보공유로 지역 내 여성들 간정보격차해소 ◦맘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안성면 여성커뮤니티에서 무주군 여성커뮤니티로확대
	소모임 ·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고 활동하는 자발적인 지역 커뮤니티로 성장하도록 지원		◦주민 스스로 모임을 형성하고 운영해 나감으로써 개개인 역량 강화 ◦지역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다문화 캠프	◦안성면 ·적상면 다문화가족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통의 장 통해 친밀감확보 ◦다문화여성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향후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와 동기 부여
	마을학교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강사로써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 갖게 하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움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하여 주민이 강사로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움 ◦마을 안에서 아이들과 성인들이 배움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미디어 촌락마켓	촌락마켓	◦촌락마켓과 무주 산골영화제를 공동 진행함으로 무주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인 촌락마켓 알리고 무주를 알리는 계기	◦지속적인 촌락마켓 진행으로 직거래장터와 플리마켓 활성화로 지역소비촉진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무주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마켓, 생활 문화동아리 소모임, 농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자체 운영하는 프리마켓 기획	◦지역농가들 적극 참여유도로 직거래장터문화 활성화 기대 ◦지역참여자들의 소득 증대
	보이는 라디오	◦무주산골영화제, 무주반딧불 축제 소개 및 홍보	◦청소년에게 방송매체 직접경험하는 기회 제공	◦군민, 관광객의 소통 및 교류의 시간
	미디어 마을여행	◦축제 기간이나 마을 행사중 영상 촬영하여 마을 홍보용 영상으로 편집작업을 거쳐 SNS에 업로드로 마을 알리고 지역 알리는 효과		◦지역의 행사나 축제, 마을의 행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등 홍보영상 제작, 플랫폼 통한 홍보마켓팅 효과
청년 공동체	청년공동체 산골낭만 강화		◦산골낭만 자체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활동 지원	

대상 사업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청년 역할	주민 역할
	전북대 영농창업특 성화	◦사업단과의 실습·캠프 확대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활발 한 교류 통한 공동체성 회복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 화의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 기반 마련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마을에 직접 찾아가 마을주민대상의 요가 및 노래교실 실시 ◦여성커뮤니티 오프라인 활동 으로 공방 프로그램		◦마을주민 사업참여율 상승 ◦마을로 찾아가 진행하는 프 로그램으로 주민 활력 증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여가활동, 공동체 형성 ◦소외된 마을 간 여성 네트워크 형성
마을기초 조사 및 마을지도 제작	마을기초조 사 및 마을지도 제작	◦마을기초조사 통한 자원발굴 ◦마을기초조사 토대로 마을공 동체활성화방안 마련 ◦면중심지 생활기반시설조사 기반으로 한 마을지도제작		◦마을주민들에게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홍보
면소식지 발간	면소식지 발간	◦안성면, 적상면의 다양한 소 식을 소식지 형태로 발간, 배 포함으로써 주민에게 정보 제공, 공동체 의식 고양		◦안성면 전체 2,000여 가구, 적상면 1,400여 가구에 소 식지 배포
무주군 공동체활 성 백서 제작	무주군 공동체활성 백서 제작	◦무주군마을공동체 백서제작 ◦무주군 주민대상 무주군마을 공동체지원센터 홍보 ◦무주군의 대표활동 홍보복으 로써 활용 및 DB 축적		◦무주군 주민 대상 무주군 마 을공동체지원센터 홍보
산촌 앞마당 캠핑	산촌 앞마당 캠핑	◦캠핑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시설 제공		◦농가 신규소득원 창출 ◦지역농산물 및 관광자원의 자연스러운 홍보 기회 마련
사회적농 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함으로써 농업이 주는 안정 감과 신체 건강 향상 효과 인 지시킴	◦장애인들의 농업에 대한 인 지도가 낮아 장애인부모회를 통해 관계망 유지함으로써 차년 프로그램 연계 ◦중학생들의 진로학습 프로 그램과 연계, 농업에 대한 인지 도 제고	
농촌 교육문화 복지 지원사업	농촌 교육문화복 지 지원사업	◦주민들에게 주민스스로 욕구 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 주민들 역량 제고 ◦예술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 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 이에게 선택 폭 확장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동 프 로그램 참여, 신뢰향상 ◦지역여건에 의해 접하기 힘 들었던 문화·예술분야에 접 해 봄으로써 아이 미래를 위 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 확대	◦공모사업 진행함에 따른 주 민공동체 능력 향상 유도 ◦지역 내 재능기부자 활용하 여 수준높은 강사활용 및 지 역자원 연계 확대

자료: 안성면공동체활성화지원단(2017), 「청년 안성에 오다」 / 주 : 저자가 작성함.

2. 청년 일자리 정책공급 현황

2.1. 중앙정부 정책과 사업

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목적 :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위기 극복 지원,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 법인 기업의 경우, 인건비(1명) 지원, 2년 동안 180만 원/월
- 지역혁신형(신규 1유형):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 역량강화 + 지역자율지원(최대 2년간)
- 상생기반대응형(신규 2유형)
· ① 소멸위기지역 창업: (1~2년차) 신규 창업(인큐베이팅 1년) + 성장 지원(창업성공시 성장지원 추가 1년), (3년차)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1년(연 2,400만 원) 추가 지원
· ② 창업성장 플러스: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 원) 지원
- 지역포용형(신규 3유형): (1년 이내)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1년 + 직무역량강화 + 자율지원
- 지역정착지원형(기존 1유형):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1년)
○ 지원대상자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지역 거주
○ 주관기관(부처) :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료: 행정안전부(2024), 2024년 사업지침서.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우선 청년일자리(청년인턴) 지원사업의 경우, 몸 담고 있는 조직이 있어야 사업지원이 가능했다. 처음 농촌에서 '일'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 조직이 없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면 수혜받는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협업 중인 사람들과 업무환경에 만족하지만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할 경우 업무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사업은 괜찮지만 지역정착이나 지역에 보탬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었고 단발성 지원사업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사업장에 있는 2인의 직원교육과 2명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받아서 좋은 사업이었지만 단기성 사업에 그쳤다. 이미 고용했던 청년이 다시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여 지원기준과 지원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원사업을 통해 월급을 받다보니 수혜자 입장에서 안주하게 되고 지원사업(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 거취가 고민되기 시작한다. 시간제 형식으로 최소한 생계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하되 지역에 내려오는 청년들은 '9-6'와 같은 정규직 일자리를 생각하고 오지는 않으므로 정착하기 전까지 단기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하는 일이나 목표가 있어서 내려오는 사람도 많아서 기본 생계가 된다면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인턴 1명을 뽑아서 지원해 준 적이 있으나 일괄 모집, 채용, 파견 순으로 진행, 시급 1만 원, 주 5일제 근무였다. 그러나 근무태만인 자, 근로 의욕이 없는 자 등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에서 인력을 일괄배치하는 바람에 원하는 인력, 기본지식이 있는 인력 배치가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파견처의 상황을 밀접하게 고려한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을이장이 있는 한 마을을 기준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마을주민에게만 오롯이 맡기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마을에 관심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역할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활동비,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였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지원보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투자하고, 공간지원 등 기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목적 :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에는 활력 불어넣기
- 사업내용
 - 지원금: 3년간(2023~2025년) 대상지역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지원
 - 지역 탐색, 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자 : 청년단체,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 청년단체, 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 주관기관(부처) :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료: 행정안전부(2023),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표 4-6〉 충청남도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2024년 기준)

선정연도	지역	청년마을	운영	주제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주)자이언트 (김해진 공동체장)	• 나만의 삶을 기술하다 - 소곡주, 모시를 활용한 상품 개발 -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서천만의 위케이션 상품 개발(청년 귀촌,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콘텐츠, 지역문화자원)
2021년	충남 공주	자유도	주식회사 퍼즐랩 (권오상 대표)	• 공주에서 청년의 삶을 짓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 구축 - 지역 자원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기획 - 공주만의 위케이션 상품 개발
	충남 청양	로컬몬스터	로컬몬스터	• 작은 청년기업들이 연대하여 미래를 만들다! - 지역청년 꿈 실현 프로젝트 지원 - 청년이 중심이 되는 블렌딩 문화 형성 - 청춘거리 위케이션 공간 운영
2022년	충남 아산	DOGO온천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최낙원 대표)	• DO 시도하고! GO 살아보고! - 식물을 주제로 도고만의 도농 라이프 구축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고온천장 진행 - 유휴공간 조성을 통해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작업장이나 오피스 공유하면서 독립적인 활동, 10개의 청년기업 유입 및 5개 코워킹 기반시설 조성 목표)
	충남 태안	오락발전소	(주)5락발전소 (홍세환 대표)	• 미래를 움직이는 총전의 시공간 예술인 축제 마을 - 태안의 융복합축제 기획 - 예술살이 듀얼라이프 프로그램 - 로컬 엔터테인먼트 예술 창업
2023년	충남 홍성	집단지성	초록코끼리 (김만이 대표)	• 성장과 가능성의 농촌을 만들어갈 농촌형 스타트업 빌리지 - 농업, 식품, 콘텐츠별 선배 스타트업 멘토링 및 창업(조양문 등 지역의 자원과 콘텐츠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창업가와 브랜더들이 모인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계획)
	충남 예산	케미스테이	(주)잇는 연구소 (박정수 대표)	• 술기로운 술로우푸드 술술해유 - 재래시장 등 구도심 투어 개발, 로컬 편집숍 운영 등(예산시장까지 거리에 카페, 공방, 서점, 멀티숍, 소규모 브랜드 등 유치)

자료: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2.07.), '로컬이 미래' 주제로 2022년 청년마을 성과보고회 개최.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4.10.),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마을'.
3. 대전일보(2024.03.27.), 충남 7개 청년마을 대표, '청년 정책' 위해 한 자리.
(<https://v.daum.net/v/20240327164422447>, 검색일자 : 2024.10.02.)

③ 농식품부의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 목적 : 농촌지역 밀착, 수요맞춤형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혁신성장 기반 마련, 농촌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인큐베이팅 지원
- 사업내용 : 읍면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창업·취업 연계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 지원,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활동가)에게 체류비, 활동비 지원
 - 활동가 1인당 월 200만 원 수준의 체류비, 활동비(20% 이하 범위 내 회의비, 홍보비, 기타 비용 사용 가능)
 ○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
 ○ 주관기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농식품부의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이나 OO군의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적 기반사업(청년활동가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되어 정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지속가능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주 4일, 4시간 시간당 2만 원 활동비 지급 조건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보장되어 정착을 결심할 수 있었고 주기적인 활동가 모임을 통해 지역의 다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고도 하였다.

활동가들이 활동비를 받는 만큼 지역문제에 발빠르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며 청년들을 동네와 연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활동들은 비공식적이고 관계가 맺어져 있어 돈으로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활동이라는 단어 외에 참여, 기여, 기회 부여와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중앙부처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예산 낭비라고 판단해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으나 지역에 처음 정착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정책사업에서 인건비성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인건비성 지원이 불가능한 점도 있지만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았다.

청양군은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적 기반사업(청년활동가 사업)은 농촌마을에 외부 청년들이 들어와 농촌마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취지로 청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가 아닌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시급이 높았고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였다. 겸업이 가능했고 소속된 활동가가 10명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고 참여 인원의 50%가 현재까지 지역에 남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청년과 농촌마을 자치조직이 연계하여 일주일에 3회(4시간씩) 활동하고 10개 조직에서 각 10명 청년에게 월 22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24년 일몰되었다.

④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목적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소득이 적은 초기 부담과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 경력에 따라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 지원금은 청년농업희망카드로 제공되어 필요한 경영비와 생활비로 사용
- 창업자금 융자 : 최대 5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가능, 대출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방식으로 유리한 조건 제공. 지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및 묘목, 농기계 구입 등으로 사용
○ 지원대상자 : 만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 경력 3년 이하인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기존 경영자
○ 주관기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줄여서 청창농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농촌영역 정책에도 이와 유사한 ‘귀촌청년 정착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3년)은 청년농업인 개인의 작물탐색과 재배과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정착과 지역 탐색 기회가 주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사업이지만 의무영농기간 6년(3년 + 사업비 수혜 후 3년) 동안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즉, 농업은 당장 수익을 발생하기 어렵고 수입 산출이 어려워 겸업이 불가피한데 파트타임 일자리 갖는 것을 금지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4대 보험 직장가입자는 안 되는 점, 농촌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 등 서류를 요구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착과 유지를 위한 정책은 없는 만큼 이와 유사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고 귀농 청년만이 아닌 귀촌 청년에 대한 사업지원 확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현재 농업(귀농) 영역에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지만 농촌에 청년유입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귀촌한 청년에게도 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창농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충남은 귀촌을 선호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촌 청년에 대한 정책 투자가 거의 없다.

영농후계자가 아니거나 서울 토박이가 농촌에 내려올 경우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을 경험해 본다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가질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농촌 지역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지 않았다. 앞으로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을에 정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후 다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입정책이 있다면 최소 3년은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보건복지부의 지역 돌봄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지역돌봄 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으로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선뜻 일자리만 보고 청년이 봉사정신을 갖고 지역에 유입되기에 한계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3자의 원초적,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일이 필요함에도 일자리로 매칭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돌봄활동(노-노 케어)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2. 지방정부(광역시) 정책과 사업

먼저 충청남도의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본예산은 10조 8,109억 원, 이 중 청년과 관련한 사업은 연간 123개 사업에 총 3,5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9개 실과부서가 있는데 27개 부서, 약 40% 부서가 청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농촌 분야는 이 중 2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 시군의 청년 관련 정책 178개 사업, 연간 338.8억 원 규모를 추가하면 사업 개수와 예산규모는 더 커진다.

사업은 크게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중 일자리 분야에 45개 사업, 1,978억 원을 투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 순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 사업에 총 2,328.9억 원을 투자

(64.7%)하고 나머지 119개 사업에 총 1,268.1억 원을 투자(35.3%)하는 구조이다.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구조이다(〈표 4-7〉 참고).

예산규모가 큰 순위로 1위는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1,114.5억 원), 2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500억 원, 반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53억 원), 3위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414.4억 원), 4위는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3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충청남도의 청년 관련 사업 현황(2024년 기준)

분야	사업 개수(개) (비중 %)	사업 예산 (백만 원) (비중 %)	주요 사업(예산규모 큰 순위, 백만 원)
일자리	45 (37%)	197,881 (55%)	1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111,450) 2위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30,000) 3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9,381)
주거	12 (10%)	77,813 (22%)	1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50,000) 2위 빈집 리모델링 청년 임대주택 공급(7,100) 3위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5,300)
복지문화	30 (24%)	70,346 (19%)	1위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41,442) 2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7,890) 3위 충남e-스포츠 메카 조성 및 디지털.게임기업 육성(5,873)
교육	22 (18%)	11,377 (3%)	1위 인재육성사업 추진(2,893) 2위 SW중심대학 지원(2,406) 3위 ICT이노베이션 OO 스퀘어 운영(2,318)
참여권리	14 (11%)	2,380 (1%)	1위 충남청년센터 운영(340) 2위 도민리포터(청년 분야) 운영(250) 3위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230) 4위 청년농 지원사업 홍보(210)
합계 (비중 %)	123 (100%)	359,798 (100%)	

자료: 충청남도(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중 2024년 시행계획.

주 : 충청남도 청년 관련 세부사업 목록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① 서울특별시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여 개별 기업의 성장의지 독려 및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 : 3년간 개별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화하여 매년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차등지급
-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등 고려,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 주관기관(부처) : 서울특별시

자료: 서울특별시(2024), 2024년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공고문.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서울특별시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으로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년~5년 동안의 사회성과를 수치로 계산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원금 목적이 공익기능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업의 존재 자체에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소한 활동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현재는 무료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SK에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인 SPC사업 준비 중이나 사회적기업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정부 역할과 재원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고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과 이행을 위한 재원 요구가 필요하다고 도 보았다.

② 서울특별시의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별의별 이주 ○○프로젝트”

- 목적 : 청년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탐색할 수 있는 이주 경험 프로그램으로 해보고 싶었던 일과 원하는 삶의 방식을 실험해보는 2주간의 이주(移住). 옥천, 충천, 홍성, 영광, 변산 각 지역에서 경험해 보는 다섯모양의 일과 삶
- 사업내용 : 2주간 기간 동안 숙박, 1일 1식, 여행자 보험비,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옥천에서 기자로 살아보기
- 춘천에서 돌봄교사로 살아보기
- 홍성에서 농부로 살아보기
- 영광에서 사회복지사로 살아보기
- 변산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보기
- 지원대상자 : 청년(만19세~39세) 누구나
- 주관기관(부처) : 서울시 청년허브

자료: 서울특별시(2023), 2023년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별의별 이주 ○○ 공고문.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별의별 이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이주농부 프로그램의 경우 인적 네트워킹을 원했지

만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원받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 의지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의 이주농부 프로그램은 농촌활동(일명 농활)같은 경험을 통해 마을주민과의 관계 맺어보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마을의 활력과 마을의 청년유입이 중요한 화두인데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았다.

③ 충청남도의 창업·창직 지원사업

- 목적 :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청년 창업·창직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청년 활동 기반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단계별·기업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 주관기관(부처)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자료: 충청남도(2024), 2024년 충청남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고문.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충청남도의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이다. 창업지원정책의 경우 신박한 아이템만 있으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지원을 유도하였다. 개인창업자로 지원사업 받으니 내 사업에만 사업비를 사용하고, 사업지원 종료 후 구축해 놓은 관계망이 없으니 생존율이 떨어져 종료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비 지원을 받는 이와 받지 않는 이로 나뉘어 배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농촌 지역사회 관점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개인이나 면 단위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읍내 이상의 지역에서만 지원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다. 창업하자마자 돈을 벌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일은 있지만 그에 대한 보수가 확실치 않기에 지역에 정착하는 3년 정도 동안에 생계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단, 정책의 도움을 받는 만큼 확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보았다.

④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

- 목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을 실무교육 및 고용하여 지역 정착 유도
- 사업내용 : 인건비(1인 1년 22,500천 원), 교육비(1인 최대 2,000천 원)
- 지원대상자 : 만 19~39세 취업준비생
- 주관기관(부처) : 충청남도

자료: 충남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web/main/main>, 검색일자 : 2024.10.02.)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진입했으나 사업이 일몰되면서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사업 일몰이 아닌 개선점을 찾아 지원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아 불안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충청남도의 “시민활동발굴육성 공익에 진심 사업 : 공익씨앗 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등”

- 목적 :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도민들의 공익활동 모임과 단체를 위한 공익활동가 발굴 및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공익씨앗
 - 공익수다회 : 공익활동 시작/관심 모임 지원(5만 원*60개팀)
 - 공익실험실 : 일반도민/신규단체 공익활동 지원(300만 원 이내*20개팀)
 - 공익놀이터 :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200만 원 이내*5개팀)
- 사업내용 : 공익부리
 - 공익단체의 도민 대상 프로젝트/캠페인 등 지원(800만 원 이내*5개팀)
- 사업내용 : 공익안녕
 - 개인안녕 : 공익단체 활동가 성장지원(50만 원 이내*20명)
 - 조직안녕 : 공익단체 성장지원(200만 원 이내*20개소)
- 사업내용 : 공익활동가 육성
 - 청년-시민사회단체간 1:1 매칭을 통해 공익활동 체험기회 제공,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공동교육 및 워크숍 진행, 인건비 지급(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자 : 충남 도민, 공익단체, 청(소)년, 만 39세 미만 충남 거주 청년, 충남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주관기관(부처)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자료: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시민활동발굴육성 공익에 진심 사업(공익씨앗 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등)’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으로는 공익씨앗 지원사업의 경우, 실행했던 치유라운드테이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또래 청년의 집단상담과 커뮤니티 조성했던 일이 보람은 있었지만 인건비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것

을 가장 큰 한계점으로 꼽았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의 경우, 마을단위나 주민자치회에서 지원받아서 권역단위 마을사무장 역할하는 청년을 코디네이터로 키우는 방식인데 인건비를 2년 간 지원하는 장점이 있어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2016년 개소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9년의 여정을 마치고 2024년 12월까지만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사업진행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⑥ 충남도립대학생의 각종 혜택 및 지원사업

○ 충남도립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기숙사비 최대 8학기분 지원(1학기당 500,000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 지원대상자 : 기숙사를 이용하며, 당해연도 6월 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생
· 주관기관(부처) : 청양읍사무소 및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 충남도립대 전입대학생 축하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10만 원(최초 1회에 한함), 기숙사비 지원금 중복지원 안 됨.
· 지원대상자 : 전입 대학생(군내 대학에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 주관기관(부처) : 청양읍·면사무소
○ 충남도립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축하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30만 원(전입 후 6개월마다 유지 시 10만 원/최대 3회), 기숙사비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전입 대학생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주관기관(부처) : 청양읍사무소 및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 충남도립대학생 인턴 채용 사업(출처 : 충남청년포털)
· 목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도립대학교 학생에게 직장체험 기회제공
· 사업내용 : 방학기간 인턴체험기회 제공(동계22명, 하계16명)
· 지원대상자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충남도립대학교 대학생
· 주관기관(부처) : 청양군
자료: 1. 충남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web/main/main , 검색일자 : 2024.10.02.)
2. 청양군청 누리집(https://www.cheongyang.go.kr/kor.do , 검색일자 : 2024.10.02.)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충남도립대학생의 각종 혜택 및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학교로부터 기숙사비 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받았지만 단발성 지원이라 아쉬움이 있고 후속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기숙사비를 지원받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학교 및 행정의 사후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사업 덕분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기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았다.

⑦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 목적 : 도내 사회적농장과 연계한 청년농업인 영농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사회적농장에 청년연수생을 모집하여 매달 80만 원 지원
- 지원대상자 : 만 19세 ~ 39세
- 주관기관(부처) : 충청남도

자료: 충남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web/main/main>, 검색일자 : 2024.10.02.)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대체로 만족하였다. 마을돌봄과 농사일을 배우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마을돌봄을 통해 어르신프로그램을 경험한 것 또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농촌 지역사회를 제대로 경험하고 청년이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행복농장은 농식품부의 농촌돌봄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중이다(2인 인건비, 2025년까지 사업비 지원 예정). 대전충남지역의 21개 사회적농장 중 거점농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른 사업들의 경우 강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책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한 사업이라고 보았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역시 주 4일 8시간 교육, 실습 후 월 80만 원을 지원받는 게 생활 균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비용의 적절성과 비용 지원 방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⑧ 그 외 충청남도의 친환경청년농부지원사업,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첫째,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친환경청년농부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

협은 시설하우스를 지어주는 대신 5년 동안 의무영농을 해야 하고, 이후 10년 동안 시설하우스 농업만 지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수혜자의 경험은 10팀을 선발하나 실제 수혜자는 1팀 정도이고 직업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4대 보험 가입자(주 2-3일 근무지)라서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 청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역시 적당한 정주공간을 찾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외부 청년을 지역으로 데려오려면 주택 외에 주변 정주여건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봤다. 공유공간 지원(주거, 오피스 공간 등)도 필요하고 실제 거주지를 지역으로 이전하기 까지는 유예기간 2~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중 기름보일러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초기 유입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지원과 연동되지 않아서 개인별 만족도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정착을 위해서 마음먹기까지 1년 정도 탐색 기간이 필요하고 내가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되었는지(1년), 혹은 마을주민과 융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5년 이상)에 따라 '완전한 정착'이라고 보았다. 현재 귀촌자에게 주는 주거비용 대출 지원(4.5%, 2년간 이자지원)이 좋다고 보았다.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있으면 1%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농촌지역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도 내포신도시라서 수혜 가능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밀하게 사업지역 조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사업, 마을기업 청년 인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 증빙이 까다로운 문제, 지방정부와 소통문제, 집행하기 편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반면, 충남문화예술진흥원에 지원하는 청년 관련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불가

하지만 규제를 최소화하여 마을주민의 물품지원 자율화, 정량적 평가가 없는 사업으로 매우 좋다고 평가하였다.

2.3. 지방정부(기초) 정책과 사업

① 청양군의 마을조사단(청년자원조사단) 사업

<p>○ 사업내용 : 조사단 오리엔테이션 및 집중교육, 발대식, 마을 내 활용 가능한 빈집 조사</p> <p>- 청양군 내 청년으로 구성, 농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역사와 고유 자원들을 테마별 조사하는 활동</p> <p>- 2022년 조사테마는 '빈집'(건물의 위치 및 관리현황, 활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와 관련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DB 구축)</p> <p>○ 지원대상자 : 청년(만19세~45세),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가</p> <p>○ 주관기관(부처) :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p> <p>자료: 청양군 청년마을조사단 조사원 모집공고문(2022).</p>
--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청양군의 마을조사단(청년자원조사단)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은 청년조사단을 모집하여 마을로 보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결과물까지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애로사항은 마을주민에게 유의미한 내용(정량화, 수치화된 내용)으로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씨앗이 되는 활동이라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체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았다.

청양군은 청년들이 초기 정착과정에 경제적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기별 청년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1단계로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도출하였다.

② 그 외 지자체 청년지원사업

현장 집담회를 통해 들은 지자체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경험으로는 청년 유입 관점에서 청양군의 어찌다로컬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단, 단기 지원, 1회성 지원보다는 적은 비용이라도 꾸준한 장기

지원이 필요하고 한 번에 큰 사업비 지원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하였다(예. 청양 어찌다로컬 투어사업은 지자체 지원으로 참가비 무료). 1년 단기 지원사업으로 성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농·어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었다. 예산군 차동리영농조합법인은 마을 중심의 돌봄조직을 양성해 마을주민조직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하였다. 노인건강돌봄 지도사 양성교육을 받은 전문 돌봄조직이 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주 1회 방문하여 일상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또한 충남도내 4개 의료원(홍성, 서산, 천안, 공주)은 거점기관 지역의 마을주민과 돌봄 대상자에게 치매 예방 교육, 우울 예방 교육 등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은 저출생·초고령화 농촌사회가 되면서 복지 영역 예산이 필요해질 것이고 수혜성 지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지원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4. 전반적인 한계점과 애로사항

첫째, 각자도생으로 개별지원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 정책사업의 목표가 개인에게만 집중되고 종료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1:1 개별지원이고 이후의 모든 일들은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업 이후 끝까지 농촌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청년을 보기 어려울 만큼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별로 지원을 받게 되면 농촌 지역사회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고 하였다.

둘째, 청년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을 주지 않는 문

제, 농촌 지역사회를 제대로 알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 정책과 사업이 농촌에 진입하려는 청년에게 오히려 장벽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정책과 사업이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 청년의 역할보다는 정량 성과에 치중한 사업설계, 사람과 사람이 사는 환경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정량 성과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으니 조기 종료되거나 현안에서 밀려난다는 기류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청년이 지역에 남게 되든, 떠나게 되든 청년 정책이 농촌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보았다. 청년 정책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 즉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정책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지역에 청년들이 꼭 필요할까? 지역에 꼭 필요한 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닐까? 원주민이 청년 유입을 반길까? 원주민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까? 중간지원조직이나 기관들이 사업 수행할 사람이 필요해서 청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였다.

셋째,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들 자신’의 욕구와 농촌 지역의 욕구가 상충되는데 청년일자리 정책이 그러한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싶다면 청년 창업이 우선이 아니라 청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인데 창업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리더가 없다는 아쉬움도 토로하였다.

농촌지역에 내려온 청년 중 일부는 안정적인 일(4대 보험, 월급)과 대안적인 일(불안정적인 일) 사이에서 심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공익적인 일, 사회적인 일, 대안적인 일들을 하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생계 걱정이 우선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내려온 청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반면, 마을주민은 청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 힘쓰는 노동력 일부로 볼 때 ‘여전히 마을로 유입하는 청년의 욕구와 마을주민 간 욕구가 맞을 수 있는가?’

라는 회의감,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넷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문제, 사업조건 중 마을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보조사업에 치여서 살 것 같다는 의견,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에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업조건 및 기준 중 마을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아서 현실과 이상 간 괴리가 있는 지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일자리와 관련한 보조사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조건으로 내건 사업이 많은데 현실과 맞지 않았다.

그 외에도 예산 소진을 위해 갑자기 시행되는 사업들의 문제, 그 활동을 증빙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본질을 가리게 되는 문제, 회계연도 기준 내에서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 영농활동 조건을 걸어야만 농업 사업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문제⁷⁾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사업성과와 보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청년 유입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규제와 범위의 한계로 언제나 간극은 존재하게 마련이고 행정과 시행자 간극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숙제인데 사업선정 후 행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행정 담당자에 따라 사업의 정보 안내나 친밀도가 달라지는데 농촌지역에 유입 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관리는 주로 지방정부(시군)가 하는데 공무원들의 순환발령 인사문제로 인하여 중간에 담당자가 사업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중간지원조직과 갑질 관계로 변

7) 청년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을 예로 들면, 농업은 초기 많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소득수준이 낮아서 겸업할 수밖에 없는데 자격조건에서 겸업은 불허하고 있어서 개선 필요하다.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청년정책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청양군의 경우 우수한 청년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군수,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등이 공적 차원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때문이었다.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그동안 지적해 온 행정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청년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이라 일컬어지는 공동체들이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행정, 중간지원조직, 청년 당사자 등)가 더 활발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요약

중앙정부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중 청년들이 경험했던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농식품부의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과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이 있다(〈표 4-8〉 참고).

광역시자체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중 청년들이 경험했던 사례는 서울특별시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별의별 이주 ○○프로젝트”, 넥스트로컬(지역상생청년사업지원사업), 충청남도의 창업·창직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 시민활동발굴육성 공익에 진심 사업(공익씨앗 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충남도립대학생의 각종 혜택 및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지원사업,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표 4-8〉 참고).

기초지자체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중 청년들이 경험했던 사례는 중앙정부 사업 실행을 포함하여 충남 청양군의 마을조사단(청년자원조사단) 사업, 로컬몬스터(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충북 괴산군의 (주)뫼하농(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전북 완주군의 다음타운(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전북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 전북 무주군의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이 있다(〈표 4-8〉 참고).

〈표 4-8〉 청년들이 경험했던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 사례

지원부처(기관)	사업명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법인 기업의 경우, 인건비(1명) 지원, 2년 동안 180만 원/월 3년간(2023~2025년) 대상지역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농식품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활동가 1인당 월 200만 원 수준의 체류비, 활동비(20% 이하 범위 내 회의비, 홍보비, 기타 비용 사용 가능)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 경력에 따라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 최대 3년간 지급

지원부처(기관)	사업명	주요 내용
		창업자금 융자 : 최대 5억 원까지 창업자금 융자 가능, 대출금 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방식으로 유리한 조건 제공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3년 간 개별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 화폐화하여 매년 측정 측정결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차등 지급
서울특별시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별의별 이주 ○○프로젝트”	2주간 기간 동안 숙박, 1일 1식, 여행자 보험비,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지역상생청년창업 지원사업)	서울의 청년 창업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과 지역 내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
충청남도	창업·창직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단계별·기업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청년정책(live in CN) 지원사업	인건비(1인 1년 22,500천 원), 교육비(1인 최대 2,000천 원)
충청남도	시민활동발굴육성 공익에 진심 사업 : 공익씨앗 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청년-시민사회단체간 1:1 매칭을 통해 공익활동 체험기회 제공,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공동교육 및 워크숍 진행, 인건비 지급(최대 2년간 지원)
충청남도	충남도립대학생의 각종 혜택 및 지원사업	기숙사비 지원 사업 전입대학생 축하금 지원 사업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축하금 지원 사업 인턴 채용 사업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사회적농장에 청년연수생을 모집하여 매달 80만 원 지원
충청남도	친환경청년농부지원사업,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친환경농업을 하는 청년에게 시설자금 지원
충남 청양군	마을조사단(청년지원조사단) 사업	청양군 내 청년으로 구성, 농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역사와 고유 자원들을 테마별 조사하는 활동 지원
충남 청양군	로컬몬스터(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로컬의 사람, 기업, 자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기업
충북 괴산군	(주)뽕하농(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두달살이 프로젝트와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외부 인재를 영입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 마을단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도시민 인재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마을살리기' 프로그램의 일환
전북 진안군	마을간사제도	외부 인재를 영입해 지역역량 강화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 마을단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목적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도시민 인재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마을살리기' 프로그램의 일환
전북 무주군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농촌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의 농촌 공동체의 실태 파악,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실행 지원단은 결성 초기, 과거 전라북도에서 진행했던 마을조사 사업과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모델 벤치마킹하여 사업 기획

주 : 저자 작성.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농촌 지역사회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농촌 지역사회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청년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농촌에서 주체로서 활동하는 기반, 그들의 역할을 고려한 정책이 중요한데 단순히 보조사업을 받는 정책대상자 시각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많은 제약조건과 지원 대상 기준, 자격조건은 보조사업 의존도를 높이고 농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국민의 기회를 증발시키는 현실, 칸막이 보조사업이라는 현실 등은 한계가 명확하다. 정책방식과 정책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반농반X의 삶, 도시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온 만큼 유연한 방식의 일자리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비 책정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인건비 수준이 일자리 선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한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 보상이 필요하다. 단발성, 1회성 사업이 아닌, 금액이 적더라도 장기간 실행하는 사업으로 정책에 신뢰를 줘야 할 것이다. 인건비나 활동비 수준은 최소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체류, 정착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만큼 지원기간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최소 3년~5년 기간 동안 지원을 위한 규모 확대, 주 5일 근무제나 '9-6' 전일 근무제 형태가 아닌 다양한 근무시간, 근로형태, 근로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의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 청년이나 마을주민 원하는 영역은 다양한 데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 청년정책과 사업은 주로 농업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외에도 주거를 포함한 정주여건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청년이 농촌 지역사회에 유입하여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지역에서 수용하여 사업실행이 가능한 현장의 지원조직도 필요하지만 정책과 사업에서는 이를 고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보조사업을 받은 청년들이 오롯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방식은 이들의 도전을 머뭇거리게 한다.

5

결론: 농촌 청년정책의 전환방향제안

1. 종합 요약

첫째,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청년 그룹은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창업 포함), 일할 거리, 주거를 포함한 정주, 교육, 농업, 관광, 홍보와 정보전달, 교통, 각종 문화여가 편의시설, 의료 및 돌봄,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유희공간관리, 네트워크와 조직, 마을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분화하여 진단하였다. 이에 반해, 마을주민 그룹은 일할 거리, 농업, 마을공동체 활동 등 영역에서 진단하였고 청년 그룹에 비해서 다양하지 않았다.

둘째, 농촌 지역사회의 일자리 정책 수요 및 조건을 살펴본 결과, 청년 그룹은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창업 포함), 일할 거리, 주거를 포함한 정주, 농업, 관광, 홍보와 정보전달, 각종 문화여가 편의시설, 의료 및 돌봄, 유희공간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영역의 일자리 수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마을주민 그룹은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창업 포함), 주거를 포함한 정

주, 교육, 농업, 홍보와 정보전달, 각종 문화·여가 편의시설, 의료 및 돌봄,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유희공간관리, 네트워크와 조직, 마을공동체 활동 등 영역의 일자리 수요가 있다고 하였다.

차이점은 교육 영역에서 청년그룹은 주로 청소년층에 집중한 반면, 마을주민 그룹은 노년층에 집중하여 진단하였다. 농업 영역에서 청년 그룹은 가공 및 유통 영역에 집중한 반면, 마을주민 그룹은 생산 영역에 집중하여 진단하였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공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들 중 수혜경험이 있는 사업은 주로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창업 포함), 일할 거리, 주거를 포함한 정주, 농업, 의료 및 돌봄, 유희공간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영역에 국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었다. 즉, 일자리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농촌 지역사회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 사업비 책정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실질적으로 중요한 점,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의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점, 청년이 농촌 지역사회에 유입하여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지역에서 수용하여 사업실행이 가능한 현장의 지원조직도 필요하지만 정책과 사업에서는 이를 고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청년과 마을주민이 바라본 농촌 지역사회 여건, 정책수요 현황, 정책공급 현황은 일치하는 지점과 불일치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5-1〉 참고).

〈표 5-1〉 제2장, 제3장, 제4장 요약 : 청년과 마을주민이 바라본 여건, 정책수요, 정책공급 현황

구분 (일거리 영역)	여건 진단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여건 진단 (청년 입장)	여건 진단 (주민 입장)	수요(청년 입장) / 미래를 생각	수요(주민 입장) / 현재를 생각	인지하는 정책,사업 (청년 입장)	정책 방향 (연구진 제안)
일반적인 상용직 일자리(창업 포함)					(5개 사업)	
일할 거리					(3개 사업)	
주거를 포함한 정주					(2개 사업)	
교육	(청소년층에 집중)			(노인층에 집중)		
농업			(가공 및 유통 영역에 집중)	(생산 영역에 집중)	(3개 사업)	
관광						
홍보와 정보전달						
교통						
각종 문화여가 편의시설						
의료 및 돌봄					(2개 사업)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유희공간관리					(1개 사업)	
네트워크와 조직						
마을공동체 활동					(2개 사업)	

주 : 1. 현장 집담회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음영색 부분은 현장 집담회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2. 정책 전환 방향⁸⁾

2.1. 정책영역의 확장, 집행방식의 변화

첫째, 청년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특수성, 저밀도 경제 체계, 마을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공동체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농촌 사회는 저밀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서비스가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익숙한 시장서비스 제공 방식의 창업만을 시도한다. 이는 정부 지원 이후 자생력을 가지기 힘들어 정책 실패로 연결되므로 저밀도 경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밀도 경제 체계에서 농촌 재생의 방향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나 청년들은 공동체 활동 경험이 부족하여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서비스에 비해서 현재 내가 하는 영상제작 활동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과연 나의 영상제작 활동이 농촌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이 있다. 이 청년에게 농촌 지역사회를 고민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었다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출향인이 영상편지를 촬영해서 마을 어르신에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진즉에 했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욕구와 나의 특기 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 농촌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 내가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 관련 정책의 홍수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단년도 보조사업이 아닌, 농업 영역에만 국한된 지원사업이 아닌, 다양성과 종합성을 지향해야 한다.

8) 정책 전환 방향은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로부터 자문의견을 반영하였다.

저출생, 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이 가장 필요하다. 한 사회는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은데 다양한 일자리 선택의 기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그 사회의 확장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촌 지역사회 청년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는 다양한 일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는 점 또한 현실이다. 청년 정책은 취업, 창업, 정주와 같은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정책,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연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 안에서도 지역마다 해결하는 과정이 다른데 OO군의 경우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사례, OO군의 경우 행정과 정책의 지원으로 20대 초반 청년 증가함에 따라 이후 생애주기에 따른 연결성 있는 정책,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구체성을 고민하는 사례도 있다.

청년의 농촌 살아가기 방식에 특정목적을 달지 말고 지역살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통합적 지원방식으로 전환, 다양한 커뮤니티 가입 경험과 지역탐색 기회 제공, 청년 네트워크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다양화, 지속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사업, 마을자체의 수익사업(예. 이동점빵, 가게, 식당 등), 마을단위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마을단위별·공동집단별 청년육성도 가능하다.

수치로 증빙하기 어렵지만 정착에 성공한 소수의 청년을 보고 지역의 가능성을 느껴서 정착을 고려하거나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에 정착을 시작한 청년이 지원받던 사업 및 인건비나 거주지가 갑자기 사라져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항목별 지원에서 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적·사회적 정책의 전달체계 혹은 정책 유통경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농촌으로 진입한 청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그 다양한 요구를

하나씩 사업으로 만들다 보니 사업갯수만 많아진다. 그럼에도 사업이 부족하다는 불만은 차고 넘친다. 물론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받았지만 하반기가 되면 다음 해를 걱정하게 된다. 부처별 다양한 사업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반면, 사업만 따라다니는 청년도 등장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농업·농촌 진입에는 일정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정책은 진입 이후부터 사업비 지원이 시작된다. 예를 들면, 친환경청년농부육성사업은 농업경영체를 확보한 이후, 그리고 농촌 청년이 주소를 이전한 이후이다. 농업·농촌으로 진입을 결심하기 이전 단계인 경험치를 높여야 하는데 초기 단계의 사업 부실은 최종 단계에서 사업 성과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다양성과 종합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통합형 사업, 패키지형 사업, 종합적인 사업으로 재편하여 한 법인조직이 여러 정책사업의 지원과 수혜를 받더라도 집행과 정산에서 풀링(Pooling)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조직이 2~3개 사업을 연속으로 받으면 여러 사업비가 동일 조직에 중복 투자한다는 행정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정치인 입장에서 반발과 견제가 심하다.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현장지원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지역 내 조직을 분화하고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만 아니라면 한 법인이 여러 정책사업을 지원받고 풀링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수혜받는 입장에서 풀링이 아닌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 측에서 먼저 사업을 통합실행하여 풀링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칸막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정산은 어렵기 때문에 통합형 사업, 패키지형 사업, 종합적인 사업으로 가야 한다.

다섯째, ‘활동비, 인건비성 지원,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안정과 주거안정 지원은 통합해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청년 정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리브투게더 확대, 귀농귀촌인의 집과 같이 청년주거를 위한 저리대출 등이 그것이지만 단편적인 개별사업으로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청년이 흔히 솔로일 것을 가정하고 정책을 설계하지만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지역에 정착하려는 유인, 동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청년지원사업은 유효하지 않는다.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월세 보전과 하루에 한끼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임금조건, 최소한의 생계수준 보전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중요했다면, 결혼 후에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가 관건일 것이다. 일자리와 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 지역사회 일거리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2. 농촌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첫째, 청년은 농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서로에게 유의미한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청년을 농촌에 유입하는 전략과 사업의 실행공간, 지원공간은 대도시권으로 설정한다. 즉, 새로운 인구 유입 관점에서 농촌형 지자체에 있는 청년 대상의 지원사업보다 도시형 지자체에 있는 청년 대상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이들 지자체 간 많은 협업을 했으면 한다.

대도시권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장소),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집중되는 곳(모임), 청년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관(예. 공익 성격을 가진 민간조직, 재단법인, 사단법인 조직) 등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 지역살이, 지역유학, 지역체험, 농촌 지역사회 경험 공유 집담회 등)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이나 조직에 청년들이 농촌,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단, 보조사업이라는

틀로 성과달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 간섭은 지양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도시 출신은 물론 농촌 출신조차도 청(소)년 시기에 농업 경험은 부족하다. 농업 경험이 부족함에도 몇달 간의 기술 교육을 통해 창농을 하고 정부 지원금과 융자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실패할 경우 정책 실패만이 아니라 신용불량 청년농업인,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게 된다. 축적된 자본이 없는 청년에게 자본 투자가 필수인 전업농을 요구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마을주민의 욕구와 청년의 욕구를 일치시키는 지점에 있는 일자리를 발굴한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 = 인생에서 보람이 있는 일 =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가라는 고민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로와 노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일의 근본적 개념과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되 나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다. 정책개입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자리 범위는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적 영역 서비스이다.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인데 미쳐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이다. 처음에는 대부분 내 욕구 중심, 내 중심적인 일로 시작하게 되지만 이것이 어느샌가 지역에 필요한 일로 연결되고 다시 사람을 생각한 문제로 확장되는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파악하여 유사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연결하고 가급적 위탁사업 방식으로 전환한다.

생각보다 다양한 능력, 재능, 특기, 취미가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마을에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게 할 것인지 마을 내 사람지도, 공간지도를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OO군의 AAA마을은 사람들 자격증 실태조사를 하여 인적자

원을 발굴, 마을에 이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한지 등 마을 내 공간지도를 그려본다. 특히 이런 업무를 처음 수행할 공적 조직은 지역농협, 마을조직은 청년회·부녀회·노인회·새마을회 등이 있다.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위탁이 가능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무를 찾아보고 연결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건비 지원이 핵심이라서 가능한 지원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농촌 청년정책 관련하여 위탁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부처 정책을 실행할 면 단위 조직까지 만드는 데 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런 실행조직 없이 사업별 조직을 개별로 만들어서 사업 종료 후 해산되거나 외피만 남은 사례가 많다. 농촌에서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유입을 위한 준비 조직을 만드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조직에 일괄 지원하고 조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월 1회 정도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연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타 분야 사업으로서 산림청의 그루터기 매니저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루터기 매니저 사업이란 임산물을 관리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활동가인 그루터기에게 매월 일정정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년 활동가를 통해 지역홍보 가능하여 파급력 좋다고 한다.

넷째,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 수준 책정이 중요하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4대보험을 받는다면 농촌에 유입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역에 남아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게 청년에게도, 마을 주민에게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존 보조사업 방식 개념이 아닌 일한 만큼

권리를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만이 중요하다는 취지도 아니다.

인건비 필수 요소는 일자리, 최저임금, 4대보험인데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라는 명칭보다는 참여수당, 기여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건비는 역할을 한정적이게 만들고, 연차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주5일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체계,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겸업의 구조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일, 봉사 일을 하고 싶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민망하고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편지 촬영해서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점차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된다.

기본 원리는 사업비 없이 운영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없이 운영할 수가 없는 점이다. 활동비·인건비만 지급되면 어떠한 활동도 가능할텐데 대부분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불가한 구조이므로 지출성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매일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시기별·집단별 특성에 맞는 비용 지급방법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농가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하다.

초기 정착 시 최소 2~3년 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활동수당 등과 같은 수입원이 필요하다. 정착에 따른 연차별 혜택도 효과적이고 방식은 지역상품권 지급도 좋은 아이디어다. 보통 지역에 정착하는데 최소 3년 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조건부로 1년은 OO 주소지에 있는 조건을 달아도 좋다. 부업도 가능하고, 매월 1회 정도 마을기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촌, 그리고 청년 속성을 감안한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형태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사업의 지원용도나 성격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일을 벌여도 든든한 후원이 있음에 안도하는 일자리 지원이 되어야 한다. 사업비를 마을의 공적조직이나 기관에 집중시켜서 마을 일자리로 청년 진입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참여시간은 대부분 일과시간(낮)이라서 근무시간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마을사무장(N잡러) 수요 : 전일제가 아닌 시간 근로자로 채용 필요, 마을주민도 가능, 상시근무일 경우 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마을만들기 후계자(활동가)로 양성 수요 : 정해진 마을 목표에 따라 마을활동가로 양성, 마을시설관리, 사업논의 등에 참여
- 마을사무장 초빙 수요 : 기존 마을주민보다는 전문적이고, 열정있는 외부사람을 유입,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대, 직업화된 사람과 부업화된 사람은 다르다고 느낌.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 몇 회로 업무, 마을수익을 창출하며 기본소득 제공하고자 논의

2.3. 청년을 수용할 현장지원조직 지원

첫째, 청년만을 위한 지원에서 청년을 받아 주는 마을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사업 시 이 부분을 공동체 기여 평가지표로 추가한다.

농촌, 농업이 청년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부하는 양가감정이 있다. 창농을 하는 것은 농지 확보, 유통 등에서 일단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청년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청년에게만 사업비가 집중되는 상황이 되면 선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청년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초기 목표와 정반대의 현실이 된다.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청년을 받아주는 농촌 마을, 주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을 받음으로써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청년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는 농촌 마을은 여타 마을과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농촌재생에 노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사업은 청년에게만 집중되고 마을은 봉사만 하는 구조가 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 사업과 마을 사업을 연계하여야 한다. 청년 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등이 마을 사업과 묶음으로 지원하게 되면(예. 청년 주택 사업과 기존 새뜰 사업 연계) 다른 마을 역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때 청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 기여가 성공이 되도록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공동체 기여에 대한 평가지표도 추가한다.

둘째, 사업비를 받기 위한 조직이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된 조직을 발굴한다. 이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별 성과지표로 추가한다.

사업이 먼저냐 조직구성이 먼저냐를 놓고 봤을 때, 이론 상 당연히 조직구성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이 우선순위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보편타당하고 공익적 성격의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적합하다. 농촌 지역사회에는 분명 그러한 조직이 있기에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별의별 이주00 프로젝트 사업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단기과정으로 지역을 경험해 보지 않고 바로 장기 과정으로 도입하면 지역과 청년 간 충돌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2주 정도의 과정을 광범위하게 실행하면서 장기 과정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아산송악 동네사람들, 장곡사회적협동조합, 서천 장항읍 주민자치회, 강원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사례 등이다.

그리고 현장지원조직으로 발굴가능성, 참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농촌 개발사업,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농촌공간협약, 삶의 질 계획 수립 시 마을별 청년 인구 등을 각종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을 의무화한다. 마을주민도 청년과 함께하는 경험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면마다 활동 주제가 다르고 조직 형

태는 다르지만 농촌에 있는 모든 조직이 청년이 들어와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면 농촌지역 마을들이 점차 청년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청년을 수용하고 초기에 이들을 도와줄 마을 내 현장지원조직이 필요하고 이들 조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한다.

청년을 받는 마을에게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조직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마을주민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 공익사업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혼자서 농촌 지역사회 생활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같이 버텨내줄 조직, 신뢰있는 관계인이 필요하다. 그러한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얻는 것이 정착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유입에서 정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이든, 새로 유입되는 청년이든 지역사회 문제, 우리마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도 시작된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이게 문제 아닌가? 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하지 않나? 같이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활동가 교육과 지역을 잘 아는 초기 전문 조직, 중간 세대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권한을 가진 현장지원조직이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실행가능한 역량을 가진 현장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현장지원조직 강화를 통해 협업의 느낌을 갖도록 한다. 기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에 대한 댓가가 필요하다. 이를 운영할 조직의 형태는 법적 조직 혹은 자율조직인지 마을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고 그 조직을 행정이 다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외부 전문가 3명 정도가 지역으로 와서 마을주민을 포함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하며 정관을 만들어 운영진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사람 문제이므로 사람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형태는 전북에서 제안한 생활기술학교(life skill education), 장곡의 평민마을학교, 서천의 (舊) 삶기술학교와 같은 학교의 형식을 빌리는 것을 고려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하고자 하는 것,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 지점을 발견하고 농촌 면 단위에서 청년에게 지역을 경험하게 하고 이들을 도와줄 지역 내 현장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점이다. 기존 주민 조직(이장협의회 등)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청년을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청년을 수용할 농촌지역 내 현장지원조직이 포괄하는 범위는 면 단위가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넷째, 청년 개별 지원 방식에서 조직 구성, 그리고 조직을 통한 마을 공동체 창업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창농, 창업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이러한 방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창업 이후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동시에 가진다. 준비와 시작 단계에서 농촌 지역사회 조직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 개인의 취향에 따른 창업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저밀도인 농촌에서 더군다나 주민들의 필요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업 이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족한 사회서비스들, 주민들의 필요를 모으고 이를 일거리로 전환하면서 청년들에게 제안하거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주민들과의 교류가 매우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주민자치회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모으고 청년이 원하는 일을 다양하게 경험

하면서 n잡을 통해 창업할 수 있다. 창업 초기에 지역 조직을 통해 초기 자금 편당,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지원 이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 분야의 일자리로 국한되는 제안인데 전업농민 육성과 함께 마을 농민 육성으로 전환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를 돌볼 지원조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농촌 인구의 감소만이 아니라 농촌 마을 거주 농민의 고령화로 이어진다. 규모화된 농업인은 다수가 읍내에서 생활한다. 이는 마을 공동 관리 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촌 경관의 훼손, 마을 공동체 활동의 축소에 따른 마을 소멸과 더불어 면소재지 경제의 축소, 주민을 위한 돌봄, 식당 등의 사회 서비스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재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을 통한 전업농 육성을 한 축으로 하더라도 마을에서 거주하며 마을 일을 하는 규모가 작은 농민 역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된 반농반x에서 반농반촌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초기 겸업농에서 전업농으로 전환 시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반촌과 관계된 일은 일거리 창조센터를 통해 또는 마을 활동을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농업과 농촌이 분리되지 않은 단계를 거쳐 교육 기능을 가진 농장에서 장기 교육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장의 교육비 지원 및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

2.4. 청년을 받아주는 마을 문화조성

첫째, 마을주민이 청년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 응원, 격려하는 마음, 행동, 말 등 마을 내 좋은 문화와 풍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에 청년들을 포용하는 지표를 반영하여 마을주민의 의식을 의도적으로라도 바꿔내야 한다. 청년과 원주민 간 융합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순히 산업 유치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 오

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둘째, 지원 받기 위한 결심에서 벗어나 경험을 통한 결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농업을 할 것인지, 농촌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입 초기에 농업을 경험하고 부족한 농촌 사회의 서비스를 파악하면서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초기 농업 경험은 단지 농업 기술의 전달만이 아니라 농촌의 생활방식과 부족한 서비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자본 확장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농업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농업과 사회서비스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농민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농업과 농촌이 분리되지 않은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 기능을 가진 농장의 육성(예. 농업농촌 진로 탐색을 위한 통합 실천 농장), 농업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농업 기술 전달 및 현실적 경험을 제공(예. 프로그램 경비는 현재 농림부의 사회적농업 사업과 같이 청년을 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스타일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저밀도와 고령화는 많은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정보 집합소와 청년의 집합소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마을과 청년들을 서로 연결해 가며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허브공간, 인프라 조성과는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한다.

정보가 모이고 다시 흘러나가는 공간, 정보가 오고 가는 공간, 정보의 HUB 역할을 하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 정보, 청년 정보, 일자리 정보, 교육행사 정보, 생활 정보 등 복덕방 같은 곳, 누구에겐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공간, 시장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상인이 머리를 맞대는 공간, 청년 창업을 실험하고 지원하는 공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청년들이 공인사무소에 의지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 및 탐색을 돕는 공간, 문화 기획과 창업, 상생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 지역에 내려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취·창업을 통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소개하는 등 청년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돌봄,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이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정 단체와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만 그러한 정보가 획득된다. 저밀도로 인해 시장서비스는 붕괴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이 취약해지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고 이는 추가적인 진입장벽이 된다. 저밀도 사회인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한가지 업종을 통해 생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농업을 포함한 n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은 n잡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일거리에 대한 정보 역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넷째, 청년에게 금융자본 지원에서 사회자본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의 정착율이 높은 사례는 보통 금융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자본의 풍부함이 원인이다. 승계농이나 u형 귀촌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관계망(사회 자본)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정착 가능성은 낮아진다. 진입 초기에 지역사회 관계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조직이 필요하다. 사회자본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행정단위는 면이기 때문에 우선 면 단위의 지역사회 조직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농업을 할 것인지, 농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업을 먼저 경험하고 농촌 사회를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본 역시 확대해 갈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 단체가 진행함으로써 주변의 다양한 농촌의 삶을 보여주기에 한계를 가진다. 면 단위에서 리 단위에 있는 여러 농장들과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 단체들이(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 농민상담소, 경영인연합회, 적십자봉사회 등 기존 기관 단체들) 연결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을 알려주는 청년 진입 통로(학교)로 활용된다. 지역 초중등학교와 연계한 교육부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지역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주살이, 한달살이 실행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는 여전히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청년들에겐 장벽으로 느껴지므로 이러한 장벽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틈을 만들어주고 사회서비스의 공동체적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3. 최종 사업구상 예시⁹⁾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구상 예시를 제안한다((표 5-2) 참고).

- 농촌에 들어온 청년에게 지역을 경험하게 하고 사업 지원받아서 이들을 관리해 줄 지역 내 조직 설정
- 이러한 조직 성격은 ‘일자리 = 취업 = 근로시간 기준 = 최저임금 = 인건비 지원 사업’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공식 아니라 농촌에 유입된 청년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 접근 방법, 보다 유연한 방법 적용
- 진입, 유입 단계에서 왜 농촌지역인지, 특히 삶과 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구상하는 경험, 기회 부여
- 운영 주체의 조직 형태는 농장·지원조직·네트워크 형태, 조직 성격은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방식은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청년들이 하게 될 때 이 조합이 위탁운영받는 방식
- 활동 공간범위는 농촌 지역사회, 구체적으로 면 단위 여러 활동을 총괄하는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드는 방안, 아니면 작은 조직이 여러 개 분화한 이후 연대하는 방안 구상(초기에 필요한 조직은 면 단위에서 액션을 하는 조직보다는 면 단위에서 필요한 일을 합의하고 그 일을 할 조직을 인큐베이팅할 작은 조직)
- 집행방식은 보조사업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
- 일거리 영역은 경관 및 환경, 주거, 먹거리, 노인돌봄,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
- 일거리 선정 기준 : 주민자치회와 협동조합이 의결한 공통의제
- 일하는 형태는 다양한 근무제 방식 도입(임시 일자리, 유연한 일자리, 반일 근무제, 주 3일 근무제 등), 지역에 연고가 없는 청년 우선 고용
- 지원 법률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지역농림어업협력법 등

9) 최종 사업구상 예시는 마을학회 연구소 구자인 소장,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으로부터 자문의견을 반영하였다.

〈표 5-2〉 제안하는 최종 사업구상(예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운영주체	(가칭) 행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범위 : 면 단위	협동조합 법인 형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집행방식	민간 위탁사업, 조합 직접 실행사업	시군, 읍면 주민자치회로부터 위탁업무 협약체결, 사무국 공동 풀링 운영
출자회원	면 단위 마을별 주민, 타지에 나가 있는 주민 가족, 신규 유입된 주민, 청년	최소한 의결권 확보 가능한 수준 출자나 후원, 마을별 마을발전기금으로 출자 가능
운영구조	공동사무국 (*상황에 따라 안정화단계까지 주민자치회와 공동사무국 형태로 운영)	(주민자치화 사무국과 협업), 사람과 일 연결.중개업무, DB화, 마을후계자(활동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일하는 직원	마을에 들어온 청년, 귀농, 귀촌인 마을주민 중 전문자격증 소유자 인력 활용	직접적으로 법인이 다음의 일 수행 (일하는 영역 : 사회적경제 영역, 공적 영역 서비스)
공적 자원 (정책과 사업)	각종 사업들 통합 집행	사업별 인건비, 활동비, 활동수당 등 책정
민간 자원	정책회비, 수익사업, 출자금, 법정기부금(출향인, 관계인구), 후원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하단 일부 사업은 수익사업 형태로 진행, 수익원 확보(편의시설, 유휴 공간관리 등)
일하는 영역	일할 거리	마을실태조사 관련하여 마을조사단(청양)
	주거를 포함한 정주 관련 일거리	맥가이버 집수리지원단, 튼튼집수리(청양), 주택집사, 깔끄미, 마을기사, 마을기술사, 이동빨래방 운영
	교육 관련 일거리	지역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평생교육
	농업 관련 일거리	농번기 농활일손&고사리손, 농기계 위수탁작업 지원단, 마을공동영농작업단(방제, 수리/청양), 사회적농업 농장
	관광 관련 일거리	마을자원 발굴단, 마을투어협의회, 관광두레
	홍보 및 정보전달 관련 일거리	청년유튜버, 마을방송국, 비밀언덕 (마을)중개사
	교통 관련 일거리	따름이, 인근마을과 공동으로 소형버스 구입, 정기운행 사업, 읍면 순환버스(청양)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관련 일거리	마을이동점빵과 푸드트럭, 마을심부름꾼(청양), 마을영화제 상영, 마을주민 문해교육강사, 정기 이미용 서비스 실시
	의료 및 돌봄 관련 일거리	이웃복지사, 마을돌보미, 마을요양보호사, 마을주민 건강관리단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관련 일거리	마을 공동청소단, 마을관리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제조대행,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청양)
	유휴공간관리 관련 일거리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마실방(뜰), 동네사랑방 운영하여 수익원 확보, 빈집이음(청양)
	네트워크와 조직 관련 일거리	자체 네트워크나 모임 조직 구성하고 운영, 도시와 농촌 마을 연결마을농장(젊은협농장 방식), 마을체험단, 면면이음(청양), 마을살이단,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지역부흥협력대 방식, 도시와 네트워크 조직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일거리	공동체활성지원단, 마을후계자육성 프로그램, 기존 마을조직(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과 연대한 통합조직, 이들 조직이 수익환원사업 실시, 마을사무 관련 마을사무장, 마을간사, 마을이장 도우미, 마을 돌보미(청양)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참고
일하는 형태	주 2일~3일 이내 근무, 반상근 근무, 반일제 근무, 교대 근무제, 시간제 근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개념)	개인 선택 하에 유연한, 다양한 근무제 도입 지역에 연고없는 청년 우선 고용기회 제공, 청년은 물론 출자한 주민 참여 가능 *청년들의 특징(부계, 슬래셔 등) 감안
인건비 수준	최소 생활비 보장 수준, 생계유지 가능한 수준(도내 생활임금 수준 이상)	민간 위탁사업, 각종 위탁사업 통합집행, 사업비 풀링(pooling)하여 인건비 책정 가능

주 : 저자 작성.

4. 의의와 한계

이번 연구의 의의는 관련된 주제로 진행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탓에 농촌 현장에서 면담 조사에 의지해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생생한 자료를 얻는데 주력한 결과 실태조사는 물론 제안한 정책의 구체성까지 도출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이 하고자 하는 일,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 간 불일치 지점과 일치 지점을 발견해 내고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전환 방향으로서 농촌지역 면 단위의 청년에게 지역을 경험하게 하고 이들을 도와줄 지역 내 현장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을 제안, 우리가 흔히 농치는 부분인 농촌으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초기 진입단계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의 한계는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 집담회에 참여한 청년 구성이 대부분 공공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중간지원조직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 대다수였다. 일반 청년과 비교하면 응답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연차별로 얼마나 지역살이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리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위계별(마을인지, 읍면인지), 청년이 처해있는 단계별(유입, 정착, 자립 등), 일자리 유형별, 거주형태별, 청년의 욕구나 특징별로 구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면 보다 입체적이었을 것이다. 향후 일자리 관련 농촌정책의 전환 근거자료로서는 미흡하기에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본 연구의 당초 기대효과가 충족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필요한 후속과제로서 농촌 청년정책의 읍면 단위 전달 및 추진체계 방안, 청년을 받아줄 읍면 단위 현장실천조직 발굴·육성·지원 방안, 앞서 제시한 ‘최종사업구상 예시’ 내용과 같은 실천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검증해 보는 것 등이다.

부록 1

원내 연구심의회 및 전문가 면담 회의록

회의 목록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① 착수 연구심의회	2024년 06월 03일(월)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내외부 연심위원, (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방향 설정 및 과제 착수
② 천안시 전문가 면담	2024년 06월 11일(화) 도그베리팜	박○○ 이사장(천안마을공동체지 원센터)	도시 근교 농촌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 및 역할 탐색, 다차원적 정책 수요 조사
③ 공주시 전문가 면담	2024년 06월 17일(월) 공주시 베리베리팜	임○○ 대표(베리베리팜)	공주시 청년 특성 및 과제 자문
④ 청양군 전문가 면담	2024년 06월 19일(수)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노○○, 마을만들기팀 이○○	청양군 및 예산군 청년 특성 및 현황 사전 현장자문 인터뷰
⑤ 예산군 전문가 면담	2024년 06월 19일(수)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 교수, 이△△ 팀장	청양군 및 예산군 청년 특성 및 현황 사전 현장자문 인터뷰
⑥ 홍성군 전문가 면담	2024년 06월 25일(화) 홍성군 장곡면 젊은협업농장	젊은 협업농장 정○○ 상임이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 사무국장 등	청년정책 및 설계 자문
⑦ 최종 연구심의회	2024년 10월 21일(월) 충남연구원 2층 소회의실	내외부 연심위원, (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 마무리를 위한 심의의견

주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익명으로 표기함

Ⅰ 회의명 : 착수연구심의회

- 회의목적 :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심의
- 일시 : 2024년 06월 03일(월)
-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내외부 연심위원, (서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후계농과 외부유입 청년의 농업, 생활패턴 등 매우 다름 ⇒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을 보는 것 매우 중요
- 농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농업 외의 지원이나 전략에 매우 관심이 많고, 니즈도 높음⇒ 일반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농업에 적용하는 실정(예. 온라인거래, 직거래 등 유통방식의 다양화)
- 청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지만 기존과 같은 방식(예. 새마을, 청년회)은 아님. 청년과 지역의 상충 발생(지역은 청년을 이용하고 싶어함)
- 컨텐츠나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많음(신활력 사업 등)
- 기존의 작물지원, H/W 지원 방식 벗어난 청년들의 요구 확대
- 농경연에서는 홍동면 Case Study 요구하였지만 홍동면은 너무 우수한 사례 같고 완주군과 같은 사례조사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
- 농경연 의뢰 측면에서 본 용역은 정책동향보다는 현장에서 사례조사, 현장조사를 위주로 진행 필요
- 농촌 지역사회 유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농경연에서 원하는 디테일한 정확히 파악해서 적용 필요
- 농촌 청년의 범위(대상)가 농촌 정주청년인지 혹은 비정주 청년인지 파악 필요
- 정책에 의해 청년이 유입되고 활동하는지 혹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않는 청년을 구분해서 조사 필요
- 중앙부처별/시군단위(지원주체별)/청년정책(분야별)로 사업의 인벤토리(목록)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우선 수행해야 할 듯함 ⇒ 부처별/사업별로 제도/예산/정책 전달체계 파악 가능
- 정책의 공급 측면에서 실태조사 필요 - 추후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

② 회의명 : 천안시 전문가 면담

- 회의목적 : 도시 근교 농촌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 및 역할 탐색, 다차원적 정책 수요 조사
- 일시 : 2024년 06월 11일(화)
- 장소 : 도그베리팜(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14-8)
- 참석자 : 박○○ 이사장(천안마을공동체지원센터)

<p>1. 지역이 고향인 청년과 달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만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까지 청년장기교육(농정원 주관, 6개월에 1천만 원 지원-청년자부담 10%) 진행(딸기 작목)◦ 현재는 KOICA와 협력하여 ODA사업으로 베트남에 6,000평 정도의 딸기 스마트팜 사업 진행 중◦ 경쟁력있는 농민생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일정 검증시스템 필요◦ 교육시스템(인재 양성) + 지역 특화작물 접목 ⇒ 제대로 된 사람키우기(인재 양성) 필요◦ 청년정책에서 기본 “마스터 플랜”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p>2.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청년들은 왜 이 지역을 찾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은 귀농지로서 조건은 좋지 않음(비싼 땅값), 그러나 자녀교육, 농산물 판매(판로) 등의 측면에서 천안같은 지역이 낫다고 생각, 그리고 토지값 총당이 된다면 너무 강시골보다는 천안같은 도농복합도시가 낫다고 생각◦ 천안시의 경우,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정책이 적지만(예. 청양군) 천안의 귀농청년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음- 천안의 경우 귀농관련 정책이 적고, 공무원의 농업 관련 관심도가 낮음. 그러나 농업의 규모는 큼- 천안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로컬푸드 사업 연계 추진 중이나 행정은 필요성 못 느껴서 부딪히는 실정
<p>3.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그들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는 잘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만족해하고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화 잘안됨◦ 기존의 농민은 피해의식이 많아서 청년에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음◦ 다른 환경에서 살던사람을(유입 청년) 원주민(농업농촌) 환경에 맞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 이상적인 농촌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 농촌은 살만한 곳이어야 한다(=미래에 청년이 살만한 공간이어야 함)- 깨끗한 유지, 주거공간으로서 농촌, 농업경쟁력 등..- 공통적인 숙제(틀) 구상 필요 ⇒ 틀에 들어갈 역할과 배치의 단계별 구상 필요-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는 기준지표 구축 필요(기준지표 대비 미래의 변화체계 필요)◦ 농업 비즈니스(Agri-Business)를 고안한 모델 구축이 목표- 흥성 흥동마을 정○○ 선생님과 결이 다른 부분 : 사회적 농업 지향)- 목표는 베트남(딸기 스마트팜) 사업으로 돈을 벌어 천안 농촌재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 ⇒ 재단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 교육시스템 등 구축
<p>4. 본 연구과제를 위해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한데 추천가능한지?(마을주민과 청년 그룹 모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농장을 거쳐간 교육생 중 천안에 남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다수 있어서 사전 연락 후 명단 정리해서 연구진으로 넘겨줄 예정

③ 회의명 : 공주시 전문가 면담

○ 회의목적 : 공주시 청년 특성 및 과제 자문

○ 일시 : 2024년 06월 17일(월)

○ 장소 : 베리베리팜

○ 참석자 : 임○○ 대표(베리베리팜)

1. 지역이 고향인 청년과 달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만의 특성?

◦ 농촌

- 공주시와 같이 도농복합지역(도시처럼 번잡하지도 않고 강농촌처럼 삭막하지 않은 중간형태의 지역)으로 내려오는 청년들은 “노마드” 성향이 강함.

- 즉, 도시로부터의 번잡함, 속도경쟁과 업무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자, 잠시 휴식기를 가지려는 자, 농촌의 자연과 여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자들이 주로 내려오는 편, 이들은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1년~2년 머물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퍼즐랩 등 공주에서 창업하는 기업도 직원들 찾은 이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함.

- 농사를 짓고자 내려오는 청년들도 강농촌에 머물려 하지 않고 도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싶어하고, 농사가 아닌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청년들도 동 지역에 거주하려고 함. 거주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놀거리 문화 유무라서 농촌같이 밤에 캄캄한 공간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음.

- 따라서 이들을 지역에 묶어 두려는 발상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은 생각일 수 있음. 특히 농촌 지역사회 정착, 거주를 강요하는 뉘앙스는 지금 청년에게 맞지 않다고 봄.

◦ 농업

- 청년들은 재배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작물을 원하는 편

- 이런 재배작목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경쟁력이 낮아도 농업시작 가능, 캐시플로우(현금흐름)도 부담없는 수준이라서 업체류 중심으로 많이 시작하는 편

- 블루베리를 권유했으나 거절함(블루베리도 과수이므로 최소 2년 동안 무일푼 신세)

2.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청년들은 왜 이 지역을 찾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 노마드 성향이 강한 만큼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하고 속박받지 않으려고 한다.

◦ 농촌 지역사회 소멸 주제에 깊은 관심은 없다.

◦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그들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는 잘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만족해하고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 일할 사람 자체가 없다.

◦ 농촌소멸은 이대로 가면 자명한 현실이다.

◦ 사람이 워낙 귀하다보니까 청년을 중심에 놓고 정책이 맞춰야 할 시기이다.

◦ 농업은 선택에서 후순위다. 농촌에는 청년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

◦ 청년에게 농촌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건비를 준다고 해도)은 무리일 것 같다.

◦ 현재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 청년들은 농촌 지역사회 유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없다.

◦ 따라서 농촌 사회의 주민들과 청년 간 융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기에 농사짓고 생활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 지금 연구과제는 지금의 농촌현실과 잘 맞지 않을 것 같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청년들, 미래세대에게 농업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농업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4. 본 연구과제를 위해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한데 추천가능한지?(마을주민과 청년 그룹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가지 조건 : 이러한 연구주제 공감할 수 있는 자,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진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 2~3회차 이상 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 시간을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자, 거주하거나 주 활동공간이 농촌지역(읍면 중심)인 자 등 ◦ 특정대상(청년) :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자 ◦ 특정대상(마을주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농촌지역에서 생업을 하는 자 ◦ 적정 인원수 : 마을주민과 청년 그룹 각 5명~6명 이내(성별, 연령대의 균형적 조합) ◦ 농담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6명 참여(2명만 공주 출신, 나머지 4명은 타지역 출신, 1명 기혼, 나머지 미혼) -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방법 고민하고 대화하는 모임성격으로 운영 중 - 한달에 한번 가랑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 주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는 편 - 먹고 사는 문제, 소득을 더 잘 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 - 7월에 숙제를 부여했는데 “베지래빗(대전 로컬푸드 매장)”에 업체류 납품하기 미션 부여 - 빛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눈팔지 말고 농사에 모든 것을 전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 농업 이외 타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스트로컬 1기, 이퀄컴퍼니, 공주쌀롱, 곡물창고, 홍성군 초록코끼리 추천
<p>5. 기타 연구과제를 위해서 고려할 조건을 자문해주신다면(청년들과, 마을주민들과 대화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다른 팁은 없고 하려는 것을 진솔하게 말하면 될 것이다.
<p>6. 그 외) 임OO 대표의 청년들과의 조직화 구상건 내용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과 경력이 있는 선배 농업인이 법인을 구성하여 청년농업인을 조직 ◦ 청년농업인은 선배 농업인으로부터 각종 노하우를 습득, 사업화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트레이닝을 통한 역량강화, 농창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최종 목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기 창업단계 지원 ◦ 생산과 품질관리는 기본, 상품화 개발, 마케팅, 인력확보, 네트워크, 자본력을 갖춰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

④ 회의명 : 청양군 전문가 면담

○ 회의목적 : 청년정책 및 설계 자문

○ 일시 : 2024년 06월 19일(수)

○ 장소 :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참석자 :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노○○, 마을만들기팀 이○○

-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여러 꼭지들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돌아가고 있음
- 2021년부터 청년만들기사업(행안부) 운영: 한달 살아보기 사업(년/4기/회당 10명씩)과 한달 창업(4명)이 서로 순환구조로 운영(한달살아보기로 온 청년이 창업, 한달 살아보기 운영하는 구조)
- 주거, 생활비 문제는 조사단을 활용하여 비용 지원, 마을 연계
- 현재 일몰된 사업이지만 사회적경제기반사업사업을 통해 민간단체 마을간사로 활용(10명)
-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역할 수행(밀착형 지원)
 - 찰리와 고추방(주체: 어쩌다 로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운영
 -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정산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방(숙박시설)” 운영관리 주체로 어쩌다 로컬 선정
- 의사결정기구(읍면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마을단위) 수립
 - 실제 시행조직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이어야 한다고 생각
- 소생활권 사업(행안부): 주민자치회(법인)과 청양청년네트워크(지역 토박이)로 구성 운영
-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어쩌다 로컬, 로컬몬스터 등 참여

1. 지역이 고향인 청년과 달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만의 특성?

- 거의 읍단위에 거주
 - 도시에서 온 청년들은 읍면과 행정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
 - 특성: 카페나 음식점 등으로 원하는 것이 몰려있음(창업중심 사고), 농촌마을 상황의 이해도 부족

2.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청년들은 왜 이 지역을 찾는가?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 도시에서의 소모, 생산수단화에 대한 염증
- 힐링되고 내가 하고싶은 것을 찾는 과정(편안함)
- 왜 하필 청양으로 오는가? 즉흥적. 지나가다가 여기로 올까 싶어서 프로그램(한달살기) 통해 겪음
 - 한달살기 프로그램으로 유류공간 3개를(청춘거리 위치) 청년에게 내어줌 → 한달 창업 → “누구나 가게” 모티브가 되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6개월 공간 대여)

3.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그들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는 잘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만족해하고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 한달살이 청년들을 청년조사단으로 활용(마을조사단 등)해 보니 마을주민과 관계나 이해도 부족
- 지역주민 의견: 시끄럽다. 지역청년과 역차별이다라고 생각
 - ⇒ 청년정책 2track 구성하게된 계기, 계속된 교육과 가치공유를 통해 많이 융화된 현재

4. 본 연구과제를 위해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한데 추천가능한지?(마을주민과 청년 그룹 모두)

- 청년 그룹: 소생활권 사업 참여 청년, 어쩌다 로컬, 청년네트워크, 청년협동조합연합회 명단 제공
- 마을주민 그룹: 마을만들기협의회(위원장, 사무국장 제외)
- 청양 마을사업, 청년사업 리스트(청년사업백서로 발간) + 청년 명단 리스트

㉔ 회의명 : 예산군 전문가 면담

○ 회의목적 : 청년정책 및 설계 자문

○ 일시 : 2024년 06월 19일(수)

○ 장소 :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 참석자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 교수, 이△△ 팀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활동가 운영하고 있음(2억/년, 5년까지 지원)

-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귀향을 목적으로 함

- 활동가는 지역자원조사, 청년네트워크 구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6명(2명: 유입청년, 4명: 지역토박이)이 활동 중

1. 지역이 고향인 청년과 달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만의 특성?

◦ 농업의 가치나 농촌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소수(이상~현실 괴리)

◦ 제도권을 거부하는 청년들 양상

◦ 거의 읍내에서 거주함

2.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청년들은 왜 이 지역을 찾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 접근성의 용이 : 청양이 교통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리, 지역

◦ 지역에 대한 정서적 정감: 안정감 등

◦ 청년마을만들기 운영 : 관계그룹들의 이슈는 “예산시장(백종원)” → 시장 외의 지역(간물) 운영하고 싶은 욕구

3.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그들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는 잘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만족해하고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 벼격거리지지는 않지만 목표지향적이지는 못함(자발적, 능동적인 역할 없음)

◦ 현재는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센터 등)을 활용해 중간 매개가 되어 보다 편해지고, 밀착된 느낌

4. 본 연구과제를 위해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한데 추천가능한지?(마을주민과 청년 그룹 모두)

◦ 청년 그룹: 귀향청년 2명, 외지에서 유입된 청년 3명, 청년활동가(지역 토박이) 1명 명단 제공 예정

◦ 마을주민 그룹: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이장단 중에 컨택해서 명단 제공 예정

◦ 내년에는 예산군에 있는 청년들을 꼬집어내어 20개의 동아리 형태(커피그룹, 워킹그룹 등)로 프로그램 운영해 볼 예정.

⇒ 숨어있는 청년들에 대한 통계가 없어 어려움이 있고, 목표나 프로그램 종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청년유입은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업농과 로컬크리에이터

- 전업농: 농민연금을 주어 지속

- 로컬크리에이터: 원하는 것을 해줄수 있는 부분에서, 보조사업 주면 규제가 심해 청년의 창의성 저하

⇒ 자율성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

⑥ 회의명 : 홍성군 전문가 면담

○ 회의목적 : 청년정책 및 설계 자문

○ 일시 : 2024년 06월 25일(화)

○ 장소 : 홍성군 장곡면 젊은협업농장

○ 참석자 : 젊은 협업농장 정○○ 상임이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

○ 사무국장 등

1. 지역이 고향인 청년과 달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만의 특성?

- 기본적으로 읍면에 살려고 내려온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주거공간이 면에 없으므로 거의 읍 단위에 거주하고 활동공간은 주로 면단위 활동
- 활동공간은 면 단위, 거주공간은 읍 단위라면 이러한 사람은 면단위에 정착했다고 보는 게 맞음.
- (인터뷰하게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집은 어떤 위치이고 어떤 형태인가?” 등으로 물어봐야 할 것임.

2.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청년들은 왜 이 지역을 찾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할 것임. (도시의 각박함, 경쟁력에서 벗어나서 오고 싶었고 나를 찾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려올 때 마음먹었던 그 당시 생각이 길게 이어지질 않음.
- (인터뷰하게 된다면) “왜 농촌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왜 이 지역인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 (인터뷰하게 된다면) “내려올 때 가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농촌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농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려 했는가?”
=> 예상되는 답변 : 많은 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내려왔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인터뷰하게 된다면) “막상 내려와서 보니 처음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 생각과 현실의 차이는 어떤 지점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 (인터뷰하게 된다면) “만약 농촌에 어떤 일자리/일거리가 있었다면, 당신이 농촌에 내려오는데 더 쉬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일자리/일거리가 있었다면 당신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었겠는가?”

3.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그들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는 잘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만족해하고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청년들과 인터뷰)

- (인터뷰하게 된다면) 일자리 자체가 그 일이 주민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일이라면, 좋겠는가? 아니면 단순히 너의 욕구(카페, 책방 등)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가?
- (인터뷰하게 된다면) 그런데 몇 년동안 해보니까 너의 욕구와 주민의 욕구를 결합할 방법은 없겠는가?(관건인 질문)
- (인터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 예상되는 답변 : 공동조직이 없기 때문에 혼자 버텨내기 힘들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움을 받거나 상의하거나 조언을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돈과 자아욕구 실현이 힘든 게 아니고 주변사람과 교류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요,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중요

(마을주민들과 인터뷰)

- 일반 마을주민들은 필요를 못 느끼는 게 현실, 인터뷰할 때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지 도출 중요하고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지 형태로 바뀌어야 함.
- 예. 교통은 뭐가 필요합니까? (X) 어디 나가실 때, 어디까지 가실 때 제일 불편하십니까?(O) ->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해 -> 이때야 비로소 대중교통 이야기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음.

4. 본 연구과제를 위해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한데 추천 가능한지?(마을주민과 청년 그룹 모두)

- 인터뷰 대상으로 적절한 마을주민 :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들어온 젊은 사람(젊은 귀농인, 귀촌인, 젊은 청년)적절, 읍면 발전계획 세운 경험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사람 구성도 적절
- 인터뷰 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마을주민 : 나이 든 사람들은 개인의 필요를 많이 요구하는 편, 이들은 필요를 제안하기 보다는 요구를 많이 하는 편, 그냥 이장님은 마을의 이해관계가 마을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지역사회 전체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은 편, 적절한 인터뷰이 찾기가 어려운 상황
- 인터뷰 대상으로 적절한 청년 : 풀무학교 졸업생이나 가족적 요소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 필요
- 지역 내에서의 도움 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적절, 자기 필요한 이야기할 사람은 적절치 않음.
- 인터뷰 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청년 :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필요를 다 들어주는 것도 안 됨. 지역주민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라이프사이클 중심으로 이야기할 가능성 높으므로 잘 걸러들어야 함.
- 예. "카페 할래요"라고 하는 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왔으니깐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게 당연, 농촌에 무슨 일이 필요할는지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음. 하지만 농촌에서 생활하다보니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욕구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적당. 이런 사람으로 추천예정,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네?라고 느끼는 사람이 인터뷰이로 적절
- 그룹 구성 : 장곡면과 흥동면 내 청년, 활동가, 주민자치회(회장, 사무국장)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겠음. 이유는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이 관심이 많으므로 이야기가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커피의 경우는 두명의 이야기가 비슷할 수 있어서 둘 중 1명만 참석해도 될 듯함.
- 예. 빨래방에 대한 접근 차이 : 그냥 내 빨래를 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이 그룹에 불필요, 그리고 막상 어르신들은 그 필요를 못 느끼지만 옆집 사람이 하니깐 좋아보이고 필요를 느끼게 되는 프로세스
- 회의장소 : 협업농장 회의실, 장곡협동조합 회의실, 커피숍 등 가능

5. 기타 연구과제를 위해서 고려할 조건을 자문해주신다면, 청년들과 마을주민들과의 대화 팁

(1)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팁

- 이 사람들 모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고운 사람들이므로 대화에 걱정할 상황은 아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연구과제 개요와 질문지를 미리 보내고 준비해 올 것을 부탁하기
- 다만, 이들이 연구자와 코드를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연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음.
- 이 친구들 모두가 일정이 맞지 않을 것이라서 시간 맞추기가 제일 힘들 것이라고 예상

(2) 일자리라는 주제에 대하여

- 질문할 때 일자리라고 하지 말고 일거리라고 접근하면 좋겠음. 인터뷰하면서 일거리로 접근하고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일자리'라고 네이밍을 잘 붙이면 되는 것, 일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도출하는 게 급선무이니 추후 연구자가 해당 사업에 "OO일자리사업"라고 명명하면 될 일
- '일자리'라고 말하면 청년들에게는 바로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너무 정책적이고 협소한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청년들은 취업문제나 이슈에 익숙한 세대라서 "일자리=취업=인건비 지원"으로 단순히 연결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일자리 범주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일자리 주제도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인터뷰가 잘 될 것이라고 봄.
- 농업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얘기하고 싶는데 못하고 있음. 필요는 있는데 농민들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고 농업을 축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관련 논의는 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
- 다만, 마을주민들도 하나의 주제에 꽂히면 계속 이야기가 터질 수 있음(예. 학교 등 교육과 돌봄(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이슈, 환경 이슈, 농업 지원 이슈가 얘기하기 쉬운 접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 청년은 반장 역할, 마을주민 모으는 역할, 환경관리 주도적 역할 하는 것 기대, 식당이 없어서 불편해요. 식당을 만들래요 => 나중에 식당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순서로 접근해야)

(3) 연구주제의 실마리

-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구보다는 주민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쪽에 가까울 것임. 이유는 자신의 욕구로는 일자리/일거리가 생기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면도 있음.
-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그 경계지점까지 도달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게 핵심
- 결국 자기 선택인데, 내 욕구가 중심이 되어서 내려왔고 내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국가 정책으로 관여해서 할 지원해 줄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욕구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면서 자신의 욕구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게 중요
- 결국 주민의 욕구, 청년의 욕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 일이 공적인 일일 때 정책지원, 정책개입 필요
- 그렇게 했을 때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함.
- 대부분 우리 인간의 필요는 발굴되는 것이지만 먼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은 편(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스마트폰 필요한지 안한지 묻는 원리와 같음.)

(4) 구성방식에 대한 팁

- 부러 홍동 청년활동가 그룹과 장곡 청년활동가 그룹을 나눠서 하면 좋겠음.
- 홍동면과 장곡면 그룹을 두 개로 분리해서 회의하면 좋겠음. 이유는 이 두지역의 사람들은 일부 활동 범위가 겹치긴 하지만 따로 해야 자기가 활동하는 면지역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 같고 각자 자기 마을을 고민하게 생각하게 해서 얘기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 홍동면과 장곡면 그룹을 섞어 버리면 이야기가 추상화될 것 같고 실체성도 떨어지고 현실성 모호
- 주민그룹은 나중에 청년활동가 그룹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7 회의명 : 최종연구심의회

- 회의목적 : 연구과제 마무리를 위한 심의
-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 장소 : 충남연구원 2층 소회의실
- 참석자 : 내외부 연심위원, (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하고자 하는 것,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의 mismatching을 발견하고, 정책 전환방향으로 농촌 면 단위에서 청년에게 지역을 경험하게 하고 이들을 도와줄 지역 내 현장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안함
- 실태조사 분석에서, 청년 구성이 대부분 공공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중간지원조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 대다수. 또한 그런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다른 의견 가능 → 추후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 청년들을 구분하여 일반 청년과 비교 필요 + 경험의 연차별로 비교 필요.
- 향후 농촌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안하는 근거자료로는 구체성이 부족함. 본연구는 제안하는 측면에서,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본 연구의 기대효과 충족이 가능함
- 제목의 변경은 어려운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추진실태 조사”라는 내용이 포커스가 아닌 “정책과제 도출”을 요구하고 있어 제목 변경 고려가 필요
- 내년까지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연구방법론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 국가차원에서 농촌의 청년들에게 역할을 맡길 시급한 정책도출 필요성(중요한 우선정책 분야별 필요성 제안)
- (일자리 유형별)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일거리, 사회적경제 부분의 일거리 등 목적 일자리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 제안 필요, (거주형태별) 정주 또는 비정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 구분 필요, (행정단위별) 청년 활동의 공적지원 이 읍면 단위인지 또는 마을 단위인지 구분하여 제안 필요 → 일자리유형별, 거주형태별, 행정단위별 믹스한 유형 구분 고민 필요
- 청년들의 초기 진입시(초기 정착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 중요할 듯
- 쉽지 않은 일정으로 주로 농촌 현장에서 면담 조사에 의지해 연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생한 자료를 얻는데 주력하였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 것에 만족(당초 계획한 연구목표 달성됨)
- 조사에 참여한 피면담자(인터뷰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고서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고서 마무리 과정에서 신경쓸 것
- 남은 기간 동안 보고서 편집을 꼼꼼하게하여 최종 제출 요망

〈보고서 형식〉

- 현재 2장, 3장의 접근방법이 공통적으로 “현장 집담회” ⇒ 2장, 3장 통합하는 방법 검토 필요
- 현재 4장에 작성된 현황/사례검토가 2장으로 오면 위계가 맞을 듯함
- 현재 4장을 농촌 청년정책의 전환방향으로 변경하고, 5장을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변경 고려
- 5장을 본문으로 넣고, 6장을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 구분. 4장의 1절(타지역 경험과 사례) 부분과 2절(청년 일자리 정책 공급현황)의 위치 바꾸면 가독성이 좋아질 듯함

부록 2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 회의록

회의 목록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① 청양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2024년 7월 31일(수) - 청양군 와유 2층 회의실	김○○, 정○○, 강○○, 박○○, 서○○(청양군 청년), 이○○ 주임(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② 청양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2024년 8월 20일(화) - 청양군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2층 회의실	김○○, 정○○, 강○○,(서면 대체) 박○○, 서○○(청양군 청년), 노○○ 센터장, 이○○ 주임(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③ 예산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2024년 8월 5일(월) - 예산해봉센터 1층 창업지원실	박정수, 박○○, 박△△, 박□□(예산군 청년), 이△△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④ 예산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2024년 08월 21일(수) - 예산군 응봉면 평촌세곡길 7	박□□, 박△△, 박○○(서면대체),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이○○ 교수, 이△△ 팀장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⑤ 홍성군 홍동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2024년 8월 8일(목), 오전 시간대 - 홍동면 마을활력소 1층 활력다방	이○○, 신△△, 안○○, 나○○, 정○○, 신○○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⑥ 홍성군 홍동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2024년 8월 22일(목) 오전 시간대 - 홍동면 마을활력소 1층 활력다방	이○○, 안○○, 나○○, 정○○, 신○○, 신△△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⑦ 홍성군 장곡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2024년 8월 8일(목), 오후 시간대 - 함께하는 장곡 협동조합	서○○, 김○○, 박○○, 한○○, 신△△, 신○○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⑧ 홍성군 장곡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시간대 - 함께하는 장곡 협동조합	서○○, 김○○, 박○○, 한○○, 신△△, 신○○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주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익명으로 표기함.

Ⅰ 회의명 : 청양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목적 :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 장소 : 청양군 와유 2층 회의실
- 참여자 : 김○○, 정○○, 강○○, 박○○, 서○○(청양군 청년), 이○○ 주임(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0. 나에 대한 소개, 인사말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매니저로 달빛마켓, 관광두레(투어) 업무 수행 ◦ 청양살이 2년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쩌다로컬 이사 ◦ 청양살이 4년차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성화대단 경영기획팀 주임 ◦ 청양살이 5년차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제작업체 운영, 23.4부터 회사창업, 영상제작 등 업무 ◦ 청양살이 4년차 ◦ 23년도 사회적경제 활동가, 청년네트워크 간사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소생활권 활성화 사무국 팀장으로 근무 ◦ 청양살이 1년차 ◦ 석사 수료 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논문 쓰고자 청양 유입

1. OO농촌 지역으로 들어온 배경과 계기

(구어체 질문) 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OO지역으로 내려오겠다고 생각했는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왜 하필 OO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가, 친가가 청양. 외삼촌의 권유 ◦ 주4일제/ 일 4시간 근무조건 ◦ 사회적경제활동가로 유입했고, 정착 ◦ 대전에서 웹디자이너로 활동했음. 야근잡고 출퇴근 3시간 거리라 부담감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다른 이유없음 ◦ 대전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대학 졸업. 무조건 서울에 살겠다는 마음있었음 ◦ 우연히 들어온 청양에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이유로 정착(사람이 정착한 이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출생이며, 대학을 청양에있는 충남도립대로 옴 ◦ 지금도 청양에 왜 남아있는지 뚜렷한 이유 없음(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에 친인척 등 연고 없음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에 연고 없음. 고향은 청주. ◦ 영상일을 하면서 후배가 충남 홍성을 추천(30대 초반) → 영상 회사 입사하였으나 코로나로 5개월만에 권고 사직 ◦ 지인의 청양에서 일하는 것 권유 → 고향(청주)로 귀환을 고민하였으나 홍성에서 5개월만에 사직되어 돌아가는 것과 나이를 생각해서 청양으로 유입 → 살면서 청양의 만족도 상승하여 정착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갓집이 청양 ◦ 10년간 대전-청양을 왔다갔다 함 ◦ 코로나 이전까지는 협동조합이사장이었으나 사업을 정리함 ◦ 인구소멸지역 청양에서 직접 살아(체험)보고 관련 논문 쓰고자 유입(논문준비 중)

2.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농촌 지역 비교 시 장단점, 만족도

(구어체 질문)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이 있나?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대전 - 단점: 야근 잦고, 추가 수당 없음, 출퇴근 시간 3시간, 고용불안정 ◦ 현재 거주지: 청양 - 장점: 중장년층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일과 생활의 밸런스, 임금수준 만족 - 단점: 정주여건에 대한 정보 부족(신문통해 집 구함), 집값 높음(현재 도립대 남는 주공아파트 기숙사 입주. 언제 나갈지 모르는 불안감), 교통 부족, 유가 높음, 물가 높음 ◦ 만족도(삶, 생활): 9/10점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대전, 서울 ◦ 현재 거주지: 청양 - 장점: 자연이 이쁨, 교통체증 없음, 노력하면 자분을 축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 - 단점: 차가 있어도 불편함(운전하는 것의 어려움), 대중교통의 불편함, 편의점, 식당 등 인프라 부족 ◦ 만족도(삶, 생활): 6/10점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경기도 ◦ 현재 거주지: 청양 - 장점: 자연환경이 좋다, 공기가 좋다, 이유는 모르지만 청양이 좋음(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매력을 지님) - 단점: 대중교통 부족, 작은 읍내, 음식점의 부족 ◦ 만족도(삶, 생활): 10/10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청주 - 장점: 문화적 인프라 뛰어남(영화관 등), 대중교통의 편리함, 일자리 스펙트럼 넓음 - 단점: 교통체증, 인파 몰림(내향적 성향인 본인에게 어려움) ◦ 현재 거주지: 청양 - 장점: 교통이나 인구의 몰림 없음, 자연환경의 수려함, 청양만의 따뜻한 정이 있음(예. 달빛마켓) - 단점: 인프라(문화, 놀 곳) 부족, 정주여건 대비 집값이 높음(34평 4억원), 부동산 정보없음(폐쇄적), 자차가 없을 때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함 ◦ 만족도(삶, 생활): 7/10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대전 - 장점: 기회와 정보 많아, 선택의 폭, 기회 많고, 정보습득이 빠름 - 단점: 사람이 많아 치이며 살다보니 인적네트워크(교류) 줄이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지: 청양 - 장점: 조용하고, 출퇴근 시간 힐링됨,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집밥 해먹는 빈도 상승,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 술먹는 것 줄이게 됨 - 단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 야식 잘 못먹게됨, 대리운전 잡기 힘들 ◦ 만족도(삶, 생활): 8.5/10점
--	---

3. OO농촌 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전반 & 4. OO농촌 지역에서 일할 거리(생계, 먹고 사는 것)와 활동 거리 평가

(구어체 질문) OO지역에서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실제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구어체 질문) OO지역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막상 내려와서 보니 처음 생각과 현실 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할 거리 관점’에서 OO지역이 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이 있나?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크게 기대하지 않음, 4시간 일하면 자기개발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지역사회에 관심 없었음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일자리)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따르는 보상 있음(추가수당 지급), 야근이 거의 없음 - (삶/생활)자기개발 시간 확대(홍보디자인, 광광 학위 취득),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확대(행사, 취미생활 등 참여도 확대) ◦ 만족스러운 점 - (일자리)원래 있던 원주민이 만든 사업이 아니라, 외지인이 구축해놓은 일자리에 내가 일하니 만족도 높음 ◦ 불만족스러운 점 - (정주)군에서 인건비 받으며 일하는 것이 끝나면, 거주는 청양에서 못하고 차가 있으니 외지에 구할 것 같음(정주와 일자리의 불일치)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한량 같은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일자리)월 30만 원 밖에 못받는 현실에 수긍하며 일자리 다시 찾게됨, 현실 상황 개선은 안되지만 미래만 보고 야근과 갈아 넣는 삶 살게됨, 먹고 살기위해 기업을 만들고 인력을 채용(직원고용)하다 보니 나의 인건비는 줄어드는 삶(불안함 증가) ◦ 만족스러운 점 - 길거리 지나가면 아는 지인들이 인사를 해줌(정이 넘치는 지역)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기대 없음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정주)찾은 정주의 이동(전세 매물이 없어, 매매 또는 월세만 가능), 군에서는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빈집 이음) 1억 이내로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을 파는 사람 없음,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없음 - (일거리) 사람이 없다보니 일거리 몰림, 일에 비해 보수가 적음 - (일자리)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면 젊은 사람이 없음(대학 입학때는 젊은 사람 거의 없음) ◦ 만족스러운 점

	- (일자리)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함(실제 본인은 작업치료 전공), 인력을 키워주는 기회 있음,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 청년지원 일자리도 많아 경력 쌓기 좋음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이라는 곳이 영상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없기에 기대 없었음. - 자포자기 심정으로 유입, 농촌이니 공기는 좋겠다는 마음 - 슬로우라이프 추구/기대 ◦ 실제 삶의 모습(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슬로우라이프 전혀 실현 안됨(신생 업체라 모든 업무 본인이 담당, 영상제작 직업의 불안정성) - (삶/생활)마음터놓고 지냈던 직원들이 인프라 부족으로 청양을 떠났을 때 갑자기 주어지는 허탈함 - (정주)정주여건의 불안정성(3회 이사) ◦ 만족스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를 아무데나 할수 있고, 차량 막힘이 없음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정주를 생각하고 내려옴(1년 탐색하고,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려는 로망) -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려오지는 않음 - 농촌의 관계성(끈끈함, 사람에 대한 이웃간의 정) ◦ 실제 삶의 모습(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 빈집을 팔지 않음, 집짓는 초기비용 너무 많이 들고, 집값 너무 비쌌 - (일자리) 급여가 낮고, 좋은 일자리 없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을 듯함,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가 좋지 않음(공공기관 조차), 그러나 정책하는 사람들은 근로처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함 ◦ 만족스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강도 낮고, 직원에게 높은 강도의 업무 요구 없음(추가수당 줄수 없기 때문) ◦ 불만족스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성 파편화되고 분절되어 있음(끼리끼리 논다) - 기득권이 있어 이주자에 대한 경계가 높고 카테고리화 심함(로컬의 텃세), 이방인에 대한 수용성 낮고 배제하려고 함 ◦ 일치-불일치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도 기회가 지역에 있다 - 기준(욕심)을 내려놓으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5.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할 거리(생계, 먹고 사는 것)와 활동 거리

(구어체 질문) 과거 기존 지역에서 하고 있던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농촌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무슨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을 할 계획인가?

참여자	구분	과거	현재	미래
강○○	생계/일할 거리	웹디자인, 웹퍼블릭	홍보디자인 생산운영자	지역 농촌관광 외주사이트에 올려 웹디자인
	활동 거리			문화 향유에 대한 관광, 홍보
김○○	생계/일할 거리		투어 찰스팩토리(고추빵)	사업 확장 또는 폐업 일거리와 활동거리 분야 구분 어려움

참여자	구분	과거	현재	미래
	활동 거리			농사와 관광을 접목
서○○	생계/일할 거리	회계직	경영기획(복리후생, 교육진행)	현재와 같은 일
	활동 거리		야구광팬이라 대학 친구들과 함께 야구 관람(취미)	
정○○	생계/일할 거리	영상 대기업 생산직	영상직(직원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수익 창출)	만들고 싶은 콘텐츠 제작 청양관련 영상 제작
	활동 거리			유튜브
박○○	생계/일할 거리		청양군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행정직영 기간제근로자(계약 올해까지)	지역에서 어떤일을 할 듯(행정, 사회적경제 등)
	활동 거리			청년정책 고민하는 위원회 활동 접근성, 개방성을 튼튼 네트워크 운영

6. 하고 싶은 일(개인 욕구, 개인 입장) VS 해야 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일(공적 요구, 공적 입장))
- (구어체 질문) 당신 특기와 능력을 봤을 때, 자신있는 일(활동 포함, 이하 동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막상 들어와 보니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그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참여자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강○○	개인 욕구&입장	디자인, 관광	창업, 공공기관 취업, 업무(안정적, 공무직)		○ 일치
	공적 요구&입장			나이 때문에 청년으로서 프로그램 활동의 참여나 동행 권유	
	애로사항	공공기관 종사자를 할것인지 사업체(창업)를 차릴 것인지 고민			
김○○	개인 욕구&입장	경영, 회계	기업에 들어가서 적당하고 꾸준히 돈을 버는 것, 업 욕구(기업차리기)	청년들이 남아있고,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 일치 (의무의 차원)
	공적 요구&입장			주민교류(네트워킹),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청년유출을 줄여야 함	
	애로사항	행정은 지역과 많은 교류를 원하지만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구축 어려움			
서○○	개인 욕구&입장	사무	없음	지역보다 재단(직장)에 치우친 업무를 하는 중(회사를 위해 일을하지	× 개인 욕구

참여자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없음
	공적 요구&입장				
	애로사항				
정○○	개인 욕구&입장	영상 촬영, 편집	영상 촬영, 편집		○ 일치
	공적 요구&입장	청년네트워크 소속 일을 했을 때 네트워크 홍보, 참여		청양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원/인력으로 참여	
	애로사항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참여시간은 대부분 일과시간(낮), 본인은 프리랜서라 시간 구애없이 참여 가능			
박○○	개인 욕구&입장	지금 하는 행정의 중간조직 역할(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활동 운영 등)	다른 영역(정책 설계, 입법화 하는 업무)	지금 하는 행정의 중간조직 역할(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활동 운영 등)	○ 비슷
	공적 요구&입장			객관적으로 필요한 일을 추려내고 조정하고 중계하는 일 → 행정적 코디네이터(수요자 입장에서 주민들은 지역에서 하고싶은 일과 지역에 필요한 일 구분 못함,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행정)도 마찬가지)	
	애로사항				

② 회의명 : 청양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 일시 : 2024년 8월 20일(화)

○ 대상 : 청양군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2층 회의실

○ 참여자 : 김○○, 정○○, 강○○,(서면 대체) 박○○, 서○○(청양군 청년), 노○○ 센터장, 이○○ 주임(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초입 단계) 기회 및 역할 탐색을 위하여 지역에 처음 와서 관계맺은 사람, 기관, 조직 (구어체 질문) OO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볼 때 누구를, 무엇을 처음 접했는가? 어떻게 기회를 탐색해 갔는가?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로 선정되어 청년활동가끼리 교류 ◦ 청년활동가로 관광두레에 파견되어 관광두레 및 협업단체(청사넷,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마을 소철원 대표가 소개하여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참여자로 놀러(체류)왔다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마을조사단(500만 원, 2개월)을 하게되었음. 마음맞는 사람들을 만나 창업하게 되면서 정착 ◦ 행안부 청년마을사업(청양군): 청년 한달 창업해보기가 주제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인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 지인의 권유: 홍성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정○○에게 청양 일자리 권유 ◦ 뉴스 촬영차 나갔다가 청양군 네트워크 단장님과 알게 되어 네트워크 존재 여부 인지하게 됨 ◦ 회사가 읍내로 옮겨지면서 와유, 네트워크 간사, 활동가로 다양한 활동 하게됨(2023)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자료(백데이터) 수집 차 검색중에 청양군청 누리집 채용정보란에서 채용 공고를 알게 됨 ◦ 흥미로운 주제의 일자리 공고와 모집요건이 나의 삶과 겹쳐서 지원

2. (관찰 단계) 청년이 바라본,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구어체 질문)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저출생·초고령인 OO농촌 지역 사회가 유지·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그 이유는...

(구어체 질문) 지금 하는 일과 농촌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남아있는 유아동, 청소년들이 학업 환경으로 지역을 잠시 떠날 순 있어도 사회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청양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이지만 재학 중인 고등학교 소재지가 청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나 본인의 진학결과는 입시자료로 계속 쓰여 학생의 반감을 사거나, 교육기관에 속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 청소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등 청양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례 빈번히 접함) ◦ 지역에서 살아갈 청소년(지역출신)을 배제한 정책 및 사회 현황 역시 개선이 필요 ◦ 지역의 관광자원이 보다 매력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지원하여 타지에서 정착한 청양 출신의 유출 청년들에게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시도해 볼 필요성
-----	---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가 좀 자생하거나 사람들이 와서 돈벌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청양의 산업이 뭐라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청양은 농업 말고는 생각나는 게 딱히 없음 하나의 관광컨텐츠를 잘 짜놓으면 오지 않을까 생각함(관광, 투어, 컨텐츠 개발) ⇒ 엄청난 기술은 아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함(현재 고추빵의 만족도는 50% 수준, 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최대한 지역 농산물을 쓰고자 하지만, 재료 단가 맞추기 어려운 문제(청양 고추와 고춧가루만은 아예 농가를 통해 청양것을 사용)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어르신들의 교통활용이 매우 불편 편의시설이 읍내에만 있으니 읍내에만 거주하게 됨(읍내에만 인구 치중) ⇒ 지역 내 균형발전 어려움 현재 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가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생필품 배달, 보청기 배치 및 대여, 간단한 집수리 지원 등)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의 유입이 가장 필요 일상적 생활 소비(음식점, 미용실 등), 정주환경 유지를 위한 수리 서비스, 치안, 소방 부분이 마을이 돌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농촌에 와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영상제작이 농촌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연결고리 찾기못함). 기초생활서비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임기(19~42세) 여성들이 정주할 만한 여건 고려 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원되고 연구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집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정주여건), 자녀를 잘 키우는 여건(교육) 등이 지원되고 연구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발굴 ⇒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환경을 활용하는 방안(관광아이템 발굴 등) 고민 필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음,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과 이상 간 괴리를 느낌

3. (수요-육구 단계)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에 내려온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조건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어체 질문) 위에서 살펴본 일(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최소한 당신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하여 “일하는 환경 조건”은 무엇일까?(일하는 시간/일수/금액수준/기타 조건 등)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및 SNS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홍보 용역 수행(현재 청양군은 ‘디자인업’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에 초점을 맞춰야함. 사업체 온라인 홍보 및 SNS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노년층 사업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 봄) 초기 정착 시, 최소 2~3년간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수입원 필요(활동수당 등) 정착 연차별 혜택도 효과적이라고 봄(지역상품권 지급 등) 낮은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필요. 어리니까/건강하니까/능력이 되니까 인건비 및 활동시간 외의 잔업을 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짐. 어르신 본인이 보수적인 사고관을 가졌거나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려는 때가 종종 있으며, 이는 청년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지역 내 평판 및 일감이 끊기게 될까 거절하기 난감함. 이에 대해 중간에서 제지하고 업무 범위 및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줄 어른이나 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낌 청년 거주 지원 및 임대 공간 개선 필요. 정착을 고민하는 20대 중후반 청년들에게 한 가구 내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가 아니라 주거환경이 분리된 집이 필요함
-----	--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로 들어준 일거리 딱치면 다할 수 있다고 생각. 다만, 보수가 중요함 ◦ 일거리는 계속 들어옴(영상, 잡지 디자인, 교육 등) 그러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거절 ◦ 현재 관광일이 가장 많이 남음. 투어는 1인 인건비 정도만 남음 ◦ 외지인들을 데리고 오지만 그들이 지역에 남지는 않음. 남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지역을 알아가게끔 해서 남도록 고민하고 있음 ◦ 본인은 사람 때문에 지역에 남음. 시골텃세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어쩌다로컬 한달살로 정착하여 이제는 어쩌다로컬 한달살이를 주최하게 됨. 마을 원주민과의 관계가 어려워 까치네 마을로 들어가서 살게됨(마을 유희시설 활용하여 어쩌다로컬 운영) ⇒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일거리를 외부 청년들을 활용해서 쳐내고 있음(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 일거리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고 있음) ◦ 월세보전과 하루에 한끼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조건 필요 ⇒ 최소한의 생계수준 보전을 위한 금전적 보상 필요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반일제로 4시간만 영상제작하는 일을 한다면 어린이 돌보기(보육) 일과 마을조사단과 기록장치를 연결=마을을 기록하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음 ◦ 충주맨처럼 작은 돈으로 청양군 홍보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청양군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판매), 기록영상, 청양의 청정자원을 다큐로 제작(사계절이 나오게) ◦ 현재 센터의 사업의 과정을 찍어주는 아카이빙 영상제작(영상물은 교구로 활용)을 도와주고 있는데, 마을 어르신들 영상으로 담는 것 의미가 있음 ⇒ 반상근으로 좋은 직장 가능 ◦ 일하는 조건은 주 5일/8시간/주말근무는 따로 수당 적용/월 250만 원 정도 원함 ⇒ 영상제작 일자리 특성상 유동적 시간분배 가능(시간 조절 가능)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생환경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정책이 폐쇄적이라는 생각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사업 간 괴리 ◦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공론화장 없고, 나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권한이 없는 문제 ◦ 현재 일하는 환경의 시간, 일수는 매우 만족함. 금액수준은 맞지 않음.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과 자부심 등으로 남아있음

4. (정책공급 단계)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사업의 공급 실태와 평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농촌에서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어땠는지 그 소감과 평가는? (만족, 불만족, 그 외 애로사항 등)

(구어체 질문) 당신이 경험해 본 그 청년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유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청년정책이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농촌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사업: 주 4일 4시간 시간당 2만 원 활동비 지급 조건에 매우 만족했으며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보호되어 정착을 결심할 수 있었고, 주기적인 활동가 모임을 통해 지역의 다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었음. 중앙부처에서 실효성이 없고 예산 낭비라고 판단해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으나, 청양에 처음 정착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일자리지원팀 청년일자리사업: 협업 중인 청양사람들과의 업무환경에 만족함. 다만 이 사업을 통해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할 경우, 사무국장의 업무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다고 봄.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 법인 기업의 인건비(1명) 지원. 2년 간 180만 원/월 ◦ 예비사회적기업에 진입했으나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지원이 없어짐(사업 일몰) ⇒ 사업 일몰이 아닌 개선점을 찾아 지원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아 불안) ◦ 마을조사단(청년자원조사단) 사업* : 청년조사단을 모집하여 마을로 보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결과물까지 작성하는 활동. 주민들에게 유의미한 내용(정량화, 수치화된 내용) 뽑는 것이 어려움. 주민들의 참여도 낮음 ⇒ 씨앗이 되는 활동의 중요성, 정착까지는 아니지

	만 체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 마을조사단(청년자원조사단) 사업 : 청양의 초기정책에 경제적 체류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기별로 청년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1단계: 초기 정책에 필요한 생계 유지 비용 지원)
서○○	◦ 대학교에서 기숙사비 지원, 도립대 장학금 지원받음 ◦ 졸업 후 재단 일을 하면서 농촌 마을에 정도 쌓이고, 마을주민과의 관계(이장)도 어렵지 않아 이런 것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음 ◦ 단발성 지원이라 기숙사비 지원받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애들이 있어 사후 관리 필요 ◦ 청년일자리(청년인턴)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자가 없음. 사업비를 받지만 지역정착이나 지역에 보탬이 안되는 부분 많음 ◦ 사업비 덕분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기에 필요한 정책임. 그러나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기준이나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생각 ◦ 일자리 사업은 괜찮지만 단발성의 지원사업들 관리감독 필요
정○○	◦ 2023년도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청양군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가 사업* 수혜 경험 있음. 시급도 높았고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지급, 청양군 내 단체에 소속되어 일(청년 네트워크 소속), 겸업 가능, 소속된 활동가가 10명이라 네트워킹이 이루어짐, 참여인원의 50%가 청양에 남았고 네트워킹 계속 유지 중 *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적 기반사업(청년활동가 사업): 외부 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재능기부 아님), 청년과+농촌마을 자치조직을 연계. 1주에 3회(4시간씩) 활동하고 10개 조직에서 각각 10명 청년을 220만 원/월 지원, 2024년 일몰된 상태 ◦ 농촌마을에 외부 청년들이 들어와 농촌마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취지 ◦ 매우 만족하는데 이유는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되어 정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지속가능하면 좋겠음 ◦ 청년 네트워크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다양화, 지속화 필요
박○○	◦ 청년지원 정책 당연히 필요함. 취업, 창업, 정주와 같은 기본 니즈를 충족해 줄수 있는 의식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필요 ◦ 진로설정 부분(20세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 지원 필요, 청양군 청년/청소년의 특징은 광역시보다 치열한 경쟁이 없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 ⇒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좀 더 건강하게 취득하고 쟁취할 수 있는 동반된 교육도 전반적으로 필요 + 청년들의 스스로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 ⇒ 청년들의 역할보다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 설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 그러나 청양군이 우수한 청년정책으로 각광받는 것은 군수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가미되었다고 생각 ⇒ 청년들 영역에서 공동체 사회적 자본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공동체들이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행정, 중간지원조직, 청년 당사자 등)의 노력 필요

5. (방향 설정 단계)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요와 공급 일치여부 진단, 개선방향

(구어체 질문) 몇 년 해보니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욕구나 역할과 주민의 욕구를 결합할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 인생에서 보람도 있는 일 =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구어체 질문) 경험 상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은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농촌에 있는 청년을 정책과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가?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즉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고 사람과 사람이 사는 환경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량적 성과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으니 조기 종료되거나 주요 현안에서 밀려난다는 기류를 느낄 때가 있음. ◦ 수치로 증빙하기 어렵지만 정착 성공한 소수의 청년을 보고 지역의 가능성을 느껴 정착을 고려하거나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음. 정착을 시작한 청년이 지원받던 사업 및 인건비나 거주지가 갑자기 사라져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하자마자 돈을 벌 수단이 없음. 일은 있지만 그에 대한 보수가 확실치 않음. 지역에 정착하는 3년 정도 동안에 지원이 필요 ◦ 정책의 도움을 받는 만큼 확실한 결과물 나와야 한다고 생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하고자 하는 일 = 인생에서 보람도 있는 일 =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의 구조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는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기에 돈 요구가 어려움 ◦ 영상일-봉사: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 영상편지 촬영해서 보내드리기 같은 일 ◦ 지역에 정착하는 3년 정도 동안에 지원이 필요(조건부로 1년은 청양의 주소지에 있는 조건으로 지원 필요. 청양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 보여줄 필요성)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역할 보다도 생애주기에 따른 연결성 필요 ⇒ 행정과 정책의 지원으로 청양군의 20대 초반 청년 증가. 이후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결성 있는 정책 고려하고, 효과성 분석 필요.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구체적 고민 필요. ◦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필요한가라는 청년들의 고민 필요 ⇒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유입을 위해 고민할 필요. 치열함 필요

6. (마무리) 참여 소감 및 연구를 위한 자문, 제언

(구어체 질문) 현장 집담회에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그 외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감없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던 다른 청년들과 지역과 정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했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본인의 향후 계획을 어느정도 구체화 할 수 있었음 ◦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어 유익한 지원사업으로 연계되길 바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청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기회였음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직업군들의 어려움을 알게됨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실질적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였음 ◦ 본과제가 단기간에 결론내리기는 어려울것이라 생각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 귀하고 의미미한 시간이었음
노○○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목록에 청양군 목록이 들어가면 좋겠음 ◦ 직업으로 자아실현 하는 방법(5번 질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 관계를 가지고 이웃이 되면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함 ◦ 한마을, 한이웃이라는 생각함

③ 회의명 : 예산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목적 :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 장소 : 예산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
- 대상 : 박○○, 박△△, 박□□(예산군 청년), 이△△ 팀장(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0. 나에 대한 소개, 인사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산물 유통 업체 운영(처음에 산림청과 협업하여 온라인 판매 → 고향인 예산제품 판매 → 농식품벤처육성사업 참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 → 예산 출렁다리 인근에 판매장 오픈예정) ◦ 현재 생산 4명(예산 사업장), 서울 사무실(4명) 근무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이 예산(20살에 나갔다 귀향) ◦ 다양한 직업 경험 다(식품회사, 여행, 게스트하우스 운영, 대상농촌재단, 도시재생센터 등) ◦ 2023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으로 고로컬 창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토박이 ◦ 2023년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으로 유입

1. OO농촌 지역으로 들어온 배경과 계기

(구어체 질문) 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OO지역으로 내려오겠다고 생각했는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왜 하필 OO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국회에서 정책비서관(지리적 표시제 관련 경영체 관리 업무) ◦ 정책비서관으로 지리적 표시제 실태조사 중 농업의 고령화 현실 마주함 ◦ 연고가 있는 예산에서 시작 ◦ 현재 사무실(서울)과 업장(예산) 분리 운영 중 ◦ 중간유통, 제품개발과 관련된 업무 수행(예. 고덕 태신목장: 버터, 크림치즈 개발, 경북 영청: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육포)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적인 면이 있음 ◦ 고향이 예산이라 자주 왕래함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필요(주거비용, 생활여건) ◦ 관악구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 ◦ 친구 제안과 2023년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을 계기로 유입 ◦ 예산이 서울보다 경쟁력 있겠다 싶은 생각에 유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적 유입 ◦ 2023년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을 계기로 유입 ◦ 서초구에서 4년동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근무(계약직의 비애를 보고 느낌) ◦ 박△△의 권유로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에 대해 전혀 몰랐음 ◦ 현재 돌봄센터에서도 근무 중
--	--

2.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OO농촌 지역 비교 시 장단점, 만족도

(구어체 질문)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OO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전반적으로 OO지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이 있나?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인프라 풍부 ◦ 현재 거주지: 예산 - 장점: 건강, 환경, 주거환경,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 단점: 아이들을 키우기에 정주여건, 인프라 부족(현재 주말부부인 이유), 서울 토박이 와이프의 시골 이전 부담감 상승, 교육의 범위 좁음, 예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힘들, 도보 이동 불가, 생활인프라 부족 ◦ 만족도(삶, 생활): 9/10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병원, 교통의 편리함, 프라이버시 존중 - 단점: 자차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 ◦ 현재 거주지: 예산 - 장점: 층간소음, 고성방가의 문제 없음 - 단점: 병원(최소 30분), 교통(자차 없이는 불가), 야간 음주시 대리운전, 대중교통 불가,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 좁음(친하게 지낼만한 친구 없음) ◦ 만족도(삶, 생활): 7/10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다양성이 인정됨 - 단점: 콘크리트 세상, 사람에게 치이는 세상 ◦ 현재 거주지: 예산 - 장점: 여유로움, 사람한테 치이지 않음, 자연환경 좋음 - 단점: 보수적인 지역, 교통 불편 ◦ 만족도(삶, 생활): 7/10점

3. OO농촌 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전반 & 4. OO농촌 지역에서 일할 거리(생계, 먹고 사는 것)와 활동 거리 평가

(구어체 질문) OO지역에서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실제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구어체 질문) OO지역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막상 내려와서 보니 처음 생각과 현실 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할 거리 관점’에서 OO지역이 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이 있나?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가 근교에 있어 일하기 수월함(내가 하는 일의 소재지가 근교에 있음) ◦ 실제 삶의 모습(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일할 젊은 친구 뽑기 힘들 → 맨파워 힘들 ◦ 불만족스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에서 타지역의 청년활동가, 창업가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음(청년 창업지원금 등)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리는 크게 없음. 예산이 고향이라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음 - 활동공간, 주거마련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 - 유희공간이 많을것이라 생각 ◦ 실제 삶의 모습(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빈집은 많으나 매물 거의 없음, 주거 가격은 싸나 생활비는 서울보다 더 많이 들어감 - (난방비, 지하수, 자차운영비 등) - 지자체나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센터 등 활용 어려움(유희공간은 많지만 활용이 어려움) - 접근의 어려움과 텃세, 인맥(아버지 등)을 통한 구하기 방법밖에 없음, 공간섭외 어려움 - 홍보를 할때도 서울에서는 인스타그램 SNS 활용, 예산은 플랜카드 홍보가 가장 뛰어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의성에서 일했을 때 청년 거주단지조성 하는 것을 보고, 막연한 지원을 기대했음 ◦ 실제 삶의 모습(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주거지원 전혀 없음, 기대 이하의 모습 -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음 ◦ 만족스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대술면 시상리에 있는 토종씨앗 박물관(마을자체 돌봄센터 운영) 같은 지역돌봄이 꿈이었는데 내가 하고싶었던 것(마을 자체의 커뮤니티 케어)을 발견하고 할 수 있게됨(예산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는 이유)

5.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할 거리(생계, 먹고 사는 것)와 활동 거리

(구어체 질문) 과거 기존 지역에서 하고 있던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농촌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무슨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을 할 계획인가?

참여자	구분	과거	현재	미래
박□□	생계/일할 거리	국회 정책비서관	현장운영(농산물 유통, 간단한 신제품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 신제품 개발 수도권 청년을 유입하여 청년마을 만들기(예. 예(산)리단길 맛의거리 조성)
	활동 거리	헬스, 수영, 수상스키, 보드 등	여건상 하기 쉽지 않음	
박△△	생계/일할 거리	식품회사, 여행, 게스트하우스 운영, 대상농촌재단, 도시재생센터	현재 고로컬 창업 (농어촌 민박업)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활용하여 빈집매입→리모델링→민박,	국내 거주 외국인을 예산군으로 유치하는 것 예산 백종원 시장 방문 후 덕산으로 관광 연계

참여자	구분	과거	현재	미래
			투어 운영 컨텐츠 투어를 위한 창작극(연극) 연출, 공연	
	활동 거리			등산, 아웃도어 커뮤니티 운영, 로컬컨텐츠 크리에이터
박○○	생계/일할 거리	웹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의성(4년): 지역컨텐츠 만들기 서초구 마을센터(4년): 주민공모사업, 교육, 주민자치교육	딱히 정해진 일정한 생계유지 급여 없음 (수당받음)토종씨앗박물관: 사회적농업지원사업(텃밭운 영), 돌봄센터:할머니들과 그림그리기 소셜그라운드: 제로웨이스트, 수공예 공방운영 주말 프리마켓: 비누체험	토종씨앗박물관 지원사업 더 받기, 마을 사무국장 돌봄센터
	활동 거리	독립책방(동화책 만들기)	동그리넷: 청년 마음 치유	

6. 하고 싶은 일(개인 욕구, 개인 입장) VS 해야 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일(공적 요구, 공적 입장))
- (구어체 질문) 당신 특기와 능력을 봤을 때, 자신있는 일(활동 포함, 이하 동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막상 들어와 보니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그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참여자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박□□	개인 욕구&입 장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것	예산지역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사람만나기, 사무실 업무, 현장업무	○ 일치
	공적 요구&입 장			지역 어르신들은 내 제품을 좋은가격에 팔아주기를 바라는 요구 온라인이 시장보다 싸게 팔 수 밖에 없음(가격 경쟁력 측면). → 광고비가 증가되고 괴리가 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지원사업이나 지원에서 텃세가 있음(절다는 이유로 양보해야 하는 입장) ⇒	

				청년사업가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애로사항	지역속에서 있다보니 경쟁이 떨어지고 최근 트렌드에 밀리는 느낌 → 젊은이들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느끼는 이유 일적인 면에서 나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상충하는 것(착함과 양보를 강요받는 것)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편의까지 봐줘야 하는 상황			
박△△	개인 욕구&입장	혼자서 하는일을 하고 싶었음. 그러나 와보니 따로 또 같이 하는일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	소도시(예산)의 지역컨텐츠를 발전시키고 알리는 일 나를 알리는 공간과(쇼케이스) 마련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전시하고 여행과 관광을 안내하는 역할 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건설	마을의 젊은 인력이 해야할 소소한 일거리(마을수로, 제초작업 등)	○ 일치
	공적 요구&입장			제초작업, 목자리할 인력(계절 노동) 도시재생, 지역센터: 수행할 인력, 참여인력,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 지역사회: 젊은 인력(거창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 마을행사 참여	
	애로사항	지역사회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과 관계가 있어 항상 나이스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것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박○○	개인 욕구&입장	조직에 맞게 적응하는 것(다양한 업무 수행) 디자인(전공)	마을의 평화,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행복하면 좋겠는 바램(봉사의 개념보다는 공동체 구축, 평화의 기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내가 중간 역할로서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받아 운영하는 마을사무장으로서의 역할 커머스컬처, 코디네이터	△ 일부 일치
	공적 요구&입장			토종씨앗박물관 관장님의 입장에서는 토종씨앗박물관(장애인과 텃밭 가꾸기)+돌봄센터운영(제조, 그림그리기) 같은 같이 운영해줄 사람	
	애로사항	논다는 마음으로 마을주민들과 교류하기에 부담감이나 적대감 없음			

④ 회의명 : 예산군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 일시 : 2024년 08월 21일(수) 10:00~18:00
- 대상 : 예산군 응봉면 평촌세곡길 7(한국특산물유통 법인 사무실)
- 참여자 : 박□□, 박△△, 박○○(서면대체),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이○○ 교수, 이△△ 팀장

1. (초입 단계) 기회 및 역할 탐색을 위하여 지역에 처음 와서 관계맺은 사람, 기관, 조직 (구어체 질문)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볼 때 누구를, 무엇을 처음 접했는가? 어떻게 기회를 탐색해 갔는가?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으로는 예산군과 해봉센터에서 먼저 손내밀어 주어서 참여를 시작함(해봉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아마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이 선정되어 있고, 청년이기에 먼저 접근해주신게 아닐까 생각함. → 사적으로 네트워크 넓히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행정(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접근이 큰 도움이 되었음(행정주도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중요성) 현재 예산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경력단절 여성)들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요리교실(로컬푸드)을 운영하던 분들임(협업관계에서 고용으로 이어짐) 사적으로는 고향이 예산이라 가능했던 것 같음. 충북 진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적관계 이상으로 접근이 힘든 한계가 있음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특정 일을 하겠다고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아님 2023년 청년마을사업을 계기로 예산에 유입 고향이 예산이지만 인맥이 없어, 예산군 도시재생센터로 연락했고, 박●●팀장이 여러 분야의 청년들을 소개해주었고, 행복마을지원센터 이△△ 팀장님과 연결됨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람 네트워크 연결. 함께 협력할 자원을 가진 사람들 소개/연결 청년마을사업을 준비하면서 공간이나 인맥의 도움을 많이 받게됨 현재 박△△의 여자친구(서울 토박이)도 유입되어 예산군에서 함께 연극(창작극) 준비중. 결혼을 통해 부부가 로컬 창작 연극과 공간콘텐츠를 운영 예정(제3자의 유입과 연결)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두 중간지원조직을 처음 찾아갔음. 우리가 예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했더니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마을 이장님, 작가 등 많은 분들을 소개받았음. 소개를 통해서 만난 주민분들과 미팅하면서 예산군을 이해하고, 목표로 했던 행안부 사업인 청년마을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정착을 시작함. 올 해 청년마을 위탁기업이었던 잇는연구소에 퇴사하면서, 비누공예 및 환경분야로 창업을 도전, 예산군에 수공예 커뮤니티가 꿈지락이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 등 활동을 하고 있었음. 활동멤버는 아니지만 지역에 문화행사, 플리마켓 등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서 부스 등 참여, 꿈지락 대표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연계해주셨음.

2. (관찰 단계) 청년이 바라본,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구어체 질문)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저출생·초고령인 ○○농촌 지역 사회가 유지·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그 이유는...

(구어체 질문) 지금 하는 일과 농촌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정주분야, 교육분야 필요. 본인의 현실에 대입하여 어린 자녀들과 서울토박이 아내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 일자리의 경우도 예산에서는 공장(생산직)밖에 없는 실정임. 본인의 학력이나 부모의 인식에 의해 생산직을 꺼려하게 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료시설)의 부족: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의 부재. 병원에 가려면 최소 30-40분 차로이동 필요 ◦ 친구(네트워크)의 부족: 나의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얘기할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결이 맞는 사람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음. 서울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사를 담은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부족 ◦ 일자리: 양질의 사무직 일자리 구하기 힘들. 지역의 행정직(양질의 일자리)은 지역 내 인맥을 통해 뽑히는 경우가 대다수. 계약직일지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의 유입이 가능함(임시방편으로 유입하는 데에 있어 최소한의 지원 필요) + 자기것을 무언가 할 의지나 욕구가 있는 청년이 내림. → 정착과정에서 최소한의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필요 ◦ 지역을 예산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 단기간 시골살이체험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지역이라고 생각해서임. ◦ 현재사는 마을에는 못자리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면서 마을 사람들과 인사, 안면 트게됨. 처음에는 막연하게 여행사(로컬투어, 지역살이)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보니 마을에 필요한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됨(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게됨) ◦ 현재 충남사회적기업 혁신센터 임팩트메이커로 선정되어 상하리 마을 구노인화관(유류시설)을 싼 값에 임차(15만 원/월). 마을방송국으로 활용하여 여자친구와 팟캐스트 “떠든사람”을 운영(1-2주에 1회씩 방송, 마을소식, 마을 농산물 홍보, 예산군 소식 등 전달)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방송국 설립(예산군은 64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비중이 가장 많고, 농작업을 하면서 라디오 청취가 많은 것을 보고 그 연령대를 포커스로 한 방송 시작)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지방에서 차가 없으면 어디를 갈수가 없다. 차를 구입하기는 어렵고, 공유차량이용도 없어 이동이 어려움, 지방이라고 다른 물가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차량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생활비가 부족함/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게 많음. 이동의 자유를 지자체에서 적극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함 ◦ 마을공동체 활동(커뮤니티): 청년 또래를 만날 기회도 없어 고민을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였음. 지역관계망이 촘촘한 곳에 청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청년이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점조직이 많아지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3. (수요-육구 단계)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에 내려온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 조건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어체 질문) 위에서 살펴본 일(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최소한 당신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하여 “일하는 환경 조건”은 무엇일까?(일하는 시간/일수/금액수준/기타 조건 등)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 MD능력 : 응봉면 현재지역 90% 이상이 1차 농업지역, 대부분 소농이라 소작농 판매가 어려움 ⇒ 무상으로 판로개척(예. 응봉면의 사파이어 포도 농가(18농가, 20톤) 박□□ 대표 판로 연결하여 롯데마트에 전량 납품) ◦ 응봉면 농사짓는 분들의 사무장 역할 수행: 지원사업 신청서 대신 작성해주거나, 지원사업 안내. 그러나 사업 마감일이 다가 오면 오히려 나의 일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어려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의 그루터기 사업과 같이 임산물 관리, 사업 홍보, 안내를 하는 활동가로 그루터기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 ⇒ 청년활동가를 통해 지역홍보가 가능하여 파급력이 좋음 ◦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듯. 현재는 마을 지인이자 무료로 봉사하고 있음.(SK에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인 SPC사업 준비중. 그러나 사회적기업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방송능력을 활용하여 유희시설로 방치된 노인회관을 방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방송(팟캐스트) 실현 ◦ 마을의 공동체성이 무너진게 아니라 “변화” 되었다고 생각. 고령화되어 변화되는 마을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에너지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 ◦ 집앞에 마을 할머니들, 이장님을 통해 마을 소식을 수집하고, 마을 인근의 생활권 범위를 중심으로 예산군 전체의 소식을 전할 예정 ◦ 여행사: 여행, 로컬투어를 하고있는데 플랫폼 주인(노재정 대표가 운영하는 사회적 충남여행 플랫폼)에 여행상품 테스트 베드로 올려 놓는 것.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원도심 로컬 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행홍보 콘텐츠 구상 ⇒ 지역 자원과 연계가 핵심임(로컬투어에서 리빙 라이브러리를 운영. 지역인을 섭외하고, 간접체험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발견할수 있도록 도움주는 과정 제공/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사업설명이나 멘토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해보는 과정 제공) ◦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방송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려면 결국에는 예산지원이 필요. 마을 방송국 사업은 초기 비용(최소한의 장비와 최소한의 공간)이 적기에 가능했음. ⇒ 충남 사회적혁신센터의 로컬은 공방이라는 동아리 지원사업(150만 원)으로 장비 구입(마이크 3대)과 임차비 지원(15만 원/월). 방송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재능봉사로 운영. 추후 광고를 붙이는 거나 성장은 본인의 역량이라 생각. ◦ 예산(돈)을 논외로 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시적 사용 공간(사무실, 숙박, 세미나, 회의 할수 있는)이 필요 ◦ 현재 하고있는 일들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지원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단계임. 수익성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작극, 대관업, 투어로 수익 창출 예정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강좌 프로그램 강사 및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등 운영 ◦ 프리랜서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셰어오피스 또는 당진 청년나래타운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 프리랜서 및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서 실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다양했으면 좋겠으며,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산업유치보다 청년이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문화에 관심을 두고 지원했으면 좋겠음. 문화형성이 곧 일자리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음. ◦ 본가에서 독립하여 농촌에 살면서 집을 구하는 방법부터 생활비 관리 등 혼자 살기 필요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안정적인 정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씩음.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농촌 지역사회에 맞는 독립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등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반이 있으면 좋겠음

4. (정책공급 단계)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사업의 공급 실태와 평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농촌에서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어땠는지 그 소감과 평가는? (만족, 불만족, 그 외 애로사항 등)

(구어체 질문) 당신이 경험해 본 그 청년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유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청년정책이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2인 인건비 지원 받음. 현재 사업장에 있는 2인의 직원교육과 인건비 1년 지원받음 ⇒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단기성. 기존의 고용했던 청년 지원불가. 지원의 기준과 기간 확대 필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사무실 직원을 예산에 내려오게 한적이 있는데 정주공간이 마땅치 않았음. 인턴 3명(여), 직원 1명(남)의 적당한 정주공간 찾는 것이 여의치 않았음. 모두 대표의 몫 → 외부 청년을 지역으로 데려오려면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활성화 필요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텐츠 관련 사업은 누군가를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023년 청년마을 사업을 할 때 예산군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인턴 1명을 뽑아서 지원해줌(예산군에서 일괄 모집, 채용, 파견해줌-청년일자리과/시급1만 원/주5일제) → 근태, 의욕없음, 커뮤니티가 안되어 큰 도움 되지 않았음. 군청의 일괄배치로 원하는 인력, 기반지식이 있는 인력 배치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음(불만족). 파견처의 상황을 밀접하게 고려한 인력 파견 필요. 예산 소진을 위해 갑자기 시행되는 사업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귀촌청년에 대한 사업지원 확대 필요 현재 귀촌자에게 주는 주거비용 대출지원(4.5%, 2년간 이자지원) 좋다고 생각 단기 일자리 정착 필요. 알바(시간제)형식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 벌수 있도록. 지역에 내려오는 청년들은 9-6의 정규일자리 생각하고 오지는 않음. 정착전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필요함. 특히 원하는 일이나 목표가 있어 내려오는 사람이 많음 공간지원사업(주거, 오피스 공간) 필요. 실제 거주지 이전까지는 유예기간 2-3개월 필요 정착을 마음먹기까지 1년의 탐색기간 필요 → 내가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되었는지(1년) 혹은 마을주민과 융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5년 이상)에 따라 “완전한 정착”이라고 생각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 (만족) 농촌 지역사회 제대로 경험하게 된 계기였음. 마을돌봄과 농사일을 배우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특히 마을돌봄을 통해 어르신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 농촌사회를 경험하는데 역할이 컸고, 청년이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를 알아가서 좋았지만, 주 4일 8시간 교육/실습 후 월 80만 원 지급 받는게 생활 균형에 맞지 않는 것 같음(비용의 적절성과 비용 지원 방식 불만) 영농후계자가 아니거나 서울 토박이가 농촌을 내려올 경우 이 정책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다면 이 지역에서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가질 수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농촌 지역사회유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앞으로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고민은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을에 정착하기 어려울 것 같음. 청년농업인 수당 이후의 다음 스텝 정책이 있으면 좋겠음 진입정책이 있다면 최소 3년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5. (방향 설정 단계)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요와 공급 일치여부 진단, 개선방향

(구어체 질문) 몇 년 해보니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육구나 역할과 주민의 육구를 결합할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 인생에서 보람도 있는 일 =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구어체 질문) 경험 상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은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농촌에 있는 청년을 정책과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가?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5년 동안의 사회성과를 수치로 계산하여 인센티브로 제공. 고용과 매출은 제외한 내용으로 박□□ 대표도 올해 지원서 제출함(지역 취약계층 농가들의 매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주제) 청양의 어찌다로컬 같은 청년지원사업 적극 지원 필요(청년 유입의 관점) 지원은 단기적 지원보다는 적은 비용이라도 꾸준한(장기) 지원이 필요. 한번에 큰 사업비 지원은 지
-----	--

	양.(예. 청양 어찌다로컬 투어사업은 지자체 지원으로 참가비가 무료임). 1년 지원사업으로 성과 만들기 어려움(결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가계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서 청년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됨. 중간지원조직이나 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해서 청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 ⇒ 지역에서 꼭 필요한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닐까? 원주민이 청년 유입을 반길까? 원주민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까? 라는 의문 현재는 농업(귀농)만 지원하고 있지만 눈에보이지 않지만 청년 유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귀촌 청년들에게도 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창농 모델”지원사업 필요 도시재생사업구역안에 있으면 1% 금리로 대출할수 있는 농촌지역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내포신도시도 수혜가 가능함 ⇒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세밀하게 사업지역 조정지원 필요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할 때 보람은 있지만 이게 농촌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보상은 없음 안정적인 일자리,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 해결하지 못한 과제임 자원은 한정적이고,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람은 고정이라 지역활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여전히 고민 최근 충남공익지원센터에서 받은 공익씨앗 지원사업으로 실행했던 치유라운드테이블 등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또래 청년의 집단상담과 커뮤니티 조성했던 일이 보람은 있지만 지원사업이라 인건비는 없음 나의 욕구와 주민의 욕구의 결합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같음. 여전히 외지인으로 보는 시선에서 서로 결합해서 무언가 일을해도 어려움이 많이 부딪힘. 충남 안에서 각 지역마다 성격과 특징이 다름. 예산군 안에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려야 함 단순히 산업유치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 오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함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진입정책은 있지만 정착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6. (마무리) 참여 소감 및 연구를 위한 자문, 제언

(구어체 질문) 현장 집담회에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그 외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감없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역 청년들이 간지러워 하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음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 작은 날개짓이 전국 단위로 퍼져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하기에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위해 또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에서 온지 이제 2년차라 아직 정착을 했다고 보기에 어렵지만, 그간 경험으로 이야기했음. 작년에는 있는연구소에 소속된 상태에서 일을 했다가 올 해 창업도전을 위해 독립을 하고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움 서울에서는 처지가 비슷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지방에서는 어떻게 자립해야할지 여전히 어려움. 일거리만 주어진다고 해서 정착하기는 어려운거 같음. 일을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찾기 더 어려워 보였음.

⑤ 회의명 : 홍성군 홍동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목적 :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 일시 : 2024년 8월 8일(목) 오전 시간대
- 장소 : 홍동면 마을활력소 1층 활력다방
- 대상 : 이○○, 신△△, 안○○, 나○○, 정○○, 신○○

0. 나에 대한 소개, 인사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젊은협업농장의 이주농부 프로그램으로 홍동을 알게됨 여러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홍동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 보고 관심을 가짐 2019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서울에서 홍동으로 유입 2022년부터 의료사협에서 일함 과거에는 홍보 관련 업무 했음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입 10년차 마을활력소에서 3년 반을 일하고, 현재까지 풀무우유 평촌요구르트에서 종사중(배달에서 가공까지 관여)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고, 마을업무도 보고있고, 양봉업도 하고있음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3부터 홍동에 거주 2018년부터 자주 홍동을 방문 12세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2015년 홍동에 땅을 구입하고 2018년에 집을지음(공동주택) 2020년 동네에서 알바하다가, 2021년 의료사협(현 의료조합)에서 근무

1. ○○농촌 지역으로 들어온 배경과 계기

(구어체 질문) 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겠다고 생각했는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왜 하필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설계사무실에서 친구가 협업농장을 추천(지인의 권유) → 협업농장에서 희망을 보고 이주 협업농장의 이주농부프로그램(별의별이주) + 행여나 프로그램 참여 → 젊은 협업농장에서 강의, 농업 체험, 견학 등을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되어 유입 홍동에 청년이 많은 것이 희망적으로 보임 원래는 전라도 출신. 전국적으로 일하다가 홍동에 정착하게 됨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출생. 경기도 과천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가고싶은 욕구(지역살이 욕구)가 생김(농사에 대한 동경, 주거비의 부담, 자연에대한 그리움 등 이유) 친구 중에 홍동을 잘 아는 이(김○○)가 있어 홍동에 내려와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마을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주를 결심하게 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2013년까지 직업군인생활. 사회와 단절된 생활에 답답함을 느낌 친구랑 배낭여행 하면서 농촌에 대한 매력을 느낌 → 나만의 터를 갖고 싶다는 생각(정체성의 확보) → 도시에서는 나만의 터 가지기 어렵겠다는 생각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제작소 지역뿌리센터에서 봉사해보고, 지역재단(박진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홍성을 견학하게 됨 → 홍성에 일자리가 있다고해서 유입하게 됨(취업)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에 회사생활을 하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29세에 그만둠 ◦ 회사를 관두고 같이살던 친구와 긴 여행을 하다가 공동주거를 시작함(6년정도) ◦ 다시 여행을 하다가 기존 주거형태에서는 공동주거를 이어가기 쉽지않음을 깨달음 ◦ 소도시에 공동주택을 지을 건물과 땅을보러 다니기 시작함 → 흘러흘러 홍동으로 유입 ◦ 과거에도 홍동에대해 흘러들기는 했지만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음 ◦ 공동주거를 위한 집짓기가 가능한 지역이라 홍동으로 유입

2.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농촌 지역 비교 시 장단점, 만족도 & 3. ○○농촌 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전반

(구어체 질문)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이 있나?

(구어체 질문) ○○지역에서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실제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미술관, 공연 등 문화인프라가 많다 - 단점: 답답하다 ◦ 현재 거주지: 홍동 - 장점: 가까운 바다, 근접한 서울 - 단점: 문화인프라를 채울 수 없는 것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청년들이 많아 네트워크가 많겠다, 다양한 관계 형성 가능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이주자에게 네트워크 없음, 일화성의 모임 성격, 읍내의 모임은 사업을 받아서 하기에 일회성 더심함 (사업비 소모의 성격) → 한계를 느낌 - (일자리)일하는 곳의 가치가 맞지 않아 좌절적이었음 → 사람과 법인조직에 대한 실망감(겉으로는 잘 되고 있어 보이나, 속내를 알고나면 실망감이 더 큼) ◦ 만족도(삶, 생활): 7.5/10점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경기도 과천 - 장점: 주거형태의 어려움, 대중교통을 활용하면서 여분의 시간 활용 가능 ◦ 현재 거주지: 홍동 - 장점: 주거형태의 쾌적함(가격대비 넓게 살수 있음), 자차를 이용하니 이동시간 줄어들, 아이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남, 주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 단점: 자차를 타고 다니니 걷는 시간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없음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농업 등 생산이 삶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며, 시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반농반X의 삶 - 늘어난 여간 시간에 홍동의 다양한 스터디그룹, 취미 활동, 스포츠 활동 기대 - 생활과 직장이 같은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다(가족의 관점) - 수도권이 소비하는 삶에 치우쳐있다면, 농사와 집가꾸기 등 생산하는 삶에 집중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농사에 소질이 없는 나자신 발견(농사는 취미 수준으로 유지) - 행정사무 업무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주 5일제 삶을 이어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여가 여건이 도시와 크게 차이남을 실감 ◦ 만족도(삶, 생활): 9/10점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경기도 성남 - 장점: 편리한 대중교통(자차 필요 없음), 생활의 단조로움, 집에 짐이 많이 없어 깔끔함 - 단점: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할수 없는 제한적인 삶,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것에 대한 자괴감(소비만 하는 삶) ◦ 현재 거주지: 홍동 - 장점: 목장(평촌요구르트)에서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과 작지만 유기축산을 실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 단점: 하고싶은 일을 다 하다보니 짐이 늘어남, 안정감과-안주사이의 경계 느낌(조급함, 불안함 등)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책이나 영화에서 보는것과 달리 조금씩 축적되어 만들어가는 삶의 어려움 ◦ 만족도(삶, 생활): 8/10점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공동주거를 하며 같은방을 쓰니 사람을 온전히 만나야한다는 장점(즐거움)이자 단점, 문화적 다양성(대중문화), 대중교통의 편리함, 임시적·일시적 노동의 다양성 ◦ 현재 거주지: 홍동 - 장점: 공동주택을 직접만들어 사니 공동주거하기에 편리한 집의 구조 - 단점: 집의 정리나 주변정리가 나의 몫, 문화적 부분 축소, 자차 없이 이동 불가(차를 소유해야함), 집 안과 밖에서 새로운 이웃을 사귀고 만나야 하는 것(부담이면서 즐거움), 서울보다 생활비가 많이 듦, 공구나 기계의 공동사용이 어려움, 노동시간 늘어남(임시, 일시적 노동기회 거의 없음)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공동체의 삶, 여유로운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자연의 시간에 내가 맞추지 못하니 텃밭 농사도 어려움(서울은 화분 텃밭 등을 통해 통제 가능), 노동 시간과 범위 더 늘어남 ◦ 만족도(삶, 생활): 7/10점

4&5.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할 거리(생계, 먹고 사는 것)와 활동 거리

(구어체 질문) 과거 기존 지역에서 하고 있던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농촌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무슨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을 할 계획인가?

구분		과거	현재	미래
정○○	생계/일할 거리	건축설계	도시재생지원센터	추후 생각(현실에 충실)
	활동 거리	미술관, 사람만나기	네트워크 참여, 미술, 피아노, 요가, 소규모 모임(과거 홍동 유입시) 소규모 모임, 그림책 만들기(현재)	추후 생각(현실에 충실)
안○○	생계/일할 거리	홍보일	의료사협	모름(프리랜서)

구분		과거	현재	미래
	활동 거리	교회, 공동체 활동	요리(집안), 가사일	축구모임(스포츠 활동), 책모임, 사진(전공) 일 등
이○○	생계/일할 거리	직업군인(공군)으로 항공기 정비, 행정	평촌목장(평촌요구르트)에서 위생관리, 행정, 배달, 가공 등 전분야	현재와 비슷할 듯
	활동 거리	교회, 자기개발활동(독서모임 등) ⇒ 개인의 만족 중심	작가, 유기농 돼지키우기, 지역활동(마을활력소, 장터에 유기농 음식판매), 양봉업 등 ⇒ 지역의 활성화 중심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업, 걱정거리 등을 작가로써 글로 정리하는 것
나○○	생계/일할 거리	노동조합 사무국	홍성 의료사협에서 사업수행, 코디네이터 역할	의료사협 일을 계속할지 고민
	활동 거리	생산적인 삶(관계, 일하는 것, 먹는 것)	공동주거, 공동체의 삶, 공유지와 관련된 활동, 읽기모임 등	공동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하고 싶은 일(개인 욕구, 개인 입장) VS 해야 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일(공적 요구, 공적 입장))
- (구어체 질문) 당신 특기와 능력을 봤을 때, 자신있는 일(활동 포함, 이하 동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막상 들어와 보니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그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정〇〇	개인 욕구&입장	상대방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능력(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고민) 가치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하고싶은 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 일을 하면서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	어떤 일이던 상관없이 조직, 대표, 리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 일치
	공적 요구&입장			인구 유입, 청년 유입	
	애로사항	청년을 유입하고 싶다면 청년 창업이 우선이 아니라, 청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인데 너무 청년 창업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그것을 생각하는 리더 없음)			
안〇〇	개인 욕구&입장	기획, 행정 예술(콘텐츠 제작)	농업 예술(콘텐츠 제작)	기획 행정	△ 부분 일치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공적 요구&입장			기획, 행정	
	애로사항	주5일제 근무로 생각보다 업무 외 여가 시간(예술, 농사) 확보 어려움.			
이○○	개인 욕구&입장	글쓰기(좀스러운 것을 정제하다보니 글을 쓰게됨) 맹목적이고 좀스러운 것(의미있는 것에 뛰어드는 것)	나의 주변, 여건, 생활에 대해 글로 포장해서 공론화 하는 것(책) 내가 하고있는것에 의미를 찾는 것을 수행하는 중임		○ 일치
	공적 요구&입장			이웃복지사처럼 마을공동체를 돌보는 것(마을속에서 이웃의 상태를 체크하고 돌보는 것) 마을을 알고, 마을주민들의 시설을 고치는 돌봄의 일자리(유입되는 청년에게 마을에 대해 알수 있도록 역할 부여) 요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어르신을 공동으로 돌보는 것 ⇒ 일을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애로사항				
나○○	개인 욕구&입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듣고, 호응해 주는 것 농담처럼 말하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해 보는것	마을축제 만들기, 후원연대활동, 지원사업, 사람들과의 어울림	공동주거	
	공적 요구&입장			정책의 홍수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책사업과 지원사업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생각	
	애로사항	농촌의 정책사업,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 → 사업안에서 살 것 같다는 느낌.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생각			

⑥ 회의명 : 홍성군 홍동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전 시간대

○ 대상 : 홍동면 마을활력소 1층 활력다방

○ 참여자 : 이○○, 안○○, 나○○, 정○○, 신○○, 신△△

1. (초입 단계) 기회 및 역할 탐색을 위하여 지역에 처음 와서 관계맺은 사람, 기관, 조직 (구어체 질문)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볼 때 누구를, 무엇을 처음 접했는가? 어떻게 기회를 탐색해 갔는가?

정○○	◦ 젊은협업농장 밴드에 신○○ 선생님이 도시재생센터 일자리 구인을 올려서 바로 서류준비하여 합격
안○○	◦ 홍성으로 유입 전에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기는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음 ◦ 사람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논밭상점에서 허브 포장 알바를 시작(집에서 가깝고, 농업을 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농작업 일이라 선택) ◦ 밴드를 통해 의료사협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
이○○	◦ 사적 관계. 책모임(녹색평론읽기 모임)을 통해 첫 직장인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를 소개 받음 ◦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다 현 직장인 영농조합 풀무우유 소개 받음.
나○○	◦ 홍동으로 유입 첫해에 관계맺기한 사람들을 통해 알바같은 단기 일자리에 근무(주민자치회에서 사무국장과 별개로 업무를 도와주는 일, 뜰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업무와 운영일을 봐주는 일 등) ◦ 비공식적 일자리나 일은 있는데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의료사협 밴드에 의료사협 구인공고 떴서 내용을 보고 지원

2. (관찰 단계) 청년이 바라본,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구어체 질문)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저출생·초고령인 ○○농촌 지역 사회가 유지·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그 이유는...

(구어체 질문) 지금 하는 일과 농촌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정○○	◦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단순 나의 일이 노인들과 그림만 그리는 일이면 하고싶지 않음)그러나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다면 공익사업과 연결가능하다고 생각 ⇒ 마을의 자립에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활동, 케어(돌봄) 부분을 세트가 아닌 마을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주는 것 필요 ◦ 본인이 하는 일에서 완전한 돌봄(케어)의 영역은 빠져있음 ◦ 그러나 활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기획해서 같이 활동하는 일 같은 S/W 사업(예. 그림그리기 활동, 하모니카 같은 악기 배우기 활동) + 협동조합이 하는 H/W 사업(예. 집수리 자원사업, 공원짓기 등)
안○○	◦ 많이 부탁받는 일로는 데려다주는 교통(이동)문제 ◦ 독거어르신의 정기적 청소(환기, 주거환경, 생활환경 청소) ⇒ 요양보호사처럼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을 듯 ◦ 의료사협에서 꾸러미 배달부 사업(건강 먹거리 배달 예. 구운계란) 운영중 ⇒ 지속적인 만남과 이야기

	나눔을 통해 깊은 관찰이 가능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제로써는 모두 필요한 일 같음. 그중에 뽑아야 한다면 1차 산업인 농업이 건강해야 다른 업종이 같이 유지될 것 같음 공동노동이 없어졌기에 농촌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파편화됨 ⇒ 마을기업이 있지만 성과중심의 특징이 있어 마을차원의 공동작업이 있으면 좋을 듯 부녀회장님에게도 수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존의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에 대한 댓가 필요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일(목장 원유를 요구르트 가공. 지역 주민 1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문제 쓰레기 치우는 문제(냉장고 정리, 쓰레기를 가져다 수거장에 갖다놓는 것) ⇒ 젊은 친구들을 돌봄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함 지역소멸에 맞닥뜨린 현재에 청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작은 마을이 유지되고 있음에 의의를 두고 공공성 측면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의료사협에서 현재 하는일은 적성에 맞지만 관심이 가는 일은 아님 ⇒ 돌봄도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 친구 관계의 돌봄이나 서로를 돌보는 관계속에서 치유될 수 있으며, 질병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유의미함(의료사협 일이 재미있지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음)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음 ⇒ 노후에 어떤 생활(대안적 공간이나 활동범위)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있음. 면에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구상이 있음

3. (수요-욕구 단계)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에 내려온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조건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어체 질문) 위에서 살펴본 일(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최소한 당신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하여 “일하는 환경 조건”은 무엇일까?(일하는 시간/일수/금액수준/기타 조건 등)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의 경험(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통해 마을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케어하는 것 건축설계 경험으로 설계 사무실과 협업하여 마을길 조성사업에 기여하고, 마을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채우는 활동 마을사무장 역할: 기획안 작성, 정산등의 기능. 청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컴퓨터 능력을 탑재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어른신을 가르쳐서 마을사무장 역할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함) 합당한 조건에 일할 곳만 있으면 일하는 환경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이후는 내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너무 많은 지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합당한 일터만 있다면 가능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의료사협에서 하는 돌봄, 케어 일이 직장의 업무이기에 적성에 맞는지, 맞추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음 의료사협은 충남도 생활임금 정도로 페이 수준을 맞춰주고 있음. 급여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마저도 이런 일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함(1:7 경쟁률) ⇒ 만족의 수준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라 단정짓기 불가함 농촌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과 금액수준에 대해 원래의 기대수준에 대비해 조정이 필요(도시와의 다른 현실 자각 필요)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쓰는 능력을 활용해서 마을소개 콘텐츠 제작(예. 마을잡지, 마을의 내용이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마을의 글쓰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력을 활용하여 로컬 생산자회 농산물을 상품화 ◦ 로컬푸드 사업을 지역꾸러미에 연결하는 것 ◦ 농촌의 임금과 근로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두터운 선배 세대,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 안전하면서 적절한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거주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독립적, 자율적인 삶 ↔ (원주민)삶의 기준이 다르고,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 → 유입되는 청년의 욕구와 원주민의 니즈가 맞는 부분이 있을것인가 의문이 듭 ◦ 농촌의 현실에서 뻗은 수입 이상의 고수입 직장을 원한다면 농촌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함 →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 찾기

4. (정책공급 단계)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사업의 공급 실태와 평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농촌에서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어땠는지 그 소감과 평가는? (만족, 불만족, 그 외 애로사항 등)

(구어체 질문) 당신이 경험해 본 그 청년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유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청년정책이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	◦ 이주농부프로그램 : 인적 네트워킹을 원했지만 사람 속에서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름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성과낼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 중요(지원받기 위해 조직 만드는 것 반대)
안○○	◦ 수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 돌봄활동(노-노케어)에 인건비 지급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이 있거나 사업비를 받고 끝까지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을 보기 어려웠음 ◦ 공동체 분리, 사업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분리 됨 ◦ 청년이 지역에 남게 되면, 떠나든 청년 정책이 농촌에 기여되는 바는 미미하다고 보여짐 → 사업의 포커스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 아쉬움(개인별로 사업을 지원받으니 주변의 시기, 질투도 많음) 공동체 기여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필요 ◦ 청년이 아닌 주민이 중심인 정책이면 좋겠음. 실제 살고 있고, 이미 공동체성을 발휘하고 있는 부녀회 장남에게도 수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기존의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에 대한 댓가 필요)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 매우 좋았음. 인건비는 쓸수 없지만 규제가 최소화 되어 주민들의 물품지원 자율화, 정량적 평가가 없는 사업 ◦ 마을기업 청년인턴사업, 주민자치운영 예산사업, 농식품부의 의료조합 사회적 농업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등 → 인건비 지원 불가, 증빙문제, 지방정부와 소통문제, 집행하기 편한방식으로 설계되어 효율적 사업비 활용 불가

5. (방향 설정 단계)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요와 공급 일치여부 진단, 개선방향

(구어체 질문) 몇 년 해보니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욕구나 역할과 주민의 욕구를 결합할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 인생에서 보람도 있는 일 =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구어체 질문) 경험 상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은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농촌에 있는 청년을 정책과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님이 있는 한 마을을 기준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 필요. 마을주민에게 맡기는 것 불가 ⇒ H/W 지원 보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예. 마을사무장의 인건비를 주는데 투자하고, 공간지원 등 기본적 활동을 할수 있는 지원을 하면 추가 사업을 따올수 있음). 마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역할을 하는 것 필요(현재는 활동비, 인건비 지원 불가) ◦ 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방정부(시군)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무원들이 계속 로테이션되니 담당자(공무원)이 사업의 의미를 이해못하고 중간지원조직과 갑질관계로 변해버림 ⇒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건 맞지만, 군청과 별개로 돈을 받는 경로가 개선되어야 함 ◦ 전문적인 외부사람이 3명정도 지역에와서 마을주민을 포함한 법인형태로 운영 필요. 대신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하며, 정관을 만들어 엉망인 운영진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결국은 사람 문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필요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증빙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본질을 가리게되는 문제 발생 ◦ 사업비 중에 인건비만 있으면 활동이 가능함(현재 인건비 지원 불가). 사업비 없어도 운영은 가능함 ⇒ 지출성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개선이 필요 ◦ 회계연도 기준의 금액 사용제한 문제 ⇒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사업성과와 보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짐 ◦ 행정 담당자의 적극행정 역할 필요 ⇒ 규제와 범위의 한계로 간극은 반드시 존재. 행정과 시행자의 간극에 대한 이해도 필요,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숙제임. 사업선정 후 행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 교류 필요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적인 조건 외에 농촌에 남아있을 만한 이유 필요(예. 공동체 기여 등) ⇒ 내가 사는 곳을 고향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 지역사회도 그만큼의 성장과 안정(터전)을 제공할 자세가 되어야 함 ◦ 농촌의 기본 산업인 농업 수입이 연1,000만 원인데, 도시 수준의 근로환경과 임금 조건 발생이 어려움 ◦ 구체적인 실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 자리 마련(청년 활동가 교육과 지역을 잘 아는 전문 조직 필요) ⇒ 중간 세대와 중간지원조직 필요. ◦ 청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 기여가 성공이 되도록 성과지표 평가 ◦ 권한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필요. 지역에 따라 정책을 설계 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역량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필요(중간지원조직 강화를 통해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아닌 협업 느낌) ◦ 구매 보조금이 아닌 활동에 지원이 되는 활동(인간)비 지급. ◦ 돌봄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선뜻 일자리만 보고 청년이 봉사정신을 갖고 지역에 유입되기에는 한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제3자의 원초적,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일이 필요함에도 일자리로 매칭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됨 ◦ 사업지원금 목적이 공익기능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업 존재 자체에 성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청년인턴사업이 많은데 청년인건비만 주고있음. 새로운 사람(청년)을 받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를 마을의 조직이나 기관에 몰아주어 마을일자리로 청년이 진입하는 방식 필요 ◦ 청년의 농촌살아보기 방식(무조건적 지원)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 ⇒ 꼭지달지 말고 지역살이에 대한 통합적 지원방식 필요 ◦ 너무나 많은 지원사업들 정리가 필요 ◦ 정부 역할과 재원에는 한계 존재, 기업에게 책임과 재원요구 필요(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 능력없는 사람도 시스템에 맞추어 최소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조직의 형태(법적 혹은 자율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

6. (마무리) 참여 소감 및 연구를 위한 자문, 제언

(구어체 질문) 현장 집담회에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그 외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감없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좋았음 ◦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음 ◦ 느리지만 정책이 바뀔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함 ◦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집담회 형식이라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음 ◦ 의료사협이 아닌 다른문제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음 ◦ 연구자 중에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길 바람

7 회의명 : 홍성군 장곡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1차)

- 목적 : 농촌에 유입한 청년들의 활동기회와 역할 탐색과정,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 일시 : 2024년 8월 8일(목) 오후 시간대
- 장소 : 장곡면 함께하는 장곡협동조합
- 대상 : 서○○, 김○○, 박○○, 한○○, 신△△, 신○○

0. 나에 대한 소개, 인사말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곡 광석리 거주 ◦ 귀농 7년차 ◦ 친환경 농사 짓고 있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별의별이주(이주농부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2023년도 직장을 구해서 장곡 유입 ◦ 현재 지역협력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근무 ◦ 집은 홍성읍에 있음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귀촌 ◦ 현재 협동조합 행복농장 실무자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귀촌 ◦ 행복농장에서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농업 하는 곳(거점농장)들의 네트워크. 교육, 거점농장 일 하고있음 ◦ 장곡에서 일하고 있으나, 집은 홍동면에 있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률센터 농본(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음 ◦ 홍동에서 직장생활, 장곡에서 주거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2 유입 ◦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일하고, 밭 300평정도 농사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곡 유입 10년차 ◦ 함께하는 장곡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함

1. OO농촌 지역으로 들어온 배경과 계기

(구어체 질문) 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OO지역으로 내려오겠다고 생각했는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왜 하필 OO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 북부의 비영리단체에서 일함 ◦ 도시생활에 괴리를 느끼고, 귀촌한 장곡 지인(선배)집에 왔다가 집이 있다고 해서 유입 ◦ 고향은 충남 태안 ◦ 옛날부터 귀농을 꿈꿨음 ◦ 텃밭농사를 꾸렸으나 생계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사람, 서울에서 생활 ◦ 코로나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 겸 다양한 지역살아보기 프로그램 체험(21.9~23.1) → 일자리 구해져 장곡에 정착/유입 ◦ 정○○선생님이 일자리를 알아봐줬고, 일자리가 구해져서 유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이 고향 ◦ 장곡에 일자리와 집이 있다고 해서 유입 ◦ 과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간호사 ◦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행복농장을 알게되었고, 궁금해서 현장방문하고 연락처를 남김 → 행복농장에서 일할사람이 필요, 당시 직업이 없어서 단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장곡 유입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동으로 오려다가 집이 없어서 장곡에 거주 ◦ 2015년부터 홍성 왕래(귀촌할 것이라 주변에 말하고 다님) ◦ 생태농업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풀무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입 ◦ 서울에서 거주했는데 성향과 기질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낌(홍동의 가치나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서 유입)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 거주했음 ◦ 지인(김○○) 따라서 장곡으로 유입 ◦ 도시의 시스템과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어 떠나고 싶은 마음 있었음 ◦ 비영리단체에서 일했어서 가치를 쫓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살 때 돈을 못버는 일을 하고있었기에 미래에 대한 고민 커짐 ◦ 홍동에 한달에 1번 농사배우러 왔다가 1년간 살아보자고 결심하여 유입

2.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농촌 지역 비교 시 장단점, 만족도 & 3. ○○농촌 지역에서 기대하는 삶과 현재의 삶 전반

(구어체 질문)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지점이 있나?

(구어체 질문) ○○지역에서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실제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경기 - 장점: 도보이동 가능, 자전거나 대중교통 활용 편리 - 단점: 문화생활 즐기려고 할 의지가 없었음 ◦ 현재 거주지: 장곡 - 장점: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갈망)이 커짐,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태도 생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여행, 문화생활을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 - 단점: 문화생활의 어려움, 술집의 선택지가 적어 혼술의 일상화, 대중교통 활용성이 떨어져 음주운전의 위험성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홍성 내 작은 규모 자발적 모임에 대한 기대, 대안적 사회문제 고민하고 채워야지 하는 결심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생계농업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고, 모임 참여가 줄어들음(이상과의 괴리 발생) ◦ 만족도(삶, 생활): 9/10점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주거비 안들었음(하고싶은 것을 모두 하고 살았음), 원하는 것을 편하게 취득, 취득할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하고싶은 것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지출 늘어남 - 단점: 선택지가 많다보니 바쁜 삶, 선택지에서 밀리는 삶(예. A모임을 못오면 B모임 가는 것), 빌라에 주거해서 계절감이나 변화에 둔감 ◦ 현재 거주지: 장곡 - 장점: 여유가 있는 삶(갑자기 만나는 것에 익숙), 저녁시간 만남이 활발함, 만나는 사람들의 연령대 스

	<p>펙트럼이 넓어짐(20대~70대), 자연환경, 주민들과의 친한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점: 먹을 것에 대한 선택지 좁음(특히 배달음식), 배달음식 만족도 떨어짐,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시급 수준, 지역의 정보 습득 어려움(정보의 접근성 어려움)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여유로운 삶, 배움과 연결된 삶, 여행자의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장곡으로 이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 동일함(만족) ◦ 만족도(삶, 생활): 8/10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인천 - 장점: 인간관계가 주변에 있어 가까움, 편의시설 접근성 높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쉬움 - 단점: 정신적 스트레스, 소비하는 삶에 대한 한계(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 현재 거주지: 홍동(장곡) - 장점: 소비하지 않아도 실수 있는 삶, 아는사람이 있어 안전하다는 생각, 자연환경 - 단점: 자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움, 일과 생활의 분리가 어려움(일의 경계가 모호함),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리틀포레스트 같은 좋은 풍경에 여유로운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생활과 시간의 측면에서 모두 주변의 부지런한 사람들(농부)의 모습을 보며 나도 바빠지는 삶(마음의 여유 없음) ◦ 만족도(삶, 생활): 9/10점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문화편의, 의료시설 접근성 좋음, 교통 편리, 쓰레기 배출 편의, 문제발생 시 AS 서비스 편리 - 단점: 인구의 밀도 높아 복잡함, 주변환경의 답답함 ◦ 현재 거주지: 홍동(장곡) - 장점: 집을 고쳐야하니 자립심이 생김, 낮은건물, 확트인 시야 - 단점: 자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 쓰레기 배출(특히 폐기물), 주택이라 집에 고칠게 많은점, 나의 생활인 프락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집 소유가 늘어남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나의 자유시간 확대, 농사를 지을 것에 대한 기대와 환상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농사에 대한 나의 내구성에 대한 한계, 나의 게으름과의 대면, 농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자괴감 ◦ 만족도(삶, 생활): 8/10점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서울 - 장점: 도보생활 가능, 대중교통 편리함, 문화생활 다양,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음(장점이자 단점) - 단점: 주거비 너무 비쌌(주거 안정성 결여), 층간소음, 밀집된 주거로 인한 사생활보장 어려움, 생활소음 등,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고 느낌 ◦ 현재 거주지: 장곡 - 장점: 지인들을 초대해서 늦게까지 떠들어도 되는 것(주변 눈치볼 필요 없음), 작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주거비용 저렴 - 단점: 교통이 불편, 일자리 선택지가 많이 없음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여유로운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크게 여유롭지는 않으나, 나의 선택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게됨 ◦ 만족도(삶, 생활): 7/10점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지: 도시 - 장점: 일과 삶이 분리되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혼자 책임지는 삶, 돈만 내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음, 독립적, 자율적 인간 ◦ 현재 거주지: 장곡 - 장점: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관계 안에서 내가 기여할수 있는 것을 찾게됨, 주변상황들에 의존적 삶이 되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음(필요한 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이라 생각) - 단점: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아짐(집수리 등을 부탁 해야하는 것), ◦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상) - 내가 하고싶은 일을 찾게될 줄 알았음(농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 ◦ 실제 삶의 모습(현실) - 계속해서 할 일(일거리)이 생김 -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못했음(최근 2년부터 월급, 4대보험 가입) - 일선택에 있어 나의 욕구보다는 주변의 부탁, 요청에 의한 일이 많음(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알아서 되겠다 라는 느슨함이 생김) ◦ 만족도(삶, 생활): 8/10점

4&5.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할 거리(생계, 먹고 사는 것)와 활동 거리

(구어체 질문) 과거 기존 지역에서 하고 있던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농촌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무슨 일(생계 목적) 또는 활동을 할 계획인가?

구분		과거	현재	미래
한○○	생계/일할 거리	이주민 지원단체, 장애인 인권단체, 환경단체(주민조직에서 권익보호 활동 업무)	농업(하우스 500평, 노지 300평_방울토마토, 미니 파프리카, 단호박) 주로 혼자 농사하며 인턴 주2일-3일 활용	1~2년 휴경할까 생각 중 과거에 했던 활동을 할까 생각하고 있음(지역에서)
	활동 거리	취미활동 따로 없음 주민조직과 계속 함께해서 일과 삶 분리 안되는 삶	주민자치회 생활환경 분과	
신△△	생계/일할 거리	중간지원조직인 문화예술재단에서 사업팀, 기획팀 강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 펫시터, 물류센터 등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팀 연구원	어떤 형태로든 살아지겠지 하는 마음
	활동 거리	동네에서 환경모임 지역네트워크 소비위주의 활동거리: 문화생활, 공연 등	공유텃밭, 평민마을학교, 책모임(3개), 술모임, 걷기모임, 온라인 불교공부	현재 활동거리가 정리되면 생각해볼 계획
박○○	생계/일할 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	행복농장에서 거점농장의 교육, 세미나, 중간지원조직 관리하는 실무자	정신장애에 있는 사람을 기관 밖에서 만나고, 도움을 주는 일

구분		과거	현재	미래
	활동 거리	교회(종교생활), 자기개발(악기)	평민마을학교 참여,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 활동	면 소재지에서 어묵장사
김○○	생계/일할 거리	시민단체(녹색당,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공익법률센터 농본(시민단체)에서 2일만 활동가로 지냄 그 외에는 예산감지전국네트워크(시민단체)에서 회계처리, 사무국 일	조직이 있을때까지는 계속 할 듯
	활동 거리	교회(종교생활)	막걸리 빚어 먹는 모임	
서○○	생계/일할 거리	종교 NGO단체(학생들에게 사회문제, 대안적인 삶 안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회계, 사무, 행정)	1년 정도만 적극적으로 생계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하고싶은 일을 했던 경험이 없어서)
	활동 거리	운동, 책모임	독서모임(마을, 온라인), 생활체육 운동모임(축구, 배드민턴), 경험을 위한 농사, 글쓰기(일소공도)	정말 내가 하고싶은 것을 늘려가고 싶음(봉사 등)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 소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신○○	생계/일할 거리	비영리 민간단체(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_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처음에는 활동이었으나 현재 생계가 되었음 농사 → 협업농장(안내자, 진행자) → 마을학회(조사, 연구, 교육), 연구소(사무국장) → 주민자치회 → 의료사협	
	활동 거리	여행 시민단체 활동(교육공동체 밖에서 농사배우는 활동)	일할거리와 활동거리의 경계가 모호함	

6. 하고 싶은 일(개인 욕구, 개인 입장) VS 해야 하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일(공적 요구, 공적 입장)
- (구어체 질문) 당신 특기와 능력을 봤을 때, 자신있는 일(활동 포함, 이하 동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가?
- (구어체 질문) (당신의 욕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막상 들어와 보니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 (구어체 질문) 그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는지?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	------------------------	------------------------	-----------------------------	----------------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한○○	개인 욕구&입장	일 벌리는 것	내가 농사짓는 작물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 만들기(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것	
	공적 요구&입장			의사결정의 체계화 구조 설립 마을별로 조사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이장훈자가 아닌 체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마을단체 기구를 만드는 것 이러한 구조의 확립을 위해 고령화된 이장들의 권역별 사무국 필요(청년의 역할)	
	애로사항				
신△△	개인 욕구&입장	행정업무 기획업무 동물, 환경운동에 관심	도시의 삶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에 대한 니즈		
	공적 요구&입장			이장님(마을)의 사무일을 해줄 수 있는 젊은 사람	
	애로사항				
박○○	개인 욕구&입장	행정업무, 서류만드는 일 5명이내의 사람을 만나는 일 간호사 자격으로 하는 일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서 경력이 쌓이는 일	안정적인 일(4대보험/월급) ↔ 대안적인 일(불안정적인 일) 대립함(충돌)	장곡면 주민으로써 참여하는 일(예. 어묵장사) 사회적 농업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농업,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일	
	공적 요구&입장			마을을 가꾸는 일(제초, 쓰레기 줍기, 가꾸기)	
	애로사항				
김○○	개인 욕구&입장	시민사회 일	반농반X(농업의 일 늘이는 방식으로 삶 전환)	시민사회 일 지역에서의 시간과 일을 늘이고 싶음(지정 2부 3반 반장 역할 수행 중, 연락책으로서 임원회의 참여) 홍성의 쌀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 가공하는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일(1차/2차/3차 농업을 나누어 정책화) → 막걸리모임 하는 이유(쌀소비 증진)	
	공적 요구&입장			마을의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남성(개발위원, 임원, 이장)이지만 일할 사람은 여성(부녀회) ⇒ 실무조직의 명칭과 구성변경 필요 마을의 이장별 사무국장(이장님 비서)	
	애로사항	<p>농촌의 노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시간약속 개념없음, 나서서 하려하지 않음 마을의 의사결정 체계의 문화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일할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 지게 하는 문제 마을어르신과-청년과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것인가 하는 고민 농촌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지역에 뿌리내려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p>			
서○○	개인 욕구&입장	단순 반복하는 일 했었던 일을 하는것	<p>대안적인 방법으로 소규모 농업 마을공동체를 잘 일구어 보고 싶은 것 농촌스테이를 통해 관계있는 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씬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p>		
	공적 요구&입장			<p>내가 하고싶은 일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음(당연하게 요구를 받는 경우 多) 간단한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 필요하지만 뎡가로 환산이 안되는 일(예. 마을축제에서 포스터 만들기)</p>	
	애로사항	<p>청년들이 없지 않지만 마을에서 하는 활동에 청년들이 나오지 않음 청년들이 목소리 내기에 어려움 일자리와 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p>			
신○○	개인 욕구&입장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것	농사	<p>사람들을 만나는 일 장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직화, 사업화</p>	

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특기, 능력 등)	당초 원하던 일, 하고 싶었던 일(욕구)	해야 할 것 같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필요)	일치 여부 자가 진단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돌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돌봄활동을 좋은 사람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편하게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농업환경지역에 용지관리, 환경관리를 하는 사람 구축, 지원 필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및 활용 필요(공간의 제대로 된 활용 지원) 돌봄 마을안에 있는 집 관리 주체 필요 주택단지 확대 필요	
	공적 요구&입장				
	애로사항				

Ⅷ 회의명 : 홍성군 장곡면 청년 그룹 현장 집담회(2차)

○ 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 정책수요, 정책공급 실태 진단

○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시간대

○ 대상 : 함께하는 장곡 협동조합(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67)

○ 참여자 : 서○○, 김○○, 박○○, 한○○, 신△△, 신○○

1. (초입 단계) 기회 및 역할 탐색을 위하여 지역에 처음 와서 관계맺은 사람, 기관, 조직 (구어체 질문)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볼 때 누구를, 무엇을 처음 접했는가? 어떻게 기회를 탐색해 갔는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인 관계로는 앞집언니 부부를 통해 농업관련 품목을 결정하게 되었음. 앞집언니가 선도농가로서 청년농부인큐베이터 사업에 참여,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게 됨 ◦ 문화위원회 활동을 하게됨 ⇒ 지인과 주변의 네트워크가 계기 ◦ 공적으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농업기술을 참고, 농사가 본업이 아닐 때는 알바하기 위해 위크넷을 참고하였음. 김공장, 돼지농장 같은 생산직 위주의 일자리라 종사하지 않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협업농장에서 일자리 소개받음.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장곡으로 유입되지 않았을 듯(정○○ 선생님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정보를 제공) ◦ 구인사이트 통해 알아보았으나 대부분 편의점 업무위주 ◦ 중간지원조직을 검색, 탐색해 보았음. 자활이나 사회복지 같은 새로운 일들은 군청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음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행복농장을 알게 된 건 인터넷 검색(정신장애인 재활 관련 흥미가 있어서)과 행복농장 이사장에 대한 뉴스 기사였음. 이메일을 보내고 행복농장 견학을 왔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서 일자리가 있어 지역 유입(사적인 관계 덕분에 취업, 일자리 구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직장동료의 소개로 지역에 유입. 홍성에 있는 친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 ◦ 지역신문(홍성신문, 홍주일보)에 나오는 일자리 찾아봤으나 주유소, 목장, 재재소 같은 생산직 위주의 일자리가 다수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김○○)의 소개로 주민자치회 일을 하게됨. 관심분야나 전공관련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생계를 위해 주민자치회 일 선택하게 됨. ◦ 그전에는 혼자 위크넷, 군청 누리집 구인구직란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정보의 불명확성(어떤일을 하는지 불명확), 일자리의 다양성이 적음, 업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 겪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곡으로 유입될 때부터 일을 제안받았음(월급을 받는 일은 아니었음. 활동위주의 일). 추후 삼성재단 연결되어 활동비가 나옴 ◦ 교육단체 벚을 통해 홍성 교육농연구소 워크샵을 참여했다가 장곡 유입을 제안받음 ◦ 일자리 정보나 사적인 관계를 통해 일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지역의 단체나 기관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공적인 일(연구용역, 원고 등)이 들어옴

2. (관찰 단계) 청년이 바라본,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구어체 질문)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저출생·초고령인 ○○농촌 지역 사회가 유지·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그 이유는...

(구어체 질문) 지금 하는 일과 농촌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장)을 통해 정보가 전달됨. 마을 고령자들에게 정보전달이 어렵고, 이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 마을이장이 정보전달의 역할 수행(마을주민에게 쉽게 풀어서 정보 전달) 예. 단독방에 공문을 올리고 풀어서 설명하는 방송하고 있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람 유입보다는 현실을 인정, 현재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 무료한 고령자들의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예. 할머니 그림그리기 활동)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 사람이 모이고 함께 활동하는 것에 의의(이장의 참여의지가 중요함) ◦ 마을프로그램도 강사의 질에 따라 마을주민의 참여도가 달라짐 ⇒ 사업참여가 쉽도록 전환 필요(예. 완료지구,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전달 사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농산물 생산 자체가 없어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공동체를 지속하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생각(농사를 지을 엄두는 나지 않지만) ◦ 농사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 농업이 농민의 주체성 표현, 사회적 역할함 ◦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행복농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한해 농사를 운영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생각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읍에도 대부분의 편의시설(식료품, 생필품 등)이 존재하기에 이동접근성 향상이 필요, 병원접근성 측면 ◦ 마을 식사 문제: 큰 행사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식사, 행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 많음. 그러나 부녀회의 부재로 담당자가 없는 실정 ◦ 농민과 농촌의 환경보존활동을 하고있는데,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농촌환경을 보존하는 일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지 관점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일.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들이 마을 교육,보육에 관심 두고 이동, 주거관련: 현재 읍, 내포신도시 중심의 개발에서 면단위 위주로 이동 필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 농업: 들이는 품과 에너지에 비해 수익발생은 낮지만 소규모 농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지역의 활동, 편의시설,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하는 업무 ⇒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로 연결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 ⇒ 공동체 차원, 건강(영양)관리 차원 ◦ 환경관리(농업의 지속성고도 연계됨) ⇒ 마을경관에 따라 마을에 일(농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판별이 가능함(예. 풀치기, 쓰레기 치우기 등), 도시에서는 행정이 하는일을 농촌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담당. 그러나 마을단위 참여 어려움(농부가 있을 때는 일부 가능) ◦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활동 하고, 함께 식사(밥상)하는 것(독거노인 영양관리)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의식 기여 ⇒ 일거리가 되면 좋지만 현재 직불금에서는 지금 불가 ◦ 밥상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이 있지만 행정에서 집행되는 방식이 마을과 맞지 않음(공동 밥상을 행정에서는 원치않음)

3. (수요-욕구 단계) 저출생·초고령화된 농촌에 내려온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조건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어체 질문) 위에서 살펴본 일(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최소한 당신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하여 “일하는 환경 조건”은 무엇일까?(일하는 시간/일수/금액수준/기타 조건 등)

한○○	◦ 토목에 관련된 마을의 요구 많음(면사무소는 개인민원을 거부하고 이장에게 넘김. 이장이 문제를 걸
-----	---

	<p>러서 제출하라는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분야 전달체계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이장의 의지와 판단이 개별로 다르기에 사례 관리가 필요(예. 가정폭력, 알콜중독 문제 등) ◦ 문화, 여가 문제: 고령자의 놀거리가 교통편(접근성)의 부족으로 제한. 찾아오 서비스에 의존하게 됨 ◦ 먹거리 문제: 담당할 중간인력(조직)이 없음(예. 부녀회) ◦ 이주여성과 자녀문제, 남편 상담과 관련된 문제 등 ⇒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개별의 욕구들이 있는데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필요. 현재 이장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 퇴직한 세대를 총무 등으로 활용 필요(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확보됨) ⇒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농촌주민들의 마음가짐, 태도의 변화 필요(인식개선의 중요성), 청년들이 존중받는 태도 ◦ 귀농귀촌, 청년 등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대상층에게 마을의 일거리나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탐색하는 기회제공 필요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행복농장에 오면 행복농장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회적)농장의 연계, 중개 역할 가능할 듯함 ◦ (마을이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마을의 사무, 행정일을 대신하는 것 가능함 ◦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 시설(사회복지, 장애, 아동복지시설 등)에 근무 가능 ◦ 생활비 150~200만 원 정도를 받고, 주5일제, 4대보험 조건. 그러나 전제조건은 돈을 받는 일만이 전부가 아닌 마을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음. ⇒ 내가 돈받고 하는일과 돈은 받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들 사이에 괴리가 있어 고민(돈은 받지않지만 추가적인 일을 할 여력은 있음) ◦ 새로운 일을 고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 ◦ 지역에서 돈도 받지 않아도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영역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 ◦ 당장은 돈이 되지않더라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고, 먼저 경험을 했거나,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조력자) 필요하다고 생각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사무일을 중심으로 수행했고, 마을의 돌봄서비스 배치나 지원사업 업무를 잘할 수 있음 ⇒ 마을의 코디네이터, 마을사무장 일을 할 수 있을 듯 함. ◦ 주 5일제가 아닌 부담없는 선에서 시간노동 필요. 주 2~3일정도, 겸업(다른직업) 가능, 유연한 근무 시간, 9~6 의미없음 ◦ 농촌 주민들의 태도도 중요함. 마을의 돈(급여)을 받는 순간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무시하는 경향 다수 존재 ⇒ 제도적 부분과 문화(태도)적 부분 연계 필요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 농촌의 삶에 관심있는 청년에게 마을 소개나 투어 제공 ◦ 회계, 사무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 적극적인 마을으로 할수 있지 않게 됨 ◦ 담당자의 니즈에 맞추다보니 업무적인 숙달보다는 담당자에서 맞추는 업무를 하게되는 현실(보조사업의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해 실질적인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 마을 외에서 수익을 벌어야 마을 일을 도와줄 수 있게됨(외부 수익이 확보될 때 마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 마을 일은 많은 관계속에서 일을 받아 패이가 적고, 봉사를 강요 받게됨 ⇒ 지속가능 하기 어려움.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과 지역의 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중요(예. 마을센터가 생겼을 때, 일이 생기면 봉사지만 마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나의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 내가 지역일에 참여하면서 당장 수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돌고 돌아 나에게 도움, 내 주변에게 도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 ◦ 일자리, 근로, 고용이 아닌 (당장 소득은 되지 않지만) 기획단계에서의 참여정도, 스किन하는 것 필요. 당장 소득은 되지 않지만 나의 지역에서의 삶과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의 결과가 결국 나와 연결되어 돌아오는 것(내가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의 자원과 권한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4. (정책공급 단계)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사업의 공급 실태와 평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농촌에서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어땠는지 그 소감과 평가는? (만족, 불만족, 그 외 애로사항 등)

(구어체 질문) 당신이 경험해 본 그 청년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유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청년정책이 청년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받은적은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 마을단위나 주민자치회에서 지원받아서 권역단위 마을사무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코디네이터로 키우는 방식 필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3년): 작물탐색과 개인의 정착, 지역탐색의 기회가 되어 매우 만족하는 사업. 그러나 의무영농기간 6년(3년+사업비 수혜후 3년)동안 검업을 금하고 있는데 인권침해라고 생각됨 ◦ 충남 친환경청년농부지원사업: 하우스를 지어주는 대신 5년동안 의무영농 + 10년동안 하우스 농업만 지어야 되는 단점 ◦ 기름보일러비용지원사업 ⇒ 초기 유입 시 이러한 사업들이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개인의 만족도 차이가 큼. 다양한 커뮤니티 가입 경험, 지역탐색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귀촌 정책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충남은 귀촌을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음) ⇒ 충남의 귀촌자가 비빌 언덕이 없음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관련 사업은 받아본적 없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월급을 받다 보니 수혜자 입장에서 안주하게 됨 ◦ 지원사업(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 나의 거취가 고민됨 ◦ 현재 행복농장은 농식품부의 농촌돌봄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에서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중(2인 인건비, 내년까지 사업비 지원됨). 대전충남지역의 21개 사회적농장 중 거점농장의 역할을 함. 현재 다른 사업들은 감사비 정도는 있지만 인건비 책정 자금이 어려움.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신청하려고 했으나 직입이 없어야 가능함. 본인은 현재 4대보험 가입자(4대보험 주 2~3일 받고있음)라 신청이 불가함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서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 많음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은 사업은 없지만 현실과 괴리된 지원사업 많다고 느낌(예. 일자리와 관련되어 4대보험 지원 받고 농촌에 유입된 청년 많지 않음) ◦ 농업은 당장 수익내기가 어렵고, 수입 산출이 어려워 검업이 당연하다고 생각됨(파트타임 허용 필요). 그러나 현실은 4대보험 가입자는 안되고, 건축물 대장 등 서류를 필요로 함(농촌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 현재 귀촌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0팀을 선발하나 실제 수혜자는 1팀 정도임(정책과 현실 불일치) ◦ 행정 담당자에 따라 사업의 정보안내나 친밀도가 달라짐 ⇒ 농촌 유입 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 마땅치 않은 현실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 학회 사무국에서 일할 때 일자리 지원사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조직이 있어야 사업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다수였음(처음에 농촌에서 일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 조직이 없음) ◦ 농업의 지원정책과 농촌의 지원정책이 분리되어 있음 ⇒ 1:1 개별지원이 대다수이고, 이후 책임도 개별적임(이후의 모든 일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영농활동에 대한 조건을 걸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고, 그래야지 농업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각자도생 개별지원으로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 ◦ 창업지원정책의 경우로 신박한 아이템만 있으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지원. 개인창업자로 지원사업 받으니까 내 사업에만 사업비 쓰고, 사업지원 종료 후 구축해놓은 관계망이 없으니 생존율이 떨어져 종료되는 경우 다수 존재 ⇒ 사업비 지원을 받는이와 안받는 이로 나뉘어 배타적 관계 형성(지역사회 관점 결여) ◦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개인이나 면단위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읍내 이상의 지역에서만 지원 가능한 사업들 다수)

5. (방향 설정 단계)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요와 공급 일치여부 진단, 개선방향

(구어체 질문) 몇 년 해보니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욕구나 역할과 주민의 욕구를 결합할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 인생에서 보람도 있는 일 =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구어체 질문) 경험 상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은가?

(구어체 질문)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농촌에 있는 청년을 정책과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한○○	◦ 협업농장의 이주농부 프로그램처럼 농활같은 경험을 통해 마을주민과의 관계 맺어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 ⇒ 마을의 활력 + 마을주민의 청년유입에 대한 고민과 청년유입에 필요한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신△△	◦ 경제적 요소에서 벗어나 청년의 지역 유입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청년의 마을 유입이나, 마을 주민과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마을에 활력을 기여한다고 생각(예. 청년의 악기연주, 마을 기름칠 같은 단순한 놀거리, 일거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마을주민에게 활력 제공)
박○○	◦ 활동가들이 활동비를 받는만큼 지역의 문제에 발빠르게 반응하고,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청년들을 동네와 연결하는 등의 노력 필요 ◦ 활동가들의 활동들은 비공식적이고 관계가 맺어져있어 돈으로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활동가의 활동이라는 단어 외에 참여, 기여, 기회부여와 같은 아이디어 필요(예. 산림청-그루터기 매니저 사업, 관광-관광두레)
김○○	◦ 시군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핑계로 정책사업에서 인건비성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정책적 의지가 있어도 법률에 빈틈이 있어 인건비성 지원 불가
서○○	◦ 현재 인건비의 필수요소는 일자리, 최저임금, 4대보험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인건비라는 명칭보다는 참여수당, 기여수당으로 명칭을 변경, 주5일제가 아니더라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견업 구조 필요(인건비는 역할을 한정적이게 만들고, 연차에 대한 보상 요구되어 부담) ◦ 근로와 노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일의 근본적 개념과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되, 나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형식의 일자리 필요

6. (마무리) 참여 소감 및 연구를 위한 자문, 제언

(구어체 질문) 현장 집담회에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그 외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감없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좋았음
박○○	◦ 연구의 정책 적용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지역과 청년의 위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음
김○○	◦ 청년이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오는(유입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음. 그러나 청년과 마을주민(여르신)이 서로를 이해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라 생각(인정하는 시간 필요) ◦ 사람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음
서○○	◦ 아무 생각없이 농촌에 내려왔는데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음 ◦ 도시와 농촌, 청년과 원주민과의 간극이 아직 큰데, 줄여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회였음
신○○	◦ 지역에서도 나의 생각과 말들이 힘이 실려버리는 느낌이 있어 조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자리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재미있었음 ◦ 나에게는 이 문제들이 숙제가 되는 느낌이었음

부록 3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회의록

회의 목록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① 청양군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 2024년 09월 10일(화) - 청양군 혁신플랫폼 와유 2층 회의실	노○○ 센터장, 이○○ 주임(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한○○, 노○○, 김○○, 방○○, 노○○(청양군마을만들기협의회)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과 정책공급 실태 진단
② 예산군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 2024년 09월 11일(수) - 예산군 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	오○○ 센터장, 이△△ 팀장(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장○○(기초거점 사무장), 이○○(마을이장), 임○○(권역 사무장)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과 정책공급 실태 진단

주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익명으로 표기함.

Ⅰ 회의명 : 청양군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 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과 정책공급 실태 진단

○ 일시 : 2024년 09월 10일(화)

○ 장소 : 청양군 혁신플랫폼 와유 2층 회의실

○ 대상 : 노○○ 센터장, 이○○ 주임(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한○○, 노○○, 김○○, 방○○, 노○○(청양군마을만들기협의회)

1. 마을에 들어온 청년들과 주민들은 잘 지내나요? 서로 어떤가요?(융합되는 지점, 부딪혔던 점,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 등)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광리로 이사온 지는 12년째 근래 마을에 청년 2-3명 유입(별정직 우체국 직원, 예산에서 스포츠도장 운영, 운곡면 공무원) ⇒ 평일 낮 시간에는 동네 활동이 없음. 주민과 관련성 없음 동네에 협조 잘함(예. 마을체육대회, 행사 등) 주민들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누1리는 65세대가 거주하는 큰 마을임 동네 자체에 청년은 많지만, 거주는 시내(읍내)에서 함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1명이 있는데 마을주민들과 잘 어울림 본인은 귀향했는데 과거처럼 이웃 간 왕래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소통 부재 존재(필요한 부분을 물어보거나 하는 살가운 부분은 없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직1리 마을 청년회를 운영중(기금 1천만 원). 설/추석 명절마다 청년 회의 운영 60세까지 청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 중 제도적 청년 나이(19세-45세)와 실제 마을에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나이(50-60대) 기준이 다름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암1리 거주 19세-45세 청년으로는 공무원 청년 있음. 그러나 직장생활로 소통기회가 적음 ⇒ 마을의 행정처리, 사무일, 컴퓨터 사용 도움받고 싶지만 어려움 50-60대 청년회와 노인회가 같이 활동하고 있음. 19-45세 청년들에게 마을 청년회 활동, 가입 권유할 수 없음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촌리. 45세 이하 청년회가임 친구 4명정도 됨(애경화학에 다니는 사람 집지어서 살고, 이사로 유입된 청년들. 다들 직장에 다녀서 마을과 큰 교류는 없음) 마을에 45세 이상 인구 80% 농사짓는 젊은 청년은 없음 마을에 유아동 10명 정도 있음

2. 마을주민분들은 마을에 들어온 청년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나요?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은 임씨, 김씨 집성촌임 세대갈등(차이)으로 젊은이들을 이해하는게 어렵고, 융화가 어려움(젊은사람들의 수동적인 참여) ⇒ 받아주는 쪽(나이많은 마을 어른)의 이해 확장 필요 논갈이, 밭갈이를 해줄 사람이 없음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의 요소가 됨(예. 도로확장 사업에 사유지

	부분 협조, 배려 없음 ◦ 청년회(50-60세) 인원 20여명은 활동이 잘 이루어짐
김○○	◦ 농촌에서 마을주민 공동 행사 드물음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계기가되어 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청년들과 교류가 시작됨(도움을 요청함)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동네주민과 교류 활발히 하게됨(귀주민과-원주민과의 구분이 없어짐)
방○○	◦ 원주민-청년들이 다가가는 교류자체가 불가(시간 안맞음) ◦ 노인회 등 행정처리에 도움 필요(행정보조업무)
노○○	◦ 마을 행사 시 젊은 청년들이 제초작업이나 도움주기를 원함, 컴퓨터나 행정적인 도움 원함 ⇒ 젊은 사람들은 자기생활이 우선이다 보니, 개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하는 부분 내심 서운함

3. 마을에 공동으로 할 일은 어떤 종류이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도로 및 농수로 공동관리, 마을안길 청소나 제초 공동작업, 마을어르신 생일잔치 등

한○○	◦ 마을 연반계 운영(마을공동 장례, 상여매기, 음식나르기, 마을화관 대여), 4개부락으로 갈라져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음. 이장은 자동으로 호상이되어 이장의 적극적 참여 필수 ◦ 마을 연반계의 기부금, 찬조금을 활용하여 마을 활동 운영
노○○	◦ 별초 : 1가구당 1명씩 나오고, 젊은사람이 별초와 제 지냄. 따로 규약은 없음. 별초할 때 무자손의 경우 마을에서 따로 산소를 모시고(10기 이상), 고인의 땅은 마을재산으로 귀속 ◦ 마을 대청소 : 별초하는날 동시에 진행
김○○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하면서 상위 의결기구인 마을자치회를 만들(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회장·총무, 반장님 6명, 귀농귀촌 대표를 포함한 20여명) ⇒ 마을 공동 업무나 행사가 있을 때 역할 분담하여 운영, 책임 가짐 ◦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월 1회) 마을 내 쓰레기 분리수거, 당뇨·혈압 수치 재기(건강체크하여 문제 시 의료원으로 이송), 이마용 서비스, 집수리 등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작하면서 마을 내 인적자원 발굴(마을 내에 자격증이나 과거 직업 관련 봉사할 수 있는 인력 조사)
방○○	◦ 귀향한 사람 중 자격증을 가진 사람 파악까지만 함(아직 실행, 운영은 하지 못함) ⇒ 마을 내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수 존재 ◦ 마을 조직도 재정비함 ◦ 매년 연초에 은행나무 행단제 개최: 동계에서 했는데 마을조직도를 재정비 하면서 마을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재구성 ◦ 대부분의 마을행사는 청년회에서 실행 ◦ 마을 전체가 제초작업하고, 그 외 허드렛일은 청년회에서 실행(예. 마을주변 잡초제거) ◦ 농업인 수당 신청시 공동체 활동 요건이 있음. 미이행시 10% 감액 ⇒ 청년회에서 주관
노○○	◦ 마을이 커서 양쪽으로 동계와 반계가 존재 ◦ 성황제(380년 된 참나무) 제사 역촌1리 동계가 지냄 ⇒ 부녀회에서 음식, 청년회에서 나무 전정작업. 총무는 마을이장임 ◦ 7월 7일 행사, 추석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 각각의 동계가 따로 지냄.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하고 싶지만 잘 안됨

4. 저출생·고령화된 농촌 마을에는 어떤 종류의 일거리가 필요한가요?(예시 참고)

예. 마을어르신 무거운 이불의 주기적인 빨래, 읍내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 노인돌봄 등

한○○	◦ 동네에서 죽을때까지 공동 케어하는 서비스 필요(동네사람들과 어울려서 밥먹고, 돌봄서비스 하는 것 필요) ◦ 청양은 2025년부터 마을돌보미를 지정하여 실시: 행정리마다 마을 돌보미를 지정하여 수당(월 50만
-----	--

	원) 제공하 이웃의 안부 케어, 공동식사, 빨래 수거 등 돌봄의 요소를 충족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활 소농의 땅(작은규모의 땅)을 로타리, 두둑만들기 작업 등을 해주는 전문적 인력 지원 필요(여러개마을, 농지를 묶어서 활용 필요) ⇒ 고려화된 사람들이 농작업 일을 놓지않는 것이 걱정이지만 이는, 도시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같은 것으로 이해) 현재 청양군에서는 집락영농, 공동경작을 논의 중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 드신분들이 요양원에 가지않고, 현재 사는집에서 이웃들과 함께있다 생을 마감할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동생활홈 사업 공모 준비 중 전원생활을 하는 중장년층 젊은 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 사업 준비 중(마을자치회에서 교육, 회의 계획 중) ⇒ 마을기업(농산물 가공 등), 창업지원 계획 중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마을자치시스템 교육을 1년 이수하고, 마을규약을 만들었음. 마을의 직급별로 해야할 일들이 정해져 있음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암1리는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으나, 정거장에서 800m 이내는 행복택시(교통) 지원불가 지역이라 교통수단 이용이 매우 불편함 마을에서 클린하우스(공동 분리수거장)를 만들어 CCTV를 설치하고, 이장이 방송으로 마을주민들을 지도하여 깨끗하게 유지 중 돌봄의 경우, 이장은 모르고 있지만 개인별로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활용하고 있음(개별문제를 이장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음)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촌리는 읍과 가까워 자가용이 모두 있음. 80-90대도 전동차 있음. 나이가 많이 든 고려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로 이동해 줌 정산면 복지팀에서 나와 이동빨래방에서 빨래 등 지원하고 있음, 이미 필요한 활동들을 지원받고 있음

5. 이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만약 청년들이 마을에 있다면 의뢰하기 적합한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구어체 질문)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요? 어떤 주기로 필요한가요?

(구어체 질문) 일을 맡긴 청년에게 인건비라도 주면 좋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구어체 질문) 마을주민과 청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어떤 방식이면 좋겠나요?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 고려자들의 생활적 도움(예. 전구갈기, 칼갈기 등) 줄 수 있는 청년 필요 ⇒ 정기적으로 생활에 작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청년) 필요 청양은 현재 청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일부 행정리를 대상으로 “부르면 달려가요 심부름꾼 사업” 서비스 운영 중(전화하면 달려감). 지역내 업체 활용하여 주민은 재료비만 내고 출장비는 군 지원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경관을 위해 모종을 키우는데도 이장이 모두 하기에는 매우 힘들었음 ⇒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필요. 수시인력은 필요없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필요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후계자(활동가)로 양성시키고 싶음(정해진 마을 목표에 따라 마을활동가로 양성(마을시설 관리, 사업논의 등)) 마을사무장 초빙 계획 중, 기존 마을주민보다는 전문적이고, 열정있는 외부사람을 유입하고 싶음.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는 기대, 직업화된 사람과 부업화된 사람은 다르다고 느낌.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 몇회로 업무, 마을수익을 창출하며 기본소득 제공하고자 논의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건강(예. 지병이 있는지, 병원은 주기적으로 가는지 등), 마을주거를 점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행정업무, 전화로 체크), 부업으로 가능, 매월1회 정도, 청양에서 추진하는 마을돌봄미 사례 관리, 마을기금과 정부지원 받아 최저임금 보장 필요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짓는 청년들이 고려 노인들이 하기 힘든 소규모 농지·밭 관리·운영 대행해줬으면 좋겠음. 경비는 군이나 면에서 지원하고, 작물 품목별로 맞게 지원 필요. 직업으로 삼아 여러 곳을 묶어 소득이 되어 함.

② 회의명 : 예산군 마을주민 그룹 현장 집담회

- 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진단과 정책공급 실태 진단
- 일시 : 2024년 09월 11일(수)
- 장소 : 예산군 해봄센터 1층 창업지원실
- 대상 : 오○○ 센터장, 이△△ 팀장(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장○○(기초거점 사무장), 이○○(마을이장), 임○○(권역 사무장)

1. 마을에 들어온 청년들과 주민들은 잘 지내나요? 서로 어떤가요?(융합되는 지점, 부딪혔던 점,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 등)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청년(귀농): 돈에 치중되어 일하느라 바빠서 주민과의 소통 최소화 ◦ 조기 은퇴후 휴양하러온 청년: 아웃사이더가 다수이며 그들만의 리그임. 일은 하고싶지만 주민과 엮이고 싶지 않아함. 문화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함. 스며들고자 하는 사람은 노력함(시간은 걸리지만 마을주민들의 일 권유가 생김) ◦ 농촌에 살려 온 청년(귀향, 귀촌): 마을주민과 소통잘함(인사이더). 그러나 주민과 세대간 갈등은 있음. 일자리 찾으려고 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들어오긴 했음. 마을에서 딸기 하우스 농사 지음 ⇒ 서로 바쁘기에 마을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 미안해함. 내 또래가 없어 공동체 활동에 어색함. 공동체 개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예. 이웃에 양해 없이, 집둘레에 전체 펜스침) ◦ 농촌에 농지 구하기 어려운 문제(땅을 농여촌공사를 통해서만 구해야 하기에) ⇒ 연고없이 들어오는 청년 거의 없음 ◦ 농막이 많아져서 실제 집 지을 터가 없어짐 ◦ 젊은 친구들은 힘든일 하려고 하지않음. 뭐든 기계화를 통해 편하게 하려고 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지역에서 제일 막내임 ◦ 유입된 사람들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원주민과 융합정도 다름 ◦ 도시정서와 시골정서는 다른데, 농촌와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립되는 것임 ◦ 한 사람의 변화가 다수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줄 사람 없음(융합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2. 마을주민분들은 마을에 들어온 청년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나요?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삶의패턴 차이에서 오는 것) ◦ 주민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이하 청년들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쉽다(할말이 없다)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라는 것 보다는 여기서 정착하고 안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3. 마을에 공동으로 할 일은 어떤 종류이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도로 및 농수로 공동관리, 마을안길 청소나 제초 공동작업, 마을어르신 생일잔치 등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의가 반마다 있는데, 젊은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 ◦ 행정지원사업 관련업무 청년이 하고 있음(역할을 주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기도 함) ◦ 마을자체 축제준비, 교육정보 전달 등 ⇒ 규약은 따로 없으나 이장이 청년을 시킴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이장이라 군이나 면에 선후배 등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정보소통이 원활함 ◦ 눈이 오면 이장이 트랙터로 마을의 눈을 치움 ◦ 마을안길 청소나 제초작업은 이장이 권유하지만 잘 이행하지 않음 ⇒ 마을 이장 포함 3-4명이 수행. 60대 연령층의 젊은 축의 사람들이 이장동원 형태로 수행하고 있음. 마을의 기존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하지 않음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생긴일들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컴퓨터로 서류작업이 안됨.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70-80대 이장이 가장 많은데, 이장 자리를 잘 내놓지 않음 ⇒ 사업이 들어와도 마을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 ◦ 기존에 해왔던 일들(마을 안길청소나, 제초 등) 같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은 괜찮음

4. 저출생.고령화된 농촌 마을에는 어떤 종류의 일거리가 필요한가요?(예시 참고)

예. 마을어르신 무거운 이불의 주기적인 빨래, 읍내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 노인돌봄 등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에 문맹 다수 존재. 총무역할 할 사람 없음. 마을간사, 마을사무장 역할 필요 ◦ 깔고미 같이 노인일자리로 청소하는 사업지원 필요, 주민들이 업무 외에 식사나, 쓰레기 버리기 추가요구해서 안하는 사람 대다수임. 노인회장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많음 ◦ 공유오피스(집사개념): 고지서 등의 내용을 풀어주거나 해결해주는 집사역할(어르신들의 문해력이 낮으니 내용을 물어보면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주는 역할) ◦ 사회복지사, 문화센터 필요(문화예술활동 측면)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체적으로 마을 발전기금이 없는 곳이 많은데, 마을 기금이 없어 사업지원이 어려운일 발생 ⇒ 마을 기초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금 필요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자체가 안될것임(지을사람이 없어서 농촌의 기본적인 기능이 안될 것으로 예상) ⇒ 5-10년 후 농업기능이 소멸되었을 때 농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고민 필요 ◦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건물 필요.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집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이클 필요 ⇒ 마을주민들이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음(주민 스스로 케어, 마을단위 케어)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농·어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운영(예산군 차동리영농조합법인) ⇒ 마을 중심의 돌봄조직을 양성해 지역의 주민조직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교육을 받은 전문 돌봄조직이 발굴된 대상자에게 주1회 방문하여 일상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또한 충남도내 4개 의료원(홍성, 서산, 천안, 공주)은 거점기관 지역의 마을주민과 돌봄 대상에게 치매, 우울 교육 등으로 지역과 함께 소통
이△△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쪽으로 치우쳐질듯함. 수혜성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지원비에 의존 ⇒ 정책적으로 지원의 폭 확대, 발전 필요
오○○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급식 지원 필요, 위생관리 문제 해결, 부식비+인력(조리사) 1명) 지원 필요 ◦ 요즘은 개인정보 누출문제로 개별 연락처 공유를 행정도 꺼려하고, 이장도 꺼려함 ⇒ 공동체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5. 이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만약 청년들이 마을에 있다면 의뢰하기 적합한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일까요?

(구어체 질문)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요? 어떤 주기로 필요한가

요?

(구어체 질문) 일을 맡긴 청년에게 인건비라도 주면 좋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는 힘들어서 하기 싫고, 마을 소식지처럼 마을소식을 알리는 유튜브, 마을방송 등 마을 기사, 마을기술자(기술 전공자), 회원처럼 서류/행정 업무 ⇒ 마을에 이런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 있음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의 농작업 지원단(농협의 계약직): 현재 농협의 농약방제단 태안(업체)에서 오는데 군이나 농협에서 지역의 청년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그룹화를 통해 방제단, 공동수리단, 공동마을관리단 같은 일자리 창출 가능 ⇒ 매일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시기별·집단별로 필요, 비용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농가의 자부담으로 지급 필요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우선으로 해야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 소속 청년들이 외부사람과 마을주민들과의 교류를 연결해주는 교두보, 완충 역할 마을사무장(N잡러): 전일제가 아닌 시간 근로자로 채용 필요(마을주민도 가능), 상시근무일 경우 할 사람 많이 없음 교육: 지역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도시 청소년과 학력의 차이 줄일 수 있도록 케어 필요(지속가능성 측면)
이△△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과 융화되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 선 일자리 취득 후 농촌으로 유입이 어려운 것 마을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청년들이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청년은 계속적인 봉사가 어려움, 주기적 소통 통해(월 1회 정도)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연계 필요

(구어체 질문) 마을주민과 청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어떤 방식이면 좋겠나요?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H/W)를 지원해준다면(정부의 저리 렌탈 사업으로 예. 귀농귀촌인의 집처럼) 청년 유입이 가능할 듯 복지사업, 마을자체의 수익사업(예. 점빵, 가게, 식당 등) ⇒ 마을단위로 지원사업 확대하여 마을단위별로(공동,집단별) 청년육성 가능(지원사업을 개별로 주면 사업종료 후 청년은 농촌을 떠남). 청년이 뭘 할지보다 기본전제가 필요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필요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먼저 제공하는 것이 시작점이 될 듯. 일자리 연계 필요. 간단한 편의시설 제공 필요 계약직 직원의 개념으로 이장에게 역할 부여 필요
오○○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이들끼리 소통할만한 공간필요(행정소속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 마을권역단위 공모사업 다양화 필요 ⇒ 공모사업을 통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마을주민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 위주로 지원 필요 지자체 주도로 청년과+원주민들의 융합할 수 있는 사업공모 필요(재원은 국가가 지원하되 시장군수에게 역할 위임) 최소한 마을사무장 정도의 지원은 필요(이장과 사무장 역할 구분하여 제공)

부록 4

충청남도의 청년 관련 정책 목록(2024년 기준)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관부서
1. (일자리 분야)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기 취·창업 지원		
1-1. (준비) 일경험을 통한 진로 및 역량 강화 지원		
1-1-1	청년인턴 사업(공공분야 확대)	청년정책관
1-1-2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기업탐방, 취업역량프로그램 지원)	청년정책관
1-1-3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예산담당관
1-1-4	4차 산업 분야 원격실습 직업훈련 지원	일자리기업지원과
1-1-5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투자통상정책관
1-1-6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	산업육성과
1-1-7	신규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지원	청년정책관
1-2. (진입) 청년과 기업 연계, 충남 특화사업의 청년 일자리 지원		
1-2-1	충남 우수인재 잡(Job) 매칭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관
1-2-2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청년정책관
1-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청년정책관
1-2-4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청년정책관
1-2-5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청년정책관
1-2-6	힘센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정책관
1-2-7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청년정책관
1-2-8	청년친화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청년정책관
1-2-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예산담당관
1-2-10	사회적경제 청년정책(live in CN) 지원사업	경제정책과
1-2-11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기업지원과
1-2-12	생활체육지도자(일반, 어르신, 유소년) 활동 지원	체육진흥과
1-2-13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체육진흥과
1-2-14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 사업(비영리단체 근무)	새마을공동체과
1-3. (도약·재기) 취약 청년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지원		
1-3-1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정책관
1-3-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여성가족정책과
1-3-3	경력단절 청년 재취업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1-3-4	다문화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1-3-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지역우수인재)	외국인정책과
1-4. (전 주기) 청년창업·농업 활성화 및 경영안정 지원		
1-4-1	소상공인(기업) 청년의 안정 경영 지원(중앙정부 제도개선 과제)	청년정책관
1-4-2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청년정책관
1-4-3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지원	청년정책관
1-4-4	태안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기업지원과
1-4-5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일자리기업지원과
1-4-6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일자리기업지원과
1-4-7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이자보전	일자리기업지원과
1-4-8	도내 청년 농창업 지원	농업정책과
1-4-9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정책과
1-4-10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업정책과
1-4-1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	농업정책과
1-4-12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농업과
1-4-13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농업과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관부서
1-4-14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스마트농업과
1-4-15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농업기술원
1-4-16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농업기술원
1-4-17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농업기술원
1-4-18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	축산기술연구소
1-4-19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어촌산업과
1-4-20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어촌산업과
2. (주거 분야) 청년이 살고 싶은 터전 조성		
2-1. 청년 보금자리 조성		
2-1-1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활력과
2-1-2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주택도시과
2-1-3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주택도시과
2-1-4	빈집 리모델링 청년 임대주택 공급	주택도시과
2-2. 주거 부담 완화		
2-2-1	충남 대전, 서울학사관 운영	고등교육정책담당관
2-2-2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택도시과
2-2-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청년정책관
2-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정책관
2-2-5	신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정책관
2-3. 주거환경·주거권 보장		
2-3-1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토지관리과
2-3-2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정책과
2-3-3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정책과
3. (교육 분야)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3-1. 지역특화산업 혁신 인재양성		
3-1-1	ICT 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운영(실무형 AIS·W개발인력 양성)	정보화담당관
3-1-2	SW미래채움	미래산업과
3-1-3	SW중심대학 지원	미래산업과
3-1-4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미래산업과
3-1-5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개편)	고등교육정책담당관
3-1-6	청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청년정책관
3-1-7	충남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계약학과 신설운영)	일자리기업지원과
3-1-8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스마트농업과
3-1-9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교육, 우수창업농 선정)	농업기술원
3-1-1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활용 기능교육	농업기술원
3-1-11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농업기술원
3-1-12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농업기술원
3-1-13	창업어가 멘토링	수산자원연구소
3-1-14	귀어학교 운영	수산자원연구소
3-2. 예비 청년 진로 탐색 지원		
3-2-1	충남도립대학교 청년정책사업 운영비	충남도립대학교
3-2-2	예비청년 현장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등교육정책담당관
3-2-3	대학생 연합설계 지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3-3.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3-3-1	인재육성사업 추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3-3-2	충남도립대 등록금 장학금 지급	충남도립대학교
3-4. 사회초년생 인생 수업 지원		
3-4-1	청년·사회초년생을 위한 필수 교육 운영(예정)	청년정책관
3-4-2	청년 인생설계 프로젝트 운영(예정)	청년정책관
4. (복지·문화 분야) 따뜻하고 가치있는 삶 지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관부서
4-1. 취약청년 보호		
4-1-1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체계 구축·운영(예정)	청년정책관
4-1-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복지보육정책과
4-1-3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복지보육정책과
4-1-4	자립지원 사업비	복지보육정책과
4-1-5	자립정착금 지급 연계 금융교육 지원	복지보육정책과
4-1-6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과
4-1-7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과
4-1-8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4-1-9	산업단지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산단청년 지원)	산업입지과
4-2. 건강 관리 지원		
4-2-1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복지보육정책과
4-2-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보육정책과
4-2-3	청년 자살예방 조기검진 및 심리지원	건강증진식품과
4-2-4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건강증진식품과
4-2-5	청년 정신건강 관리 협력·홍보체계 구축·운영	건강증진식품과
4-3. 문화·여가 향유 확대		
4-3-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정책과
4-3-2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4-3-3	충남 예술인 지원(충남 청년예술 지원)	문화정책과
4-3-4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문화정책과
4-3-5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문화정책과
4-3-6	충남 청년 뮤지 페스타	문화정책과
4-3-7	시·군 청년예술인 협력 공연	문화정책과
4-3-8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4-3-9	충남 K-POP 글로벌 페스타 개최	문화정책과
4-3-10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및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문화정책과
4-3-11	청년 맞춤형 도내 관광코스 개발·홍보(충남 위케이션 프로그램)	관광진흥과
4-3-12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체육진흥과
4-3-13	대학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청년정책관
4-3-14	전국 청년 페스티벌(청년의 날 기념 행사)	청년정책관
4-3-15	아산시 청년의 날 행사	청년정책관
4-3-16	2024 충남청년 희망 프로젝트	청년정책관
5. (참여·관리 분야)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환경 조성		
5-1.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 강화		
5-1-1	도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관
5-1-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정책관
5-1-3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정책관
5-1-4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청년정책관
5-1-5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투자통상정책관
5-1-6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관
5-1-7	시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청년정책관
5-1-8	'충남청년포털' 유지보수	청년정책관
5-1-9	도민리포터(청년 분야) 운영	공보관
5-1-10	청년농 지원사업 홍보	농업정책과
5-2. 사회 안착 지원		
5-2-1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역착근형)	청년정책관
5-2-2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갭이어)	청년정책관
5-2-3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자치경찰위원회
5-2-4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일자리기업지원과

자료: 충청남도(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중 2024년 시행계획.

부록 5

최종 사업구상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세부 내용

〈부록_표 1〉 최종 사업구상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세부내용(구자인, 2024)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전문가 의견
운영주체	(가칭) 행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범위: 면 단위	협동조합 법인 형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면 단위에서 청년을 받아들이고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정책 시스템 - 특화된 전문영역보다 범용적인 주민단체가 유리 - 설립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안정된 기반 확보 유리 - 청년을 보듬고 갈 수 있는 ‘비전 실현 집행조직’ 성격으로 접근 - 읍면 발전계획을 실현하는 집행조직, 읍면 앵커조직 형태 -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풍토 조성이 중요: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집행방식	민간 위탁사업, 조합 직접 실행사업	시군, 읍면 주민자치회로부터 위탁업무 협약체결, 사무국 공동 풀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 - 주민자치회는 의결조직, 법인인 집행조직 성격 - ‘거점공간 관리위탁+사무위탁+보조사업+용역사업’ 방식 - 행정의 법령 이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개혁 병행 필요
출자회원	면 단위 마을별 주민, 타지에 나가 있는 주민 가족, 신규 유입된 주민, 청년	최소한 의결권 확보 가능한 수준 출자나 후원, 마을별 마을발전기금으로 출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은 초기에 주민자치회 임원과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출발, 전문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구성 - 조합원은 ‘지역단체+마을+관계인구+외부 활동가 등’ 100명 내외의 대중적 기반 확보 필요
운영구조	공동사무국 (*상황에 따라 안정화단계까지 주민자치회와 공동사무국 형태로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국과 협업), 사람과 일 연결.중개업무, DB화, 마을후계자(활동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의 차별성과 협력체계를 동시에 확보해나가는 ‘과정’ 중시 - 조직적으로는 분리하되, 동일 사무실을 이용하고, 주(월)1회 공동회의 의무화 - 상근 사무국: 소인수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장, 분화 - 시작단계: ‘거점공간 관리위탁+사무위탁+보조사업+용역사업’ 등으로 인건비가 안정되게 확보 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출발(예. 주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단계 :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위탁 혹은 용역) + 지역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접근(특히 노인 복지 영역) - 고유사업 : 상근자의 해당 읍면 거주 원칙 + 일상적인 상담과 협의, 자문 등이 가능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끔 조정 가능 - 보조사업과 용역사업 : 지역 기관·단체, 협동조합과 역할분담 수행
일하는 직원	마을에 들어온 청년, 귀농, 귀촌인 마을주민 중 전문자격증 소유자 인력 활용	직접적으로 법인이 다음의 일 수행 (일하는 영역 : 사회적경제 영역, 공적 영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 주민자치회, 주민위원회 등 현장 활동을 경험한 40대 전후의 경력자 청년 우선 채용, 이후에 단계적 확장 - 직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고용 30% 기준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고려 - 단계적 고용 확대 : '거점공간 관리위탁+사무위탁+보조사업+용역사업'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서 확장, 고정인력 규모가 3~4인 유지, 농한기 비상근 일자리 다수 - 청년 농촌정착을 중시하는 어른, 선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청년도 정착 가능
공적 자원 (정책과 사업)	각종 사업들 통합 집행	사업별 인건비, 활동비, 활동수당 등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자원(조합비, 회비) : 고유사업 중심 - 회원서비스, 후원금, 창업조직 출자, 예비비 등 - 이익금 : 청년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해 기금 적립 - 공적자원 : 농촌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행정 재원에 해당. 보조금도 사업목적에 따라 위탁사업으로 편성(보조금 개혁 전제) · 거점공간 관리위탁 : '원가계산' 개념 적용 · 사무위탁 : 조례에 반영된 행정 사무(보조금 개혁 병행) · 보조사업 : 일시적 소액사업. 단, 최대한 활동비 인정 · 용역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일부 재위탁 인정), 지역조사, 설문조사, 소액 연구용역 등
민간 자원	정액회비, 수익사업, 출자금, 법정기부금(출향인, 관계인구), 후원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하단 일부 사업은 수익사업 형태로 진행, 수익원 확보(편의시설, 유희공간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수익구조가 미흡하고 마을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농촌 내부적으로는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공익직불금 제도 개혁에서 '개인 주머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회비, 출자, 기부할 수 있는 구조 형성(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20~30% 마을 기금화 사례, 마을공동화 활성화 기금 출연, 신규로 자조금 방식으로 기금 형성 방안 등 검토) - 마을(만들기) 기금 형성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예. 청년 유치와 활동비 지원 등)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지정기부금 방식으로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형성 방안 검토, 지정기부금 제도 완화
일하는 영역	(추가) 농촌특화 일자리	종합 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 이하 분야별 일거리를 포함하는 전략 · 읍면 법인 설립과 종합적 추진하면서 분화하는 전략: 일반 농촌형 방식 · 목적사업에 충실한 전문법인 설립 전략: 이미 주민 주도 법인이 다수 설립되고 읍면 단위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가 활발한 지역의 방식 - 아래에서 분야별 작게 나눌수록 수익구조는 약해진다는 단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통합형 법인으로 출발하여 규모가 커지고 수익구조가 안정되면 작은 전문법인으로 분화시키는 전략 선택
	일할 거리	마을실태조사 관련하여 마을조사단(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반복적 사업 방식: 홍성군 사례를 읍면 단위로 3~4년간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전북 진안군 백운면 마을조사단 사례 검증 - 연 1회 중장기 사업 방식: 읍면 법인이 청양군 청년마을조사단 방식을 주기적으로 시행
	주거를 포함한 정주 관련 일거리	맥가이버 집수리지원단, 튼튼집수리(청양), 주택집사, 갈고미, 마을기사, 마을기술사, 이동발래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차원에서 통합형으로 접근해야 1~2인 (반)상근 일자리 사업으로 출발 가능 - 하드웨어 시설이나 차량 등은 공공행정에서 제공 - 읍면 앵커조직의 한 사업분야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분화 독립시키는 전략 선택 - 시군청 소재지에서 제공하는 이동, 출장 서비스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읍면 앵커조직 위탁사업으로 전환
	교육 관련 일거리	지역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체계적으로 협력
	농업 관련 일거리	농번기 농활일손&고사리손, 농기계 위수탁작업 지원단, 마을공동영농작업단(방제, 수리/청양) 사회적농업 농장(행복농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방식에 대한 보완책 = 소농 지원 농작업 대행 사업: 비상근 협동조합 방식 - 농한기 농작업 지원 사업 - 농번기 대책: 대학생 농활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읍면 법인에게 위탁 사업 방식
	관광 관련 일거리	마을자원 발굴단, 마을투어협의체, 관광두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앵커조직 방식 vs 전문분야 청년법인 방식: 장단점 비교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 시군 단위 사업은 4~5년 협약을 통한 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 거점공간+연계협력단체+숙박시설 등 종합 세트형 전제
	홍보 및 정보전달 관련 일거리	청년유튜버, 마을방송국, 비밀언덕 (마을)중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공간을 활용한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 상담창구 역할
	교통 관련 일거리	따릉이, 인근마을과 공동으로 소형버스 구입, 정기운행 사업, 읍면 순환버스(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운수법' 개정 전제, 농식품부 혹은 광역 지자체를 통한 제도개혁 필요 - 읍면소재지 앵커조직이 교육문화복지와 연계하는 이동수단 제공 사업 - 읍면 순환 소형버스 방식: 기존 운수여객사의 적자보전분 일부를 위탁방식으로 보전하여 대응 - 소형버스 방식: 구입은 지자체 재정으로 제공, 상근 일자리의 인건비 확보방안은 보조금 개혁(특히 복지분야)으로 대응 - 초등학교 통학버스 방식: 주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공영버스 운영 특례 제도 도입(농촌형 교통 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전문가 의견
	각종 문화여가편의시설 관련 일거리	마을이동점방과 푸드트럭, 마을심부름꾼(청양), 마을영화제 상영, 마을주민 문해교육강사, 정기 이마용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기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에 해당 - 강사 수당을 제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의 겸업 일자리 분야 정도로 접근 가능
	의료 및 돌봄 관련 일거리	이웃복지사, 마을돌보미 마을요양보호사, 마을주민 건강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소재지 주야간보호센터와 생활지원사 제도 개혁 전제 - 상근 일자리로서 지속가능한 방식 - 법인이 없으면 비상근, 비정규직 방식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읍면 법인이 없으면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촌 방식(대면적 접촉 중시)에 맞지 않음 - 읍면소재지 앵커조직 없이 일시적 일자리 방식은 읍소재지 출퇴근 방식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함
	마을환경 및 경관관리 관련 일거리	마을 공동청소단, 마을관리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제초대행,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경관환경 분야의 전문법인으로 설정: 국도, 지방도, 마을길 전문 예초작업, 도랑, 하천, 저수지 정기적 청소작업, 꽃길가꾸기 설계와 교육, 사후관리 사업, 분리수거 및 영농폐기물 관리와 환경교육 활동, 경관특화지구 정기관리 활동 등 - 기본적인 장비는 공공행정 사업비에서 지원 - 농촌형 경관환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방식
	유희공간관리 관련 일거리	마을 유희공간 리모델링, 마실방(뜰), 동네사랑방 운영하여 수익원 확보, 빈집이음(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중에서 유희공간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위탁 제도 활성화 -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방식 제도개혁 검토: 수익 부분은 운영법인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참고로 현행 관리위탁 제도에서는 수익금 부분은 운영비로만 투자 가능 - 시설관리 협동조합 활성화: 전원마을이나 주거복지타운, 테마파크 등 수익형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네트워크와 조직 관련 일거리	마을농장(젊은협농장 방식), 마을체험단, 면면이음(청양), 마을살이단,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지역부흥협력대 방식, 도시와 네트워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은 읍면소재지 앵커조직 역할 - 특정 조직의 활동으로는 보편적으로 제안하기 힘든 조건 - 읍면 내부의 네트워크 역량이 축적되면서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활동도 가능: 내부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계속 보완하면서 확장 가능 - 현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과 조직이 읍면 단위로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일거리	공동체활성지원단, 마을후계자육성 프로그램, 기존 마을조직(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과 연대한 통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공모 방식 보조사업 개혁 병행 - 기본적으로 일반 농촌 행정리 마을 사업은 주민협정을 통한 위탁사업으로 설계: 일본 시마네현 운난시 방식 - 이장 수당제도 대체 - 특정 마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편성 집행
	(추가) 마을 사무 관련 일거리	마을사무장, 마을간사, 마을이장 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휴양마을, 권역사업 중심 마을 등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전문가 의견
		혹은 마을 돌보미(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휴양마을 재정비: 읍면 1개소 원칙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거점마을 육성 - 권역사업: 시설관리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적용, 1인 상근, 반상근 일자리 제공 + 공적 활동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농업, 위케이션 등 포함)
일하는 형태	주 2일~3일 이내 근무, 반상근 근무, 반일제 근무, 교대 근무제, 시간제 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개념, 청년의 부캐 선호 반영)	개인 선택 하에 유연한, 다양한 근무제 도입 지역에 연고없는 청년 우선 고용기회 제공, 청년은 물론 출자한 주민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앵커조직 역할을 담당할 읍면 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 그래야 경제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임. 상근 사무국으로 2~3명 일자리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 - 농촌형 일자리: 기본을 명확히 한 바탕 위에 농한기 중심으로 반상근/비상근 일자리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 - 도시청년 유입 가능성 확대: 농촌에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재능으로 결합 = 반농반X 전략 가능
인건비 수준	최소 생활비 보장 수준, 생계유지 가능한 수준(도내 생활임금 수준 이상)	민간 위탁사업, 각종 위탁사업 통합집행, 사업비 풀링(pooling)하여 인건비 책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행정의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줄이고, 중간지원조직 일자리 및 관리위탁 제도 활성화로 전환. 결국 민관협치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비대화를 예방하면서 중간조직 영역이 훨씬 더 발달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 관점과 시스템 정비: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장기 방향과 민간법인(시군+읍면) 설립과정과 형태, 운영방안 등에 대해 연속적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적 합의가 필요 - 도내 생활임금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중간지원조직 포함하여 모든 공공일자리에 적용 - 농촌/노인/청년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표준 임금제도 검토 - 농업일자리: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의존하려는 현행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필요 = 소농/고령농/가족농을 위한 보완 대책 필요 = 친환경학교급식/푸드플랜 정책과 강하게 연계 - 지역일자리: 읍면 단위 일자리 시스템 검토가 기본 전제 = 농촌형 일자리 정책 = 주민 생활 기반의 겸업 일자리 다수 확보 = 보조금 개혁

참고문헌

〈국내문헌, 신문스크랩, 행정자료〉

- 김정섭·마상진·허주녕·강마야·이다겸(2024),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24),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서울특별시(2023), 2023년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별의별 이주 ○○ 공고문.
- 서울특별시(2024), 2024년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공고문.
- 안성면공동체활성화지원단(2017), 「청년 안성에 오다」.
- 유학열(2022),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정책사례 번역본.
- 청양군 청년마을조사단 조사원 모집공고문(2022).
- 충청남도(2024), 2024년 충청남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고문.
- 충청남도(20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중 2024년 시행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농촌 과소화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_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2.07.), '로컬이 미래' 주제로 2022년 청년마을 성과보고회 개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4.10.),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마을'.
- 행정안전부(2023),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 행정안전부(2024), 2024년 사업지침서.

〈누리집〉

- 대전일보(2024.03.27.), 충남 7개 청년마을 대표, '청년 정책' 위해 한 자리 (<https://v.daum.net/v/20240327164422447>, 검색일자: 2024.10.02.)
- 넥스트로컬 누리집(<http://seoulnextlocal.co.kr/>, 검색일자: 2024.10.02.)
- 로컬몬스터 누리집(<https://www.localmonster.kr/>, 검색일자: 2024.10.02.)
- 로컬베이스 씨앗(<https://blog.naver.com/cart3355>, 검색일자: 2024.10.02.)
- 뭍하농 누리집(<https://www.mohanong.co.kr/>, 검색일자: 2024.10.02.)
- 완주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anjugun/22347949562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검색일자 : 2024.10.02.)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https://www.jbpresscenter.com>, 검색일자 : 2024.10.02.)

·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jinantourism>)

· 청양군 공식블로그 청양e야기

(<https://blog.naver.com/cheongyange/222961047643>, 검색일자 : 2024.10.02.)

· 청양군청 누리집

(<https://www.cheongyang.go.kr/kor.do>, 검색일자 : 2024.10.02.)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 충남청년포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main>, 검색일자 : 2024.10.02.)